

성북구 문화재지역 구술자료집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 성북구 문화재지역 구술자료집

기획 |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박수진·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고지수(성균관대 사학과 박사)

이현주(성균관대 사학과 박사)

도움 주신 분 | 박병호(서울시 문화관광 해설사)

발행인 | 조태권(성북문화원장)

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발행처 |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Tel 02-765-1611

Fax 02-765-1619

디자인 | 김경희

펴낸곳 | 학연문화사

비매품

© 2015 성북문화원

본 도서의 저작권 및 법적권리는 성북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문서상 합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문화재청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북구 문화재지역 구술자료집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

개요

■ 문화재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 (2) 문화재 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정한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지 따위를 이르는 말.

성북구는 이런 사전적 의미의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다음으로 많다.

문화재는 대부분 오래된 것이다. 그래서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세월의 흔적이 문화재에 남는 경우도 있다. 불행히 훼손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사진, 영상, 조사보고서 등이 남아 그 원형을 추정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무형문화재 역시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은 사진, 영상 등으로 전수되지 않는다. 끊임없는 노력과 전수과정이 없다면 사라지고 만다.

또한 문화재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유형·무형 문화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거나, 갖고 있는 기술이다. 문화재는 사람이 사용하던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람과 문화재는 사람과 함께 해온 것이고, 지금도 그렇다. 우리가 만들거나 사용하던 그 무언가가 문화재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사람과 함께해온 문화재는, 세월에 따라 변해왔다. 그리고 그 변화과정 역시 문화재의 일부이다. 어떤 기억은 기록에 남지 않은 문화재의 원래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고, 어떤 기억은 문화재와 사람이 어떻게 같이 공존해 왔는지를 말해 준다. 이 책은 바로 그 기억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양도성 주변의 마을은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려 왔는지, 홍천사의 문화재는 어떻게 현재를 견디고 있는지, 정릉의 원형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심우장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 책은 말하고 있다. 무형문화재이거나 전수 조교의 이야기도 있다. 그들의 기능은 단순히 그 갖고 있는 무형의 기술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삶의 과정이 그들의 기능에 고스란히 묻어 있다. 그 이야기를 기록·전송하는 것도 그들의 기능을 옹계 전달하는 과정의 하나라 여겨진다.

사람과 마을의 이야기도 담았다. 인터뷰에서는 정릉 주변의 마을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 문화재를 담고 있는 우리 마을은 어떻게 변해왔고, 또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겪어 왔는지를 물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의 변천에 대한 이해야말로, 그 마을이 품고 있는 문화재를 제대로 보는 첫걸음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인간의 기억은 더욱 불완전하다. 따라서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사라지기 전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문화재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책무일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 성북구를 이해하는 또 다른 시각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목차

- 1 부 - 유형 및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북정마을_마을과 한양도성의 공존

- 김현동(마을대표), 김경동(사무장)

정릉_우리가 모르는 정릉의 옛 모습

- 서완석(마지막 정릉참봉의 아들)

심우장_만해 한용운과 그 이후의 역사

- 전보삼(경기도박물관장)

장위동 부마가옥_부마의 집에서, 수행도량으로

- 성암스님(진흥선원 주지)

홍천사_도심 속 도량이야기

- 정관스님(홍천사 주지)

성라원_김일엽과 한용운 그리고 일당스님

- 정탄스님(성라원 주지)

무형문화재

대금산조의 산 증인

- 이생강(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선소리 산타령의 맥을 잇다

- 이건자(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전수교육조교)

- 2 부 - 성북의 역사

대를 이은 독립운동_우당 이회영과 이은숙 그리고 이규창

- 이종철(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성북동 토박이가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

- 계영선(영라인의원 원장)

길음동 주민이 들려주는 미아리고개 이야기

- 지막례, 고순심(길음동 주민,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미아리전투 목격담과 한국전쟁

- 장남용(6.25참전유공자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지회)

정릉 옆 마을, 교수단지 이야기

- 박여병, 이정희 부부

부록

성북구 문화재 현황

1부

유형 및 무형문화재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
인터뷰자료집



1

유형문화재

북정마을_마을과 한양도성의 공존

- 김현동(마을대표), 김경동(사무장)



성북동의 북정마을은 한양도성의 성곽마을이다. 와룡공원 옆에 성북동으로 빠지는 한양도성 암문이 있는데, 그 문 바깥에 성곽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북정마을이다. 북정마을 주변에는 만해 한용운이 말년에 거처한 심우장, 상허 이태준 가옥, 성북동 최순우 가옥 등 품격 있는 한옥도 다수 남아 있다. 북정마을의 주민들은 ‘찾아가는 마을학교’ 교육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마을을 활성화하였다. 북정마을에는 마을공동체협의회가 활발히 운영중인데, 북사모(북정마을을 사랑하는 모임)와 성아들(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자치단체이다. 북정마을의 문화축제인 ‘Wall月축제’는 북정마을 주민과 국민대학교, 성북구의 지원으로 기획되고, 개최되었다. ‘월월’은 성곽(Wall)과 달빛(月) 아래에서 세대 간의 벽과 마음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Wall月축제는 성북동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축제이다. 김현동은 북정마을의 주민대표이며, 김경동은 북정마을의 통장이다. 이들은 현재 북정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북정마을의 자치모임인 북사모(북정마을 사랑하는 모임)의 주축으로 ‘찾아가는 마을학교’, ‘Wall月축제’ 등의 북정마을의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현주



한양도성 복원 전(위, 1976년), 후(아래, 2007년)의 모습. 사진의 성 밖 부분이 북정마을이다.
사진에 보이는 집은 1976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북정마을_마을과 한양도성의 공존

일 시 : 2015년 6월 26일

장 소 : 북정마을 모임회관

구술자: 김현동 마을대표

인터뷰진행 : 고지수, 이현주

- 현재 이 북정마을 행정구역 상 편제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구역 상 성북동이죠. 북정마을은 명칭이고 성북동.

- 북정마을과 관련하여 말고 계신 직책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대표로 있어요.

- 북정마을에 거주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 태어나서 69년 동안 자란 거죠.

- 선대나 가족 분들은 어디에서 거주하셨나요?

아 본적이 종로구 중악동이요. 서울 600년 토박이지 그러니까.

- 북정마을의 총 가구 수는 얼마나 되나요?

가구 수요? 정확한 가구 수는 모르고... 좀 있다 우리 사무장님 오시면
은....

- 북정마을의 변화모습을 설명해주세요.

우리가 전부다 고랭지 지역이고, 전부 다 여기 복개한 곳은 개천, 개천 다음에 오솔길 있었고. 누가 그걸 했냐하면 김정례 국회의원이라고 있었어, 보사부(보건사회부)장관도 하시고, 그 양반이 소방도로를 내줬어요. 북정마을에. 그 때부터 발전한 거야.

- 현재 차가 들어오는 길이 소방도로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는 거요. 그 전엔 없었죠.

- 언제쯤 소방도로가 들어왔나요?

80년대 80년대쯤 될거요.

- 북정마을 예전 모습은 어떠했나요?

큰 길이 들어오고 발전했어요. 성 밑에 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여기는 뭐냐 하면 하룻밤만 딱 세면 집이 생겨. 움막집이죠, 판잣집. 구청에서 지금은 관리하지만 예전엔 경찰서에서 관리했어. 낮에 짓게 되면 경찰들이 와서 허무니까. 밤에 공무원들 퇴근하고 나면 짓는 거요. 거기다가 살림만 갖다놓으면 못 부숴. 거주하는 게 있으면. 고런 거 해가지고 여기에 집이 엄청 많았어요. 문화재관리국에서 거기서 70 몇 채인가 몇 채까지 철거한 거요. 보상금을 주고 다 철거했어. 집이 많이 없어졌죠. 신정동으로, 가고 거여동으로 가고...



김현동 마을대표

- 그 때 보상은 순조롭게 됐나요?

그치 순조롭게 됐지.

- 철거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그것도 한 30년, 30 한 5년(35년) 됐을 거요.

- 그 후 성곽보수는 이루어졌나요?

보수했어요. 성곽보수. 성곽보수 많이 있어요. 하얀 돌들이. 성이 무너져
가지고 그것 다 보수했잖아요. 거 종로구 성북구 왔다 갔다 하는 게, 성문.. 그
당시에 다 보수하려고 무허가를 전부 다 정리한 거예요.

- 처음 거주지는 무허가로 오신건가요?

아니지.

- 성곽마을 거주민들이 살던 땅은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그렇고 얇은 땅이 전부 기요. 국유지예요. 2,400평이 국유지가 있
어요. 여기에... 여기서부터... 차타고 올라왔죠? 저 밑에서부터 국유지가 2천 4백
평이 있다고. 전부 국유지로 개발이 되가지고. 전부 공원이 됐다고. 현재 지금은
진행이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지요. 80년대 기점에 소방도로 나면서... 그 때부터.

- 외부와 내부의 주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밖에서 들어오는 여기는 들어오고 안 나가요. 살기 좋아가지고 자기만
부지런하면 그것보다도 들어오면 안 나가더라고 사람들이.

- 최근 북정마을에 들어온 외부인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최근에는 누가 오냐 하면은 또 예술가들이... 서울괴담이라고 우리 북정 마을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형제간처럼 지내는 데가 있어요. 연극, 예술 하시는 분. 4~5년 되었을 거예요. 여기 소재로 연극하는 거요. 집주인이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판 데로 갔어요.

- 북정마을 이름의 유래를 말씀해주세요.

여기 북적마을이라고도 그래요. 누가 또 책을 좀 내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왜 북적마을이라고 하나면... 자료를 못 찾았어요?

왜 북적마을이냐면, 옛날에 살라면 내보냈어요. 여기 군량창고도 있고 그러더라고. 궁녀. 여기 살라고 내보냈는데, 여기는 토지가 옛날에 전부 다 저 밑에 내려오는 데까지 바위고 산이요. 집을 짓고 토지를 집 지을라고 닦아서 그렇지... 여기를 내버렸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 뭘 내줬냐면 광목을 짜면 누렁잖아요. 짜면. 그걸 일본말로다가 사라시. 사라시 포백, 그 혜택을 준거요. 여기 북정마을에다가. 근데 그게 마전 터라고 마전터 알죠, 광목 같은 마전한다고 해서 마전터. 그담에 또 뭘을 줬냐 하면은 메주 만들어가지고 궁에다 납품한 거, 전부 다 여기다 메주 썼어. 여기가 아니고 저 밑엔데... 북적북적해서 이게 끓는 냄새... 북정마을 여기가 북정 마을이 됐어요.

- 콩농사를 지었나요?

콩은... 농사터가 아니니까 산악지니께...

※ 영조 때 처음 성북동 주민들에게 포백(마전)하고 혼조(메주 쓰기)의 권리를 준 것은 순조 5년(1805년) 재발급한 『성북동포백혼조계원문절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당시의 마을이 북정마을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원주민의 후손들은 계신가요?

글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 산신제의 유래가 어떻게 되나요?

산신제를 우리 어렸을 때는 저 밑에. 거기에 옛날에 산신당이라고 그래. 산신당인데, 근데 이게 민가집으로 들어가 버렸지. 이제 그 집터가 되 버렸어. 우리 어렸을 때는 서당이 있었어. 나무에 빨간... 드라마 보면 나오죠. 그렇게 돼있었는데, 어느 날 무너졌어요.

제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집이 하나도 없었는데..올라오는 입구에 넘 어다보고. 건초가 끼어 있더라고. 집을 다 진거야. 넘어가버렸어. 건축업자들이 다 붙이고 넘어갔지. 이제 동네에서 막 지냈어. 동네에서 지내다가, 무속인이 또 지냈어요. 나를 만나는 곳, 그 집터가 무당. 그 할머니가 하다가 중단했었어요.

그래서 부활을 시켰어. 사무장하고 나하고 부활을 시켰어. 2년 전(2013년)부터 하는 거요... 3년째예요. 당 자리도 길 계곡 꼬트머리다가 거기다가 지 내는 거요.

- 기억나시는 예전모습이 있으세요?

옛날에 거기다가 서낭당을 만들었지. 거기다가 지냈었는데, 동네가 자꾸 개화가 된 거지 터도 전부 다 닦아가지고 집을 짓고.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 북정마을의 토지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하천부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개인이 소유한 땅도 있어요. 자기네 땅에다가 무허가도 많은거야. 여기 누구 땅이 많았냐면. 영화배우 땅, 유인촌이 이몬가 할머니 땅이 많았어요. 팔았다고 그러더라고. 유인촌씨집

그 땅에도 무허가 건물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사놓고 미국으로 갔어도 오래전에... 집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거기다가 집을 짓는 거야. 땅에다가.

- 두부 제조하는 전통적인 비법이 남아있나요?

만들었는데.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상품가치가 없어요. 행사장에서 먹는 거지. 시식하는 거지, 어디다가 팔고 이런 건 못해요. 아직까지는 못하고...

- 메주 만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메주 좋아하시고 애착심이 많은(분이) 여기 한 분 사세요. 고 양반이 한 2~30년 살았나? 연세가 한 70 한3,4세. 메주장인. 그분이 청국장을 만들어 팔아요. 그 집 가면 가마솥이 걸려있어. 아들들도 나가사는데, 아들들도 다 있고. 내 외가 노인 내외가 사셔.

- 무속인의 소재는 알고 계세요?

이사 가고 나서 소식이 없어요.

- Wall月축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처음에는 국민대학교에서 주최. 이해경 교수님이 하셨는데, 한 2년 했나? 한 2년 했어요. 뭐냐 하면은 구에서 예산 같은 게 안 나오고, 예산이 삭감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사비 들여서 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을 만들기...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거기다가 거기서 인제... 마을 만들기 신청해가지고 예산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부활시킨 거예요. Wall月축제를.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도 삭감이 돼가지고, 작년에 인제 우리 동장님이 구청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요. 성북구청에서 트랙 축제라고. 구청장님이 외지

사람 데려다가 돈 들이는 거 하지말자. 트랙 축제 각 동마다 돈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마을 만들기 보조금 받은 거랑 합쳐가지고 한 거예요.

— Wall月축제 예산은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요번에 올렸는데, 탈락했어요. 내가 보니까 성북동이, 선잠마을 사람들이 있더라고. 고 팀이 되고. 우린 ‘3~4번 받았으니까 참아라’ 했는지, 탈락이 됐더라고요. 거긴 나하고 틀린(다른) 거예요. 선잠제. 저는 제를 지내는 사람이고… (떨어져서)어쩔 수 없죠. 북정마을만. Wall月축제도 동장님이 그래가지고 Wall月축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이어나간다고 했어요.

— 그 외의 추진되고 있는 마을조성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아직은 없어요. 여기가 뭐가 문제냐면

(사무국장 들어오심)

지금 우리가 한옥마을로 조성이 됐는데, 재개발지구로. 밑에는 테라스 건물로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월곡동하고 결합개발하려고 하는데. 결합개발 시행한 데가 없어요. 이게 처음이거든. 이게 안 맞고 해가지고, 여기 원주민들은 전부 반대하는 거요. 여기 그런 게 조성되면 다 쫓겨가요.

— 개발관련해서 의견 상의 갈등이 있나요?

여기는 한옥마을로 딱 조성되어있어요. 외지사람들이 다 원주민들은 반대하는 프러스에 해당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거기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한양도성 인근마을로 묶여있는 거예요. 내년엔, 여기는 한옥으로다가 조성

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찬성파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 대응은 어떻게 하세요?

많죠. 생각이야 많죠. 우리가 53명 북사모...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다 대처하는 거예요. (북사모는) 원주민들이죠. 전부 다 사무장, 지금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사무장)이 더 잘 알아. 여기다 물어보세요. 옛날 거는 내가 (더 잘)알고.

– 마을 네트워크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22개...22개 동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우리는 한옥마을로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 할 거야. 받아들이지도 않고. 여기는 북정마을은, 한옥마을로 조성해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서울시에서.

– 다른 마을 지구의 반응은 어떠세요?

글쎄요. 수용적? 우리 마을은.. 원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외지에서 오면 플러스가 많은 걸 다 알아요. 주민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지...

– 성북동아름다운사람들(성아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성아들은 성북동 관광지를 갖다가, 주민들,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해설사들이예요.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 거의 다 거주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교육을 받아서. (관광객들이)그 전에 왔었는데, 지금은 좀 뜸해진 것 같아. 또 많이 오겠죠.

- 마을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장수마을처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 해지가 안됐기 때문에. 개발이 해지가 되지만, 개발이 묶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걷기 좋은 길. 역사문화의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여기는 제외됐어. 왜냐면 개발지역이라. 해지가 되어야 할 수 있어. (장수마을은) 집수리를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 앞으로의 북정마을의 변화에 대한 희망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첫 번째는 개발사업 먼저 해지가 되어야 해요. 해지되면 주거환경, 30년 전부터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비가 새도 손을 못 대게 해요. 몇 년 전부터는 외지인들이 사고서 팔고. 그렇지 않으면 빈집 공가가 많고. 우리도 산책하다가 성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상태로 갖다가 유네스코 등록이 되냐. 외국사람들 다 올 텐데. 만약에 해지가 되고 그러면은 주거환경부터 위에서 내려다보면 깨끗하게. 서울시에서 그런 건 해줘야죠. 돈 있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주거환경부터 깨끗하게 그것부터 하려고 해요. 서울시에서 그런 건 해줘야죠.

서울시에서 예산이라도 쥐가지고 깨끗하게 할 거예요. 해지만 되면. 주민들이 깨끗하게, 살기 좋은 북정마을로다가 맨들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또 미국 같은 데 선진국들도 이런 집은 다 있는 거예요. 가구박물관 갖았어요. 그 앞 마당에 중국 사람들 다 왔다가잖아요. 저 위에 마을이 보이더라고. 상태가 안 좋지. 올려다보니까. 저것도 좀 정리 좀 하고 그래야겠구나. 이것도 문화 유산이예요. 우리가 확 터져있는 길도 아니고. 딱 막혀 있잖아요. 보존만 하면 문화 유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누구라고 얘기를 안대도 해지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주거환경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여기도 문화

유산이니까 남겨놓자. 7월 달에 7월초에 좋은 학자교육할거니까 축제할 준비
나 하라고. 6월 달이든, 6, 7월 달이면 될 텐데. 유네스코에 등록이 될 텐데...빨
리 해야죠. 깨끗하게. 거 성곽 위에서 보면. 깨끗하게.

북정마을_성곽마을, 마을과 한양도성의 공존

일 시 : 2015년 6월 26일

장 소 : 북정마을 모임회관

구술자: 김경동 북정마을 통장(사무장)

인터뷰진행 : 고지수, 이현주

- 행정구역상 북정마을의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성북구 성북동. 요 부근 성곽 인접부근을 갖다가 북정마을이라고 합니다. 성북구 성북동이죠.

- 번지수는 어떻게 되나요?

번지수가 217- 몇으로 나가고, 216- 몇으로 나가는 데가 주로..요 인접부근에...

- 북정마을에서 맡으신 직함을 알려주세요.

저는 북정마을의 통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 통장직을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통장직을 맡은 지가... 한 7~8년 됐을 것 같은데요.

- 다른 공식직함이 있으신가요?

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성북구 성북동이니까, 성북동의 새마을 회장직

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직함은 금년 초에 내놔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 새마을 회장은 선출직인가요?

어느 동네든지 새마을협의회는 협회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임기는 원래 3년인데, 제가 맡은 일이 많다보니까 임기가 작년 말로 사실 종료됐어요. 한 가지 단체는 내놔는데, 이것도 내놓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연임이 되었습니다.



북정마을 김경동 통장(사무장)

– 북정마을에 거주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제가 이 마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30년이 넘었고요, 실제로 산 것은 20년 정도 됐습니다.

– 이사 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 동네 토백이... 동서되는 사람이 이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장가가면서, 동서라는 인연으로 인해서 제가 이 동네를 알게 됐고요. 그 때 당시에 처음 왔을 때는 이 소방도로도 없었어요. 지금은 마을버스까지 다니지만 당시에는 저 쌍다리에서 걸어 올랐어요. 서울에 이렇게 달동네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 북정마을의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북정마을을 알게 되고 걸어 올라올 때는, 굉장히 산동네다 했는데 소방도로 택시타고 오는데 올라오는데 누워서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살다가 보니까, 저 성곽, 명륜동 이런데 보다 경사가 더 세더라고요(심하더라고요).

- 동서되시는 분은 원주민이신가요?

원래 원주민이죠. 그런 분들은 자기 윗대부터 살았고, 자기 살죠, 자기 손주 살죠. 지금 이 동네는 오래 살았다고 하면은 3~4대가 살아야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여기서 오래 살았다는 말을 못해요.

- 현재 북정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의 후손이 계신지요?

예. 오래된 사람들이, 제가 3~4대 걸쳐서 사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절 때 보면 알아요. 일반신도시나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가 한산하게 굴러가는데. 명절 때 마을버스가 못 올라와요. 왜 못 올라 오냐면은 3~4대 살다보니 어른들이 많아요. 자식들도 출가해서 나가사시다가 자식들도 오고, 명절이라고 뭐 일가친척들 찾아오고 하다보니까, 명절 때 보면 길가에 전부 다 차예요. 평소 같으면 '마을버스 방해할 준다' 그러면 이웃 간에 다투고 난리 날 텐데, 우리가 명절 같은 경우는 고향 찾아오고 어른들 찾아오는데, 딱 이틀 동안 명절당일하고 그 다음날까지도 마을버스가 못 올라와요. 그래도 그냥 그 때는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어른분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 지금 북정마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총 몇 가구정도 되나요?

근데 지금 그걸 우리가... 통계를 대충 이야기 하자면은 한 500여 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선을 딱 긋기가 힘들어요. 지금 저 외곽지역으로는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경계가. 개천이면 개천, 이렇게 따라서 하는데, 여기는 정확한 경계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500여 세대라는 것은 뭐냐... 재개발 정비구역 조합원이 한 500여세대가 되가 있어요. 이 정비구역 자체가 북정마을이라고.

- 소방도로가 나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동네 알게 되었을 때 저 밑에서 꼬불꼬불 미로 같은 골목길 통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나마 차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때 소방도로나면서, 83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여기 다 딱다닥 붙어있는데 도로를 내야하니까, 전체적으로 집이 다 철거된 사람도 있지만, 반쪽 집이 남아 있는 집이 삼각형으로 남은 집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집이 왜 이렇게 생겼지. 그런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동네 처음 왔을 때, 이사 왔을 때는 잘 몰랐었죠. 이 동네 매력을 느낀 건 뭐냐... 서울시내서 중심부를 어디로 생각합니까. 광화문이라고 해도 좋고, 서울시청이라고 해도 좋고, 청와대라고 하면 될까요. 그 중심부에서 가장 직선거리에서, 이렇게 공기 좋고.. 내가 봤을 땐 없습니다. 밤이면 뼈꼭새 울죠, 가을이면 소쩍새 울죠, 들꽃....

- 북정마을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내가 볼 땐 장단점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로서, 지금은 한양도성이라고 하지만은 성곽 옆에 심우장이 있습니다. 문화재 인접마을이다 보니까 개발제한을 받고 살아왔고. 심지어 재산

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사실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어떠냐. 현재에 와서는 지금 연세 드신 어른들은 절대 이 동네 떠나기 싫어해요. 현 주민들이요. 그런데 재개발 어찌구저찌구 하니까 옛날엔 재개발이라고 하면 집을 주면 새집을 주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용적률이 높고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이 동네는 더군다나 용적률이 100프로도 안 나와요. 60프로 밖에 안 나와요. 100프로면 90프로는 돈도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돈도 아무것도 없고 쫓겨나야 한단 얘기에요. 다른 문화재가 없으면 고층으로 올라가서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여기는 문화재 때문에 고층으로 못 올라가요. 이 쪽으로는 단층이, 한옥, 용산 테라스 하우스. 옥상이 뒷집 마당이에요. 저쪽에 저층은, 4층 빌라.. 그러다보니 용적률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런 실정이 되다보니까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이런 제한이 없는 동네라도 요즘은 재개발이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은 여기서 죽기를 바래요. 제가 말씀 좀 두서가 없습니다만.

과거의 문화재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피해가 컸지만은, 지금 현재에 와서는 서울에서 공기 좋고 인심 좋고 지금 우리 동네 주민들이 6~70년대 시골 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인위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성냥갑 같은 아파트 다 싫어합니다. 여기서 계속 보존개발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저는 어떤 자리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정마을 이 자체가 역사이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런 마을은 찾아 볼 수도 없고. 나는 과감히 우리나라의 DMZ와 비교하고 싶어요. DMZ가 과거사를 생각하면 남북이 갈라진, 우리가 참 아픈게... 현재는 어떻습니까? 생태계의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문화라고 그렇게 나는 주장하고 싶어요.

- 현재의 불편 없이 현재의 형태로 보존되기를 원하나요?

보존 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글자 그대로 보존, 그리고 또 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이대로 잘 살자는게 아니에요. 한양도성이 문화재. 외국인도 관광지로 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마을은 방치돼 있는 상태예요, 쓰러져가는... 공가도 여러 채 있어요. 그런 걸 그대로 놔두자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꼬불꼬불 한 골목길부터 예술적으로 살려서. 바둑판같은 그런 길이 아닌, 보존도 해가면서 뭔가를 개선을 하자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은. 터가 잘려서 반쪽 집이라고 했는데, 그런 건 합의하에 이웃집하고 얹혀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조금 이제 개선을 하자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원주민을 싹 몰아내고. 여기에 청와대를 지으면 뭡니까. 여기 원주민은...아무 관계없어요. 쫓겨나기 싫다는 거예요. 시골집에서 고속도로가 났다. 이런 건 그건 제법 보상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데는 재개발하는 게 주민들에게 강제로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업자들이 여기 용적률이 이렇게 낮는데...여기 업자들이 자기 돈 보태가지고 건물 짓겠어요? 전부 다 조합원들 돈 뺏어가지고 사실 하는 거나...제가 조금 과감한,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고 보상받아가지고 원주민들은 밖에 나가서 전세도 못 얻어가지고 그런 실정이에요.

- 재개발에 대한 생각을 더 말씀해주신다면?

과거에는 재개발하면 정말 심지어... 그거 뭐라고 하나. 주권. 속칭 딱지도 사고팔고 했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땐 조합원하면 이익을 받으니까 그렇고. 아파트단지를 짓는다 (하)면은 주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익을 받아요. 여기는 지금 조합원은 집을 지으면요. 평당 1,720(만원)이라는 걸로 나왔었어요. 조합원 아닌 사람

1,200(만원)으로도 구입하고, 1,300(만원)으로도 구입합니다. 이해가 잘 안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어 1,720(만원)이라는 게 재개발할 때 그렇게 결정이 되면 조합원은 무조건 1,720(만원)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미분양사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건축업자가 부도 안 나려고 다운시켜요. 1,600(만원)? 1,600(만원) 다음에 1,500(만원). 안되면 1,300(만원). 계속 다운시켜요.

미분양: 다운시켜서 팔아요. 조합원이 항의했어요. 심지어 법정까지 갔어요. 조합원이 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신들은 처음에 계약할 때 1,720으로 계약 했잖아. 그럼 끝이에요. 미분양되는 거 다운시키고, 다운시키고 하면, 강제 집행 같은 거... 다운되고, 다운되고. 요즘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 성곽마을 네트워크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요?

지금 네트워크 모임이 참여한 지가 제가 오래됐습니다. 매월마다 한 번 씩 하는데, 성곽마을이 몇 개가 있지만 사실 참여하는 동네는 그만큼 숫자가 안되요. 심지어 관심이 없다 할 정도로 아예 안 나오는 데는 아예 안 나와요. 물론 몇 개 동네는 참 참여도 잘하고 그런 동네도 있지만은... 가장 심한 동네가 우리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야기 거리 가 너무 많은데...

역사문화지구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성북구, 성북구에서도 성북동입니다.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 북정마을이 빠졌습니다. 북정마을을 빼고는 내가 볼 때는 역사문화지구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정비구역이라서 빠졌습니다.

심지어 앵두마을이 들어갔습니다. 앵두마을, 선잠마을, 북정마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앵두마을 사람들이 들어보면 조금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러냐하면 성곽마을이라고 한다면 성북구에선 성북동하고 삼선동

입니다. 앵두마을이라고 하면 경신고 뒤편, 서울시장 본관(舊公館)있는데서 그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거 가면 성곽도 없어요. 경신고 뒤편 담장을 보면 성곽돌 주춧돌 같은 게 있어요. 난 그거 복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곽도 없는 마을에 성곽마을이라고 한다는 거는 여기는 엄연히 성곽이 우리 마을 감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북정마을이 빠지게 된 것은 재개발지구라 빠졌는데, 거 성곽마을 재생사업으로 원래 6월말에 한다고 했는데, 6월말에서 7월경에 용역이 내가 알기로는 곧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정마을 빠졌어요. 바로 재개발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속상해요 속상해. 속상해.

여기 Wall月축제하면서 외국인들하고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그 때 그 양반이 자기가 한국에 온지 5년 됐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로 봐선 한 10년 됐겠죠. 북정마을 들러 본 소감을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나면은, 자기가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있으면서 관광지 뭐 명승지 여러 군데 가봤대요. 북정마을만큼은 또 틀리(다르)다고. 다른 동네 가 봐도 명승지라고 해도 거기서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을을 보존을 해야 되겠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쉽게 달동네 같은 경우에는, 안보상에 막 위험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네는 전혀 그런 게 없고 편안해 보인다고 하는 게 기억에 남는데.

우리 동네사람들은 정말로 시골인심 같고요, 만약에 각 가정마다 길흥사가 있으면요, 이웃이라는 자체 하나만으로 찾아가고, 초상 나도 찾아가고, 저 집 손가락이 몇 개인지, 이 집 손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정도예요. 나도 동네 오래 살았던 소리를 아직 못해요.

노인정 사무장일을 6년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 함자 대면 다 알아요. 통장이 젊은 사람 이름대면 몰라도 어르신들 이름대면 다 알아요. 그리고 꼭 6,70년대 시골 모습 그대로예요. 이런 정서는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북사모는 어떤 모임인지요?

북사모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한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에서 젊은 층까지. 우리 동네를 위해서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동네 노인정, 어떻게 보면 어른들에서부터 우리 동네를 위해서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좋은 일은 끝도 없어요. 어른골목길도 자체적으로 미화작업을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북정마음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그래서 북사모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3월 22일 날 임시, 임시모임을 이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확정을 짓고, 4월 7일 날 발대식을 하고, 매월 마지막 일요일 7시에 이 자리에서 정기적으로 월례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례회의를 한 지가 며칠 안됐어요. 그 때 분명히 이 주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옛날 계모임, 요즘 친목회, 그런 모임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도 예외가 아니에요. 있지만은, 이거는 북사모는 우리가 먹고 놀자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술도 없고 저녁도 없다, 회의를 마치고 자기 돈 내고 사먹던지 말던지...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식사를 제공 안 한 것도 있지만, 동네 또 뜻있는 분들이 내가 좀 뭐라고 하면 되지 않냐? 어찌구 저찌구 하다보니까는 하다못해 국수라도 삶아 먹고 갔어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콩국수를 제공해주겠다고요. 자발적으로. 그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북사모 인원은 총 53명인가요?

처음에는 3~40명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하자면은 단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조끼를 준비했어요. 발대식 하는 날 그 숫자가 다 나갔어요.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호응도가 쯤.

－ 대외적인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재개발 반대라고 할 수 있죠. 비공식적으로 많이 모았어요. 사실은 그 때 당시에는 지금까지도 아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요, 늘 복지부동... 그 사람들은 왔다 가면 그만이고, 적당히 떠나가면 그만이고,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중팔구가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5월말 경에 한양도성인접마을재생사업, 행자부에서 하는 공사가 있었어요. 그런 행자부에서 50프로 제공하고 구청에서 50프로 제공하는 큼직한 건수가 있더라고요. 뭐 공무원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다 뽑아주고... 이 사람이야 북정마을 꼭 필요하다, 그 사람은 성의 있게 뽑아주고 했는데, 우리가 신청하러 갔었습니다. 갔지만은 실망하고 왔어요. 선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접수도 안 받아줘요.

그것도 이유인즉 재개발정비구역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사이드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사업은 자기들끼리 다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문만 내놓고 줄 사람은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서 이런 내용이 적합하다고 하면, 공무원 입에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다 내가 봤을 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예요.

－ 성북동의 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먼저 Wall月축제부터 말씀드릴게요. Wall月축제는 2009년도 201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 때는 국민대학교 이해경 교수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그 때는 구청에 직접 지원을 받아서 지원금이 국민대에 그 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또 필요한 거는 그 쪽에서 주고, 내가 첫 해부터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 그 후에 2009년, 2010년도 하고 나서 11년도에는 어른들 모아가지고

문화관에서 했는지 문화재단에서 했는지 모르겠다... 골목길에서, 2012년도에는 아예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우리가 찾아가는 마을학교해 가지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을학교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왜 Wall月축제를 안하냐? 다시 재기할 수 없냐? 제안이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여서 마을 만들기 공모신청을 했어요. 2014년도에 선정 돼서 그때도 참 잘했어요. 서울시로부터 최우수상까지 받았어요.

금년도에는 신청이 떨어졌어요. 현재상태는 막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민들에게 각출해서, 돈 낼 사람도 없고. 자신도 없고. 불가능한 게 맞아요. 못 올라갈 나무 왜 쳐다봅니까.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막연한데...

신년 초에 신년인사. 우리가 처음에 Wall月축제는 우리 북정마을에서 시작했지만...지금 현재는 성북동 Wall月축제로 해도 과언이 아니고, 축제하면 성북구 대표로 Wall月축제, 그렇게 했는데...지금은 상태가 막연하고요. 월월이라는 뜻은 (담장과 달빛), 그것을 이름 지을 때도 이해경 교수님하고 사실 참고심고심을 했는데요, Wall月축제의 취지는 뭐냐 면은 벽을 뛰어넘자 남녀노소 빈부의 별의별 벽이 다 있잖아요. 그런 벽을 뛰어넘고. 관민. 관 구청, 동사무소, 민이라면 우리 동네사람들 학교, 국민대학생들, 예술인들 다 합쳐서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자는 취지가 너무 좋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시작해왔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 Wall月축제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Wall月축제의 처음의 시작은 그런 뜻이 있었지만 우리가 계승을 해가지고. 역사와 전통을 생각해서, 그 내용 중의 하나가, 그걸 얘기하기 전에 북정마을에 대한 소개를..북정마을의 유래는, 영조 44년 1768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때 궁에서 쓰는 메주를 우리 성북동, 우리 성북동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궁에 납품하는 거라 이 말이죠. 사람들이 많아서 북적북적거렸고, 메주를 끓이는 소리도 북적북적했답니다. 그래서 원래 북적인데, 북적북적하다보니 북적마음으로 된 겁니다.

－ 전통축제로서의 Wall月축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거는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나도 어떤 자료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지. 그런 자료가 없다면 내가 영조 몇 년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Wall月축제를 2013년부터 어떻게 했냐하면, 보다 북적북적 메주 쪼던 걸 시연을 해서, 쪼에 들고 다니게끔, 메주와 관련된 것이 뭐니까 콩, 콩과 관련된 음식이 뭐일까? 대표적인 게 두부, 콩을 불려서 맷돌에 우리가 그 행사 같은 것을 돌려서 갈아요. 학생들에게 맷돌 체험... 직접 와서 돌려보게 하고, 밑에 콩물이 나오면 이게 바로 두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학생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거 짜가지고, 끓였을 때 간수를 치면 그러면 엉켜지잖아요. 그럼 또 신기해하고. 그런 시연을 할 수 있게끔. 사실 하다보면 힘들어요. 힘은 들지만 그래도 전통을 생각해서 지금 그런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1월 10일날, 한양도성 마을 만들기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행사를 했는데요, 1월 10일날요. 소원등 달기 행사를 했었어요. 난코스에 데크를 만들어가지고 설치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 바로 요 위에 나가면 바위가 있어요. 양바위, 자연석이에요. 꼭 양같이 생겼어요. 이 부근이, 연나산이라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연을 놀았다고 해서, 연나산. 그럼 좀 역사적인 걸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1월10일 날 소원등 달기, 연 만들어가지고 날리기가 행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몇 명이나 올라 했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재료가 모자라 가지고 처음에는 몇 명이나 올라 했

는데, 그건 학생이 오면 학부모까지 따라와요. 여긴 할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조손이 같이 연을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나 뜻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년에 또 한다고 하면은 재료를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좀 뿌듯했습니다.

－ 북정마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역사문화지구 중에서 북정마을이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삼선동하고 북정마을하고는 솔직히 누구든지 자기 것이 더 좋다고 해요. 삼선동 장수마을하고 우리 마을하고 솔직히 가치가 다릅니다. 장수마을 이름 자체도 마을 만들기 하면서 어른들이 많이 살아서 장수마을인줄 알았어요. 천만에 말씀이에요. 마을 만들기. 우리 마을이름을 뭘로 할까? 해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북정마을은 역사의 한 페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선동 장수마을도 장수마을이지만은.

(누군가 들어오셨다 나가심)

서울시에 성곽이 몇 개 구로 거쳐서 성곽이(문은 4개고, 소문은 4개고), 그 문 말고 또 있어요. 대문, 소문하고 또 다른 문이 또 있어요. 암문. 그럼 먼저 서울시에 성곽이 관통된 구가 5개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성북구, 동대문구, 남산 쪽으로 가면 남대문구(중구), 저쪽 사직동, 부암동 쪽으로 가면 서대문구(를) 거쳐서 성곽이 이루어져 있어요.

성곽마을 중에서 서울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북정마을, 그래서 한양도성 중에서도 우리 마을이 공동체 같은 거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4대문, 4소문, 암문. 왜 암문인지 아세요?

심지어, 내가 농담 한마디 할까요? 암문이니까 암수라니까? 그럼 수문도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성곽이 돌이니까. 바위라서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은밀한 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궁에서 살짝 나갔다가 들어오는 문. 그래서 암문이라고 그래요. 암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마을하고 종로구하고 암문이 있어서, 실지 조금 창피하지만 우리 동네사람들도 암문이라면 잘 몰라요 옛날에는 그냥 성곽 했어요. 지금은 한양도성이라고 그러는데, 도성 산성이 왜 틀린 지 아십니까?

남한산성, 행주산성 있지 않습니까. 그 보다 중요한 게 한양도성이에요. 도성은 뭐냐... 한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한 나라의 도읍지, 중심부를 둘러싼 것을 갖다가 도성이라고 합니다. 남한산성은 도성이라 안 그래요.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은 역사학적으로 한 나라의 도읍지가 아직까지도 서울 안에 있잖아요. 현재 이런 도성이 과거의 수도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성, 산성, 나성, 나성은 뭐냐? 성곽도성이 또 있대요. 이중으로... 제가 아직 그건 못 봤습니다.

- 북정마을 개발에 대한 바람을 말씀해주세요.

우리 마을을 찾아준 관광객들이 근간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심우장으로 해가지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걸어온 그 분들이 옛날 시골 돌담길 걸어보는 그런 느낌... 아스팔트길보다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고 심지어 골목길 연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와서 보면 이런 건 보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주민도 그런 생각인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초조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고 그러면 밤이 새도록 합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 끝으로 북정마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끝으로... 잘 보존돼가지고, 만약에 잘 보존만 된다고 한다면, 몇 년 안 돼서 게이트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아도 될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로 사라진다면 이걸 절대 못 만들어요. 생태계 보고 DMZ에 버금가는 동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북정마을 안내도 앞에서: 김현동 마을대표(우)와 김경동 사무장(좌)



2 유형문화재 정릉_우리가 모르는 정릉의 옛 모습

- 서완석(마지막 정릉참봉의 아들)

●
●
성북구 정릉동에 자리 잡은 사적 제208호인 정릉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제2비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康氏)의 능이다. 왕후의 능이 성북구 정릉동으로 옮겨진 것은 1409년(태종 9)이며, 능 관리를 위해 영(令) 1인, 참봉 1인을 두었다. 조선시대 능관은 종9품 참봉이어서 흔히 능참봉이라 한다. 능참봉은 조선시대 왕릉을 수호하는 미관말직으로, 왕릉 내의 산림을 수호하면서 일반인들의 범경(犯境), 경작(耕作), 투장(偷葬), 투작(偷斫)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조선후기 능역에 몰래 들어와 땔나무를 하거나 목재를 베어가는 일이 빈번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막는 일이 능참봉의 주된 업무였다.

현재 정릉 입구 왼편에 재실이 있는데 이곳이 왕릉 관리를 맡은 능참봉이 상주해 있던 곳이며, 제례 시에는 제관들이 머물면서 전반적인 제례를 준비하던 곳이다. 집무실과 제기고, 행랑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실되었던 정릉 재실은 2014년에 복원되었다. 조선시대 마지막 능참봉의 막내아들인 서완석 교수님은 정릉 재실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릴 적 살았던 정릉에 대한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신 정릉 토박이로 마을의 역사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다. 오늘 이 분과의 만남을 통해 잊혀진 전통시대 능관의 삶을 엿보는 것도 성북동 사람들만의 고유한 역사기억이 될 것이다.

고지수

정릉_우리가 모르는 정릉의 옛 모습

장 소 : 입체패턴연구소(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구술자 : 서완석

인터뷰 진행 : 박수진, 백외준

인터뷰 정리 : 고지수

- 선생님께서는 현재 의상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신가요.

예, 의상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성북문화원에서 성북구 전체 역사에 대해 기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릉과 관련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59세인데 정릉 재실에서 태어났어요. 재실이 1969년도에 헐어서 지금 다시 복원 작업 중이에요. 요번에 제가 고증을 해서 심의 문화재를 통과해서 재실을 짓고 있어요. 제가 고증했죠. 제 누님하고 정릉에 같이 살았던 그분하고 셋이서 문화재 심의의원들 나와서 통과해서 짓고 있죠. 저는 재실에서 1955년도에 딱 태어난 거죠. 우리 아버님이 정릉의 마지막 참봉이셨어요.

-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서 재자 복자. 실을 재자, 나눌 복자해서 서재복. 1892년생이세요. 여주 영릉에서 참봉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정릉으로 참봉으로 오신 거죠.

- 그러면 정릉 참봉에 임명되셨을 때가 언제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주 영릉 참봉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우리 아버지한테 보낸 엽서를 갖고 나왔어요. 그게 있는데 그게 1910여년도, 십 몇 년도까지 영릉의 참봉으로 계시다가 그 이후에 정릉으로 오신 거 같아요. 근데 저의 누님 96세 되신 분이 살아 계세요. 그분 말씀으로 정릉에 와서 대실을 많이 복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참봉 서재국인데 이게 여주분입니다. 여주에서 영릉의 참봉으로 있을 때 인데. 이게 새해 인사를 한 거예요. 하나 나왔어요.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이 이후로 정릉 참봉으로 오신 거죠. 옛날 책도 다 분실되었어요. 그걸 갔다가 넘기다가 보니까 나왔어요. 다 도둑놈들이 다 집어가고 없어요.

그 후에 아마 정릉 참봉으로 오신 거 같아요. 그건 난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 저번에 문화재 심의의원들 나왔을 때 몇 년도라고 물으니까 그 양반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분들이 모르는데 내가 알겠어요.

- 어떻게 찾아볼 수 없을까요….

금방 찾을 거예요. 이게 내가 초등학교 5,6학년 때예요. 이게 능 재실 안이에요. 여기서 살았어요. 이때는 다 허물어져 갈 때. 이게 아래층이에요. 지금은 위 층을 짓고 있거든요. 이게 아래층. 정재실이 원래 조선시대 재실들이 평지인데 요것만 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문, 대문 올라가는 것도 계단 문으로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일층이 되어 있고 또 한 두 세 계단 올라가서 이층이 형성 되어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그렇게 지으려나? 그렇게 짓겠지. 복원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어디서 조립해서 가서 갔다가 때려 짓더라고요. 그래서 짓는 것도 하나하나 고증해 해가나 했는데 안한대요. 이제는 틀 짜놓고

그냥 올린대요. 지어놓고 나면 내가 보면 어느 정도 접근이 됐다 안됐다 보이는 거죠.

- 얼핏 전해 듣기로 홍살문이 원래 거기에 없었다고 기억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앞쪽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능에 이렇게 보면 돌 앞에 누각, 능 앞에 누각이 있는데 옆에 돌이 받는 돌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없었는데 그게 나왔더라고요. 내가 마침 여기서 사진 찍은 게 하나 있어요.

- 그건... 소전대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어디서 발견했다고 하네요.

내가 어렸을 때 딱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위치에서 그게 없더라고요. 내가 고 1, 2 때 거기서 딱 찍었대요, 요새 없었는데 나왔더라고요. 중학교 2, 3년 때까지 그 위치가 있었더라고 사진에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없었을 거예요.

- 없었다가 다시 만들었군요.

이게 우리 아버지 영릉에서 참봉 했을 때 사진 찍은 거예요. 정릉이 아니고 영릉이에요. 참봉이고 졸다구들 네 다섯 명.

- 관복을 입으셨네요. 이때가 일제시대 인가요?

그렇죠. 구황실 시대니까요. 그래도 고종이 월급을 주실 때니까요.

- 그러면 계속 황실에서 월급을 받으시면서 하셨나요.

그럼요. 해방되면서 월급이 끊어지셨죠. 그때부터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어요. 벼슬하시던 양반이 뭘 해요. 능 앞에서 차려놓고선 장사를 했죠. 그

것도 사진이 있어요.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 때는 밤만 되면 그 동네 건달들이죠. 건달들이 다 뜯어서 모닥불에 땀대요.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해놓은 누각에서 거지들이 살았죠. 거지들이 두 세 명이 항상 살았으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 거지들 잡아갔어요. 거지들이 거기에서 살았어요.

- 그럼 정자각이 계속 있었던 거죠?

정자각은 있던 거죠. 옆에 작은 거 비석인거 말고 옆에 것도 없었는데 지은 거예요. 옛날에 있었다고 해서 지었는데 그건 저희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서완석씨와 서완석씨 누나를 찍은 사진으로,
1950년대 후반까지 정릉에
연못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입구에 느타나무 아버님이 심으셨다고 안 그랬어요? 느타나무 막 올라가는 거요.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앞에 등나무를 심었죠. 매표소에 있는 등나무를 심었죠. 그때는 홍천사에서 넘어 오는 게 완전 숲속 길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야 하니까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야 해요. 그러면 동대문 시장에서 돈암동까지 전차가 있어요.

전차로 동대문에서 가서 물건을 떼어서 돈암동에서 전차 타고 와서 홍천사 산길을 넘어왔어요. 그 산길 숲속에서 아주 무서워요. 뻑뻑하고 밤에는 여우 우는 소리, 늑대 소리도 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숲속이 우거졌고 아리랑 시

장에서 올라오는 길도 집이 마지막집이 보국사, 거기에 집이 있었고 보국사가 오래된 집이에요. 거기에 집이 그 집 하나 있었어요. 밑에 삼거리에 집이 있었고, 그 위쪽에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보국사가 마지막집이에요. 귀한 아들이라고 김밥을 들려 보내지, 찬합에다 나무 찬합에 몇 곱을 싸서….

— 그때는 김밥이 귀한 것이었나요?

그럼요, 소풍 갈 때만 먹는 건데요. 저희는 입학과 졸업할 때만 탕수육 먹었는데, 우리 누나가 와서 사줘서요. 탕수육을 어떻게 먹어요. 졸업할 때 자랑면도 귀했어요. 중학교 때 담임이 가정방문을 오셨는데, 아버지가 찜뽕을 딱 두 그릇만 시켜서 선생님하고 아버지하고만 드셨어요. 아 냄새가, 세상에 찜뽕 냄새가 맛있는 줄 세상에… 그렇게 돈이 귀했으니까요. 그때가 찜뽕 배달이 거의 자전거로 할 때예요. 주전자에 찜뽕 국물을 담아서 자전거에 끼고 와요. 이렇게 와서 면에다가 양은 주전자로 찜뽕국물 달아서 주던 시절인데요.

— 네. 그러셨군요.

아니, 젊은 사람들은 전혀 와 닿지 않아서… ‘왜? 사먹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요.

— 저도 그때 잘 먹고 자란 거 같지 않아요. 시골에 있어가지고요.

— 그때 흥천사에서 초파일 때는 동네잔치라면서요?

그때 당시에? 에이 무슨 동네잔치를 해요. 아니 동네사람들이 흥천사에서 일해주고 밥 얻어먹은 것이 다고요. 초파일 때는 신도가 워낙 많아서 가서 신도들이 하지요. 나도 엄마 따라가서 먹으면 그때 튀각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튀각하고 콩나물이었지. 흥천사에서 무슨 도움을 줘요. 끝까지 도움 안줬지.

- 옛날 정릉에 공장 같은 건 어떤 게 있었나요?

청수장 쪽에 청수냉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청수당면, 그때는 당면공장이 컸어요. 청수냉면, 항상 우리 아버지한테 회장님이 인사오고, 통일주최국민대의원 할 때도 인사 왔어요. 거기 넷째 딸이랑 나랑 선을 봤을 때 장가들 뻔 했는데, 내가 당면공장 공장장 할 뻔했는데요. 당면 공장이 정릉에서 컸어요. 정릉이 그렇게 국수나 작은 것들만 있었지 정릉에는 공장이 별로 없었죠. 청수당면이 제일로 큰 공장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정릉은 거의집이 없었어요. 거의 집이 없다가 초등학교 되면서부터 집을 엄청 짓기 시작 한 거죠. 1955년이니까 1960년 중후반부터 팽창이 됐죠. 청수당면, 청수냉면이 아직도 있어요? 그 공장이.

- 아니요. 청수냉면이 삼거리에 생기면서 없어졌죠.

당면 공장, 나중에 청수냉면이 이런 게 나왔어요. 라면같이 나왔어요. 굉장히 컸었는데, 슈퍼에서도 다 깔렸고 몇 년 전까지만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게 원래 정릉에서 제일 컸어요.

- 정릉 물로 했나요?

정릉 물로 했겠죠. 508단지 정보부단지. 교수단지 이전인지, 이후였나? 교수단지 이후였지….

- 정보부단지는 뭔가요?

508번지, 정보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허가를 안내줬다가 서울대 쪽에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분이 육영수 여사 사촌, 혹은 오빠라고 했어요. 그분이 왜 여기서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해서 508

단지 그쪽에 그 정보부 직원들이 사는 사가 단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석관동으로. 석관동에 본부가 있었어요. 정보부 직원들 사택. 지금은 다 헐어서 거의 빌리지만 사택 개인주택이었죠. 보국사 절 짓는데 말고 맨 왼쪽으로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피오래 아파트, 돌산이었어요. 다이나마이트로 깎을 때 시간해서 귀 막으세요. 그래요 아주 팡하고 깨고 그런 시대예요. 눈앞에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던 시대예요. 그렇게 깨냈는데도 돌산이잖아요. 깨다가 다 못 깎죠. 워낙 큰 돌산이니까. 굉장히 큰 돌인데요. 완전히 돌산이에요. 그걸 다 깨먹었어요.

— 벽돌은 지방에서 올라오고요?

완전히 가려진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돌은 완전 다 깨버리고 그러



현재 정릉의 모습

면서 피오래 아파트가 들어선 거죠. 아주 돌산이 컸어요. 바위가 컸죠. 다이나 마이트로 터뜨렸는데요. 팡팡 돌산 깨고 저주 받아서 다들 잘 안됐어요. 아버지도 잘 안되고 그 뒤에 아파트 지려고 했던 사람들도 3, 4번 부도가 났었죠. 그거 깨면서 다 부도가 났어요. 그거 몇 사람이 작살나고 깨고 올라간 아파트 예요. 자연을 완전히 다 깨고요.

원래 이 동네 분들이세요?



인터뷰에 응해준 서완석씨의 사진

- 아니요. 저는 고향은 지방인데요. 종암동에 10년 째 살고 있습니다.

삼선교에 미서극장, 동도극장 있었어요. 돈암동에도 있었어요. 태극당 자리에. 삼선교 못 미쳐서 가다가 돈암동에서 삼선교 사이에 동도 극장이라고 하나 있었죠. 동시 상영하는.... 그래도 지역 사람이라 이야기도 잘 통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안한데 제가 또 다음 일정이 있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유형문화재

심우장_만해 한용운과 그 이후의 역사

- 전보삼(경기도박물관장)

●
●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 1933년부터 입적하던 1944년 6월 29일까지 살던 집이다. 한용운 선생은 이 집에서 딸 한영숙 여사를 낳았고, 일송 김동삼 선생의 장례를 치렀다. 『흑풍』, 『박명』 등의 소설을 쓴 곳도 심우장이다. 한용운 선생의 사후에도 가족들은 이 집을 지키고 살았고,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는 성북구청이 구입하여 관리 중이다. 이번 인터뷰를 한 전보삼 경기도박물관장은 한용운 연구의 권위자 가운데 한 명이다. 하지만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것은 단순히 연구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우장에 직접 거주하며 한용운 선생의 선양사업을 하였고, 심우장을 떠난 후엔 남한산성에 ‘만해기념관’을 만들어 한용운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 심우장을 문화재 등록한 것도 전보삼 관장의 공이다.

성북문화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주목받지 못한 한용운 선생의 심우장 시대에 주목하여 2014년 ‘만해의 심우장시대’라는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한용운 선생의 성북동 시대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가 바로 전보삼 관장과의 인터뷰이다. 우리는 전보삼 관장에게 당신이 한용운 선생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일제 강점기 심우장의 의미, 한용운 선생이 오늘날에 전하는 메시지 등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모두 물어 보았다.

박수진

심우장_만해 한용운과 그 이후의 역사

일 시 :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장 소 : 만해기념관에서

구술자: 전보삼 경기도박물관장

인터뷰진행 : 박수진, 백외준

(인터뷰 부탁에 응하며)

‘심우장 이야기’라는 책을 내야 한다고 작년에 찾아 왔어요, 한 200매 써 달라고 책을 내야한다고 일전에 구청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보류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일환은 아니지?

- 예,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문화재청?

- 저희가 성북구 전체에 있는 그 문화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있어서요, 정릉 같은 경우에는 능침봉을 지냈던 분 아드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당장 어디 쓰거나 이런 것 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국가보훈처, 성북구청 등이랑 이것저것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데에도 좀 사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용운 선생님 선양사업에 사용하고, 앞으로 이런 인터뷰를 가지고 더 많이 자료로 축적을 하고 후세에 좀 남기고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축적도 하고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심우장 특별전을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기획전시실 여기서 한 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때 있었던 작품들 중심으로.

-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심우장에서 한용운 선생님이 하신 활동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심우장 시절의 한용운 선생님에 대해선 모르는 것이 많고, 심우장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최근에 심우장 옆에 있는 관리동 쓰고 있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해서 철거식까지 했거든요. 철거 공사까지 지냈는데 예산이 지금 거기는 포클레인이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게 보통의 건물이면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데 거긴 다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업체에서 못 하겠다 그랬나 봐요. 그 돈으로 계약을 해 놓고서, 그래서 또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예산까지 확정 되서 뭐 업체 선정하고 공사까지 지냈습니다.

성북구청장님 보고 내가 그거 강력하게 빨리 헐어야 한다고 얘기하였고, 여기 왔을 때도 얘기했고, 내가 백담사 만해마을에서도 얘기하고, 인제 시 집박물관 거기서 내가 구청장님께 직접 얘기하고 빨리 헐라고.

-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법진스님 아시죠? 찾아갔더니 뭐 여쭙보려고 갔더니 바로 한영숙 여사한테 연락을 하셔서 보니까 그 자리에 원래 아래채라고 불리던 건물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래채라고 불렀다고.

그 건물은. 조그마한 일자로 돼있는 거 슬레이트 건물이 하나 있었지 작은 집이야. 아래채가 있었지.

- 아래채라고 불렀던 건물이 있었다고 들어서 그렇구나하고 알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선생님께서 만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순차적으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기념관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 예. 그 인터뷰 하시는 걸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또 네. 또 자세하게 좀 저희가 듣고 싶어서. 어릴 때 학교 다니실 때 그 중학교 때부터인가 만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듣고 싶어서요.

이걸 해가지고 뭘 할 건지 그러면 기록으로 남길 거야?

- 예. 기록으로 남겨서, 녹취록을 다 풀어가지고요. 인터뷰 자료집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예 진짜 자료집 형태로 만들어서 사료로써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인터뷰 푸는 분들도 따로 모여 왔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 발체를 해서 하면 그게 이제 자료집으로서는 가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전문을 다 실어야 가치가 있다고 해서 전문을 중복되는 말 정도만 빼면 전문을 다 실어서 이렇게 좀 문화재청 쪽에도 제공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출판은 아니고 이제 600부정도 발간을 해서 배포하는 거죠. 전국 문화원이나 문화재청이나. 출판으로 해서 정식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내가 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록 보존실에서 근대사 증언 해가지고 한 20시간 정도를 해가지고 다 해놓은 게 있거든. 방대한 자료야. 그런데 그중에 어느 한 파트가 되겠는데.

- 한국학중앙연구원? 아, 여기 중앙 연구원 사이트에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요.

올라와있어? 봐봐.

-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긴 한데 5시간정도 되네요.

5시간, 그거 굉장히 많이 해갔는데. 정리 한 것이구면.

- 정리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리를 한 거구나. 이거는 정리를 한 건데? 목록이구만.

- 예. 그거는 이제 다 원문은 아니고 개요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5시간 정도로 편집을 한 것 같고요. 좀 중복되시더라도 새로운 이야기 있으시면 듣고 가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가까이 했고 집이 강릉불교포교당 관음사라는 절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 강릉포교당은 강릉 시내 한복판의 절이에요. 1922년에 만들어진 절인데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 앞마당에 운동장이 있고 거기가 놀이터였다고. 거기서 놀게 되니까 자연히 스님들하고 자주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지.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정식으로 불교학생회 중학교 학생회가 있었는데 강릉 포교당 학생회 거기에 이제 입회를 하게 돼가지고 학생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돼서 반야심경을 내가 잘 외웠는데 뜻을 알지를 못했어. 그 뜻을 알려고 그거를 알려고 여기 저기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그때만 해도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니까 물어도 보고 해도 신통한 답을 못 듣고 그랬는데 강릉 포교당은 객승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안거동안에는 절에서 3개월 동안 공부하고 3개월 만행을 하는데 그 설악산하고 월정사로 가는 스님들이 항상 안거가 아닐 때는 왔다 갔다 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님들을 만나면서 바깥세상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고 그 스님들한테 내가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질문을 했다고. 색즉시공이 뭐니까? 공즉시색이 뭐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윤회가 있습니까? 뭐 그때 반야심경 속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스님들하고 저하고 일문일답을 했지요. 그 이전부터 나는 옛날 이야기하는 거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요즘 말로하면 스토

리텔링이지? 그걸 좋아해가지고 학교에서 늘 담임선생님이 초등학교 때에도 한 선생님이 하루 종일 같이 수업하는 거 아냐. 국어, 영어, 수학 뭐 다 같이. 선생님도 지루해지는 시간되면 날 보고 나오라고 그래서 옛날 이야기하라고 늘 그랬다고. 그래서 나는 늘 옛날이야기 하기를 좋아하였고 이야기를 잘 했다고. 잘 했는데 그것도 뭐 하다보면 한계가 있지 않아? 6년 동안 했으니까. 그러다보니깐 다른 소재도 또 필요하고. 소재가 필요하니까 이제 책도 사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장도 가보게 되고 자전거타고 현장도 가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설화라든가, 민담이라든가, 옛날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채록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회의 회원이 돼가지고 반야심경 해독하려고 많은 질문을 했는데 스님들이 질문을 하면 열심히 설명해줘도 내가 못 알아듣지마는 그건 내가 못 알아듣는 다는 생각이 아니고 스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항의도 하고 늘 그랬어요. 그 강릉 포교당에 가면 자꾸 질문을 한다는 골치 아픈 학생이 있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됐어.

－ 포교당에 가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거기가 운동장이니까. 놀이터니까. 거기가 놀이터였고.

－ 선천께서 불교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불교에 관심은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가라 한 건 아니고 거기가 굉장히 넓은 시내 한복판에 한 3,000여 평 넘는 놀이터였다고.

－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신 건가요?

불교에 접하게 된 거지. 그래서 스님들한테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의문을 풀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지. 그래서 그 강릉가면 골치 아픈 학생

이 있다는 소문 날 정도였다고. 옛날에는 여행이 자유롭지 않아서 설악산을 간다, 오대산을 간다하면 일단 강릉 와서 숙박을 하고 가야 돼. 서울에서 설악산을 가는 길이 없고, 설악산에서 오대산으로 가는 길이 없다고. 일단 강릉 와서 그 다음날 아침 편을 이용해야 된다고. 버스가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렇게 되니까. 강릉 포교당은 늘 객승들이 드나드는 곳이야, 그 객승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그 때는 어린 시절에는 내가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2 킬로 반경이야. 생활공간이라고는. 그 이상 나가지 못하지. 그 안에서만 맨날 뱅글뱅글 돌면서 같은 사람 만나 같은 이야기만 하고 그게 재미가 없었다고. 새로운 이야기가 좀 필요했지. 항상 나에게는. 그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인 객승들이 나타나서 부산 금정산 얘기도 해주고, 대구 팔공산 얘기도 해주고, 서울 도봉산 얘기도 해주고 신기했지.

- 그때가 그러면 한 1950년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뭐 한 60년대 초반.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승려들과 만남과 헤어짐, 이런 게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스님이 나한테 책을 하나 던져주면서 골치 아프니까 자꾸 질문하지 말고 이거나 읽으라고, 『님의 침묵』이었다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야기가 거기 다 있더라고. 육바라밀의 정신이라든가, 팔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과법이라든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논리가 그 속에 다 있더라고. 님은 갔습니다. 그게 색즉시공이야. 님은 색이고 갔다는 이야기는 공이더라고. 그걸 풀어 보면 은 모든 현상을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 같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 시집에이 굉장히 공감을 했지. 그래서 그 시집을 열심히 읽었지. 읽어 가지고 그 시를 줄줄 외우고 다니고 그랬지. 그런데 이제 강릉 포교당에 60년대 중반 그 때에 불교계에 정화바람이 불었어. 포교당이 어수선해져가지고 객승들만 왔다 갔다 하지 주석

하시는 주지 스님이 없이 비어있을 때도 많았다고. 강릉불교 포교당 불교학생회에 내가 가자마자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 때는 부회장을 하례. 중·고등학교가 통합돼있으니까. 중학생 대표로 부회장을 했다고.

- 강릉 중학교요?

그렇지. 중학생을 대표로 해서 부회장을 하고. 중등부는 회장이 없었어요. 회장은 고등학생이 하고 부회장은 중학생이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가지고 강릉불교 학생회 제48대 회장을 했지. 왜 48대 회장인지도 몰랐어, 나중이야 1922년 강릉 포교당이 설립하여 만해 스님이 열강을 한 전통이 있더라고, 그곳에서는 스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법회를 하는데 스님이 안 오면 펑크가 나잖아. 고정된 스님이 없으니까. 그때 마침 지나가는 스님 있으면 붙잡고 얘기하는데 없으면 뭐 못하는 거지. 그러면 그걸 내가 땀땀을 해야지. 그래서 불교 책이고 이런 걸 많이 사서 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됐지. 그러다가 방학 때가 되면 오대산과 인근 사찰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지. 그러면서 불교 공부에 매진을 하면서 만해의 시 님의 침묵에 흠뻑 빠져들 었어 상당히 그 공감을 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게 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책에 첫 페이지에 그 근대 시초 1.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라는 시가 소개됐어요. 옛날 국어 교과서 첫 페이지야. 근데 12월 달 방학하면서 국어책은 받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뭐 과외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집에 갔다가 이렇게 쳐 박아 뒀다가 그거를 신학기가 되어서 갖고 나간 거야. 거기에 한용운이 있는 줄도 몰랐지.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만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많이 듣고 많이 알게 됐지. 내가 만해 얘기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보리수”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었어. 학생회가. 그 신문에 내가 한용운의 생애

에 대한 연재를 했다고. 그때 이미. 그리고 65년에 통문관에다가 편지를 내 가지고 『한용운 연구』라는 책을 사서 다 읽어봤다고. 그거를 요약 정리해가지고 소개도 하고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신문에다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용운 얘기를 나한테 들었지. 그런데 이제 국어 교과서를 펼쳐든 새 학기 첫 시간 국어시간 인데, 탁 펴니까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가 있는 거야. 그럼 모두가 다 내가 그동안 했던 얘기가 퀵리터를 인정받는 거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인물이다 하는 거를, 이제 다들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저 보삼 이한테 얘기를 듣는 게 좋다고 추천을 했어. 하니까 선생님이 그럼 나와서 한 5분만 이야기해보라고 했어. 내가 한 시간을 다 썼다고. 만해 일대기를 가지고. 선생님도 놀라고 다들 놀랐지. 그런데 ‘알 수 없어요’라는 시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시예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시예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바람이 없는데 어떻게 수직의 파문이 생겨.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그런데 그냥 교과서는 글자 해석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선생님들은. 바람이 없으면 그거는 진공인데, 진공인데 어떻게 그 수직의 파문이 생기난 말이야. 안 생기지.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은 해석을 못하니까, 불교적인, 철학적인 소양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불교에서 근본적으로 말하는 적멸의 세계야. 적정의 세계거든. 무여 공의 세계라고. 거기에서 인간은 무명에 의해서 심이 연기가 생겨서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여러 가지 인연법에 대한 이야기가 쪽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글자 해석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걸 내가 한 시간 동안 얘기하니까 선생님도 놀라고 다들 놀랐지. 그래. 그 때 내가 확신을 했어. 서울 가서 만해 이야기 나오면 나도 한 마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때 만해에 관한 책들은 내가 다 사 모았어. 통문관에 편지 보

내서 사온 책 “한용운연구” 지금 여기 있어요. 그 책 나의 애장본인데 보기만 하여도 기분이 좋아요. 그거 읽으면서 열심히 그 때 책을 봤지. 그래서 서울에 올 때 68년에 첫 상경을 하였는데 서울로 상경하면서 3가지 메모를 하여 가지고 왔어. 첫째 성북동 222번지 심우장을 찾아가 볼 것 둘째로 망우리 공동묘지에 만해 묘가 있다는 데 가볼 것. 그 다음 세 번째로 칠보사에 강석주 스님을 만날 것. 만해의 제자 강석주 스님이라. 이 분을 만나야겠다. 이 세 가지를 메모를 해가지고 왔다고. 와가지고 내가 툼툼이 찾아갔지. 그 때가 이제 첫 번째가 심우장을 찾아가 보는데 그때는 지금은 다 복개를 했어요. 그 심우장 올라가는 그 길도 골짜기야 원래. 거기가 골짜기라고. 지금은 다 시멘트로 복개를 해서 그렇지. 왼쪽으로 붙어가다가 다리를 오른쪽으로 건너고 이쪽, 저쪽으로 붙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서 심우장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지금은 다 다 복개해놓은 거요. 거기 이렇게 시멘트 복개해 놓은 데 보면 가끔 물 흘러가는 소리가 팔팔 나오지. 그게 복개 한 곳이야. 그래서 삼우장에 찾아 가보니까, 68년에 보니까 우정상 교수가 거기가 세를 살고 있더라고. 우정상이라고 동국 대학에 교수였어요. 우정상 교수가 세를 살고 있더라고.

- 그럼 한영숙 여사님은 그곳(심우장)에 사는 것이 아니었네요?

떠났지, 벌써. 혜화동으로 떠나갔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우정상 교수가 살고 있었어, 한영숙 여사를 잘 알아. 한영숙 여사는 동국대학교에 그때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교수한테 세를 준거야. 우정상 교수가 그 집에 세를 살고 있었어. 그렇다고 하면은 언젠가 이 집을 세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지. 그래, 그거를 주시했지. 주시하고 있었지. 그리고 이제 강석주 스님을 만나서 여러 얘기를 이것저것 질문을 하니까 스님은 많은 말씀은 안 하시고 그 해오 선생이라는 분을 만나보라고 일러 주어서 돈암동을 찾아갔는데, 김관호

선생이라고 그 분을 만나보라고 그 분을 또 만나서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분이 또 진주 사천 다솔사의 효당 스님을 만나라 해서 그 분을 가서 만나고 관련된 자료를 많이 듣고 보고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만해 원전 자료들을 다 봤다고. 그리고 이제 심우장을 늘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1980년에 그때는 지현이네라고 하는 사람, 우정상 교수는 나갔고 지현이네가 거기서 한 10여년 살았다고 하더라고.

- 지현?

응. 지현이야. 지현인지, 지연인지 확실치가 않다. 지현이네가 심우장에 살고 있는데 가서 얘길 해보니 사람들이 아주 순박하고 좋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저런 얘기 했더니 까 그러면 자기들이 전세금을 주면 나간대. 나가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얼마냐 하니까 350만원이라 하더라고. 보증금이. 그래서 내가 보증금을 갖다 줬지. 주니까 그분들이 금방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한 몇 달 같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거기 안에 심우장 거 사랑방 거기 하나만 썼다고. 우선은 그거 하나 쓰고 그 옆에 있는 가건물. 아래 채라고 하는 가건물, 그거를 사무실로 썼어. 아주 조그만 해. 일자로 된. 블록으로 쌓은 아주 엉성한 집이야. 그걸 사무실하고 방을 쓰고 나머지 안채는 지현이네가 썼지. 한 6개월 쓰다가 나갔지. 근데 가끔 가보니까 거기에 심우



가정집으로 쓰이던 당시 심우장의 모습

장이라는 현판이 붙어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 까만 현판 심우장으로 한 건 제주도에 조벽관 스님이라고 또 만해를 좋아하는 분이 그 분이 이제 삼일절 날 갔다가 놓은 거야.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내가 갔을 때는.

－ 대문에 있는 현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만해기념관 또 심우장 그걸 다 다시 만들게 됐지. 지금 그거 “심우장”이라고 하는 현판은 나중에 성북구청에서 만든 것이고 그 이전에 액자로 된 심우장 현판이 있어 그걸 성북구청 학예사보고 찾으라고 했는데 못 찾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 때 두지 말아야 되는데, 관리를 관에서 원판을 보관 안한 것 같아 다 없애 버린 모양이야 안타까운 일이지. 그 때 심우장이라는 현판이 원래 그 심우장 건넌방 문 위쪽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기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81년부터 그 집을 관리를 맡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때 그 심우장 현판을 그 현판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생각하다가 그때 마침 성북동에 사시면서 만해를 잘 이해하는 그 어른이, 줌, 금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 맞아 유치웅 선생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 일창 유치웅 선생한테 가 가지고 얘기 했더니까, 얘기하면서 뭐라 했느냐 이거는 선대 우당 유창환 선생님과 만해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고, 심우장에서 우당 선생님의 유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써주었던 글이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심우장에 그렇게 해서 그런 저런 사연을 얘기하였더니 굉장히 반갑게 해주면서 흔쾌히 그 심우장이라는 지금 걸려있는 그거. 그걸 써주시더라고. 그걸 액자로 해서 이렇게 걸었다가 현판이 된 거야.

- 네네. 옛날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액자로 걸었는데 그 액자가 없어져버렸어. 그거 성북구청에서 이제 그게 비 맞는다고 내가 심우장 나오고 난 다음에 나무에다 각을 하여 걸고, 그걸 어디다 뒀을 텐데 없다는 거라.

- 어디 찾으면 있을 텐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돈을 그때 많이 들었는데, 표구에다가 액자에 그 당시에 한 15만원 들여 가지고 했거든.

- 그 분이 대가이시잖아요.

대가라기보다는 하여튼 특별한 관계가 있고 그 아버지 우당 유창환 선생이 아주 유명한 서예가였어. 오세창 선생하고 같이 다 만해를 좋아했고 그 선생님 작품들 수장고에 다 있어. 우당 선생뿐만 아니라 일창 선생님에 대한 작품도. 그 얘기를 하니까 흔쾌히 써줘서 그걸 갖다가 달았다고. 그래서 성북동 심우장을 내가 관리를 하게 됐지. 이게 관리 아닌 관리야.

- 그러면 그 현판은 이제 정확히 1980년도에 단 것인가요?

그렇지. 81년쯤 될 거야. 그 해 달았다고. 내가. 그리고 만해기념관하고 심우장 두 현판을 함께 달았지. 만해 기념관은 이리로 가져왔고 그거는 거기다 놔뒀지. 심우장이니까.

- 만해 기념관은 이렇게 전체를 다 유물을 다 넣어놓으셨습니까?

유품이란 원래 하나도 없고 누가 준 게 하나도 없고, 한영숙 여사도 하나도 없고, 다 내가 모은 거야. 전부 100%. 누가 나한테 준 거 하나도 없어.

- 지금 그렇게 지금 가면 유리장 안에 있는 것도 선생님이 남기고 가신 것이겠네요.

그것도 내가 조금 해놓고 남겨놓고 온 거야. 사람들이 더러 찾아온다고 하니깐 그것도 처음에는 다 가져 왔다가 성북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연말에 뭐 자투리 돈 250만원이 남았대요. 장 이런 걸 해 놓을 테니까 자료를 좀 달라 그러더라고. 그거 해 놔라, 해 놓으면 내가 줄게. 그래서 그거 해 놓은 거야. 나오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했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고생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하면서 심우장 뜰의 나무도 지인의 도움으로 심은 게 많고, 그리고 마당이 꽤 넓었어. 마당이 한 100여 평 돼.

- 지금보다 훨씬 넓었네요.

넓었지. 현재의 주택이 없었으니까. 아래채는 담 옆으로 조그마하게 일자로 붙어있으니까 마당이 넓어서 한 거의 100여 평 됐어. 마당이. 거기서 행사하기 참 좋았다고. 시 낭송회도 하고 많은 걸 했지. 제향도 지내고 매년 행사도 많이 했고 주로 한용운에 관한 책들을 많이 발행했다고. 내가 내셔널트러스트에서 PPT로 그때 그걸 내가 한 번 쪽 설명해준 적이 있어. 심우장. 그러면서 그게 관리를 해보니까 하기 어려워 이게 어렵더라고. 돈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근데 뭐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하다가 거기서 나는 주로 뭘 했냐, 한용운 관련 자료정리하고 탐방객들을 안내하였지, 심우장에 오기 전 1879년에 청진동에 만해사상연구회를 발족하여 “한용운사상연구”라는 책을 만들어냈다고. 한용운 전집의 수정 증보판을 다시 발행하는 일을 도우면서 총판을 하였지 그리고 거기서 만해 한용운 관련 책들을 거기서 만들면서 그 책 판매를 해가지고 그걸로 운영을 했는데 운영비 절대적으로 모자랐지.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창호도 새로 발라야 되고 뭐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 한 달에 그 때 한 몇 십만 원씩은 결손을 봤어. 결손을 보지 않고 또 어떻게 하

졌어. 그런데 뭐 만해가 나라 찾겠다고, 당신은 독립하겠다고 목숨도 걸고 했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러면서 그 때 일 많이 했어. 그 때 망우리 비석과 상석도 세웠어. 망우리 비석을 이제 세워야 하는데 정부에서 국가 보훈처에서 7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7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고, 관계자들과 전부 설계하고 계획을 해보니까 재료비만 한 200만원 들어가더라고. 여초 선생이, 여초 김응현 선생이 누군지 알아?

- 네. 그 동방대학원대학교(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의

그렇지. 여초 선생은 당대의 최고의 서예가야 그리고 만해를 무척 존경하는 인물이야 그때 써준 작품이 여기 원본이 여기 있지만은 거기 한 2,000만원 이상 줘야 되는 글이야. 550자 만해 생애를 비움기로 썼거든. 그런 글씨 쓰는 비용 다 빼고 비석하고 재료비하고 노동력하고 뭐 그런 것만 해도 돈이 그렇게 들더라고. 국가보훈처 가서 내가 못하겠다고 그랬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국가보훈처가 다 뭐 했다고 할 것인데. 예산을 50%는 줘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럼 30만원 더 주면 되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지. 그래서 30만원을 더 받아가지고 100만원 하고. 한영숙씨가 유족으로 그래서 50만원 보태라고 그랬지. 그리고 내가 50만원 보태고. 그래가지고 망우리의 만해 묘소에 비석과 상석을 세운 거야. 그리고 또 비석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아. 여러 가지가. 그건 다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세우고 책자 내고 매년 기일 되면 제사 올리고 뭐 또 거기서 시 낭송회 뭐 간단한 워크숍, 세미나 이런 걸 계속 했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심우장에 사람이 안 와. 첫째로. 교통도 나쁘고. 외지고 해서 방문객이 안 오고, 또 자동차가 못 들어오니깐 왔다가도 올라오지도

못하고 가고, 또 연탄 한 장이 그 때 100원인데 운반비가 50원을 더 보태어야 해. 밑에서 끌어올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많았다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나 혼자 풀어가는 길을 어려워 그래서 그거를 내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많아 그 해결 방법으로는 그 집을 문화재에 등록하면 되겠다 싶더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집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보장해 주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니까 등록 신청자와 심우장과의 관계를 소명하고 문화재 등록의 당위성을 소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래 그 때 만든 서류의 사본이 어디 있을 텐데 지금은 보이지 않아 내가 내손으로 만든 문화재 등록 서류 일체를 만들어서 서울시에다 갖다 내니까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왜 안 해주냐 하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야. 개인이 살던 집을 가지고 문화재 요청하는 것이 예가 없다는 거야. 예가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지 없다고 할 거 뭐 있냐 해달라고 자꾸 가서 해달라고 했지. 그래서 나중에 시청 직원 한분이 시청이 무슨 권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한다하는 걸 그때 알려주더라고. 그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니까 교수들인데, 건축을 고건축을 전공하는 교수들이야. 그 사람들은 심우장을 건축으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라. 한 곳도 없고.

건축으로 말하면 그 집은 1933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만해가 11년 살았거든, 심우장에서 이제 거기에서 1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많지. 여러 가지가. 그건 내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려고 그래, 그때 당시에만 해도 거기가 판자 집 수준이야. 한옥 중에서 제일 허술한 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서울시하고 논쟁을 벌였어. 그리고 문화재 위원들 찾아가고 막 협박도 하고 그랬어. 그 사람들한테.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 될 텐데. 되면 내가 당신네들 전부 역사의 이름으로 기록해놓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설득을 했어. 그래가지고 한 3년 걸리니까 되더라. 그래서 그게

85년 8월 달인가 결정이 됐어요. 심우장이 서울시 사적지 제 7호로 결정이 됐다고. 그래, 고생이 참 많았는데, 이 자료를 전시할 수도 없고 거기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거기다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가져갔다가 한 달 뒤에 갖다 뵈다가 가져오기도 하고. 내가 성북동에 살았을 때 내가 심우장 때문에 성북동에 산거야. 한 10년 살았다고 성북동에. 그 새언덕이라는 거기에서 내가 어느 집에 세를 살았어.

- 그럼 거기 사시면서 이렇게 계속 관리하신거세요?

거 왔다 갔다 했지. 낮에는 주로 심우장 가있고, 저녁에는 한양고업고등학교 당시 야간 교사로 있었어. 선생을 했다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거 했다고. 낮에는 내 일을 해야 해. 내 일이라는 게 심우장 관리 하는 게 내 일이야. 그리고 먹고 살아야지 저녁에는 이제 교사로 변신해서 저녁에는 학교에 가서 내가 선생 노릇을 해서, 선생 월급으로 그때 공업고등학교 선생은 월급을 많이 줬어. 그때는 교수 월급 거의 비슷하게 줬어. 기술인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 대통령 때 대우를 잘 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정식으로 근무하였어. 주간이든 야간이든 신분 똑같고 월급도 똑같이 주는데 내가 뭐 낮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해야 되니까 심우장 지키는 게 내 일이고, 밤에는 선생으로 변신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했지. 그런데 그게 돈이 자꾸 들어가고 하기 어려워. 그리고 그 아랫집에 김종건이라는 보성고등학교 한문 선생이 살았는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늘 그랬어. 이 집을 사라고. 당신 집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확 터서 그걸 어떻게 해보라고 자꾸 그걸 권유 했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김종건 선생님 참 좋은 분이었어. 보성고등학교 한문선생님이었고 강원도 양양분이야. 만해도 잘 이해하고. 날 보고 자꾸 그 집을 사라, 사서 여기 전체를 다 해보라고. 근데 심우장도 소유가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또 그건 한영숙씨가 있으니까 어렵지. 그래서 못 하고 있었는데 한영숙씨 네가 이제 화재를 만나가지고 집이 없어지니까 혜화동 살다가 심우장 마당에 집을 짓는다는 거야. 지금 험다고 하는 집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조율을 한 거야. 2층집을 처음에 설계를 해놨는데 2층집으로 하지 않고 정면을 받은 터주는 걸로. 처음은 정면을 다 막아서 거기다 크게 2층 집을 다 지으려고 했어. 그러면 심우장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야. 문화재인데도 그게 가능해 진거야. 그래서 성북구청에 가서 싸웠지. 나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건축허가가 될 수 있냐고. 근데 뭐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인연이 다 됐다. 여기에 사람도 오지 않고 돈만 들어가고 인연이 다 됐다 해서 그냥 집을 짓게 되니까 나왔지.

그래, 나와 가지고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이런 문화 활동은 사람 있는 곳에 가서 해야지 사람 없으면 안 되더라고. 그 때 절실히 느낀 거야. 그래서 그 때 두 군데가 떠올랐어. 장흥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야. 북쪽 그때 교외선 열차가 있었다고. 그 교외선 열차를 타고 많이 가, 놀러. 거기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토탈미술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립미술관이 아주 잘 해놨었어.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더라고. 그 집 옆에 어디 붙으면 되겠다 싶더라고. 근데 뭐 가보니까 땅값도 비싸고 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그럼 남쪽에 어디가 없을까하고 내가 여기 성남에 친구대학 교수로 왔으니까 남쪽에 생활 근거지로 찾아서 개포동에 아파트가 있었고 아파트가 있는데 성북동에 살다가 개포동으로 다시 왔다고. 개포동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 아침에는 성북동가서 일보고 4시에 다시 학교 가고, 학교는 한양고등학교 동대문 옆에 거기서 교사 노릇 하고 저녁에 수업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고. 그래서 남쪽으로 생각해보니까 남한산성이 떠올랐어. 그래서 여기 남한산성에 내가 1990년에 이리로 들어왔지. 그래서 10년 동안 거기에 성북동 심우장

과 인연을 갖고 관리를 했지. 68년부터 내가 심우장을 가끔 가면서 봤고. 심우장 가는 이야기 이외에 여러 가지 일화도 많고 그래. 옷도 양복을 최초로 한 번 해 입고 심우장에 한번 간다고 가다가 그 쪽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옷 다 버리고 옷도 다 찢어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 사연이 많지. 그 집을 놓고서. 옛날에는 저기에 동소문 동에서 부터 걸어갔어. 아니면 혜화동에서 걸어 다니고.

- 그러면 68년 당시에는 한영숙 선생님이 안 살았다고 하셨는데 혜화동으로 나가서 사하다가 거기는 심우장은 세를 줬던 겁니까? 한영숙 여사가?

그렇지.

- 아 그러면 혜화동에 불이 나고 다시 집을 짓고 들어오신 거고?

그렇지.



오른쪽에 새로운 집이 지어진 후의 심우장 모습

- 그럼 그 집이 지어진 건 오래된 건 아니네요?

아니지, 그렇지.

- 거기서 사시다가 나중에 구청으로 넘기고 가신 게 되겠네요.

아, 그래서 내가 그 구청하고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집짓는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한영숙씨하고 내가 고민하였어, 한영숙 씨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러던 참인데 마침 어느 스님 한분이 나타나서 한영숙 여사 상대로 그걸 문제 삼았어. 구청 가서 싸우고, 나중에 내가 중재안으로 중재를 했어. 그래서 그게 중재안이야, 그게 정면에 2층 집은 안 된다. 2층을 하면 집을 내려다 봐야 되니까 문제가 된다. 정면 반을 띄워준다 그래서 반만 가지고 집을 짓는다. 중재안으로 한영숙씨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서 그 집을 지은거야. 그리고 난 이제 떠나기로 마음먹었지. 이리 한 거지. 그때 성북동에 그, 간송미술관의 실장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지. 성북동 지킴이 하자고 들어서. 성북동을 지키자고.

- 간송 미술관에서요?

그렇지. 최 실장이 훌륭한 분이야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고 들어서 뭐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서 저녁에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서로 그랬어. 그 성북동 떠나지 말라고 말리는 유일 분이었어. 그러나 구청 뭐 이런 데서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심우장 나오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이 한영숙씨네도 살기가 좀 불편해. 그래서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이 집을 서울시가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했지. 그때 진영호 구청장이라는 분이 있었어. 그 사람이 민선도 하고 관선도 했어. 진영호 구청장이 시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시 낭송을 좋아했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인데 그 진영호 구청장이 와가지고 만해를 이해하는 구청장이 왔어. 내가 거기서 시낭

송회도 하고 구청장보고 이 집을 성북구에서 매입을 해서 보존해야 하지 않느냐? 내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 그래서 그게 이뤄 진거야. 그래서 한영숙씨네 한테 보상을 상당히 해주고 그 집을 서울시 예산과 구청 예산해서 매입을 하고 그걸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된 거야.

- 그러면 선생님이 계실 때 다레 재나 그런 것도 지내셨습니까.

당연하지. 3.1절 행사도 했고, 다레제도 했고 또 뭐 강좌도 뭐 청소년들 조그마한 강좌도 하고.

- 당시 다레는 주관이 어떻게 됐나요?

그때 내가 청진동에 있을 때 만해사상연구회에서 출판을 하면서 만해사상연구회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다가 심우장으로 들어오게 되니, 만해기념관과 심우장 공동 명의로 다레 제를 올렸지 그 때마다 칠보사 강석주 스님이 집전을 맡아 주셨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져.

- 스님들과 같이 하신 건지?

그럼. 다 왔어. 스님들이 오셔서 집전은 다 스님들께서 다 했어. 삼청동에 칠보사 스님이 와서 다 했지. 강석주 스님이 와서 다 했어.

- 강석주 스님이 직접 하셨구나.

그럼. 그 때 사진자료 뭐 이런 거 다 있어, 지금도. 그래도 심우장이 있는 동안에 강석주 스님이 그래도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랬어. 그 대신 나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칠보사 가서 학생을 지도를 해줬고, 학생들 지도를 전부 맡아가지고 법사, 그걸 법사라고 해. 학생회 법사로. 그거를 현직교사로

있으면서 법사로 있으면서 그거를 해주니 스님들이 심우장 행사할 때는 많이들 참석하였어.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이 집 지을 때도 개토재 부터 중간 상량식, 준공하고 개관식 할 때까지 강석주 스님이 다 직접 해줬지. 스님이 참으로 고마운 어른이야 나중에 “만해와 석주스님”이란 특별전과 책자도 내 드렸어. 그것이 석주스님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였어.

- 그럼 이것은 90년에 완공이 된 것인가요?

응. 90년에 완공이 아니라 90년에 이리로 들어와 가지고 그 때 뭐 이 집을 지을 생각을 못 했지. 우선 집 하나를 얻어 세를 얻었지. 5000만원 주고 세를 얻어놓고 집만 싹 갖다 옮겨놓고 개포동에 살고 있다가. 이제 여기 땅을 매입하고 해서 1997년에 완성을 했어. 만해기념관을 완성을 했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어, 벌써.

- 제가 들은 기억 중에 하나가 이건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국대 김광식 선생이 했던 얘기 중에 얼핏 들은 거라 식사 중에. 그 한영숙 여사가 힘들어서 심우장을 팔았다가 다시 되찾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얘기를 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꼭 힘들어서가 아니야. 그게 잘못된 얘기지.

- 제가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어서...

그 집을 지을 때 만해가 지을 당시에 돈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때 심우장이 근저당이 돼있었다고. 그 저당을 했는데 그게 돈이 계속 물려 있었지. 있다가 뭐 그 집이 넘어갔다고 경매에. 경매에 넘어간 심우장을 다시 되찾아 놓은 거지. 두 번이나 그랬어.

- 한 번은 동국대 총장인가 했던 누가 도와주셨다고 그러고.

응. 김법린 총장이 도와줬어. 심우장은 이제 두 번이나 살기 어려워져가
지고 경매에 넘어갔다고. 그 두 번 다. 언론에서도 좀 도와줬고, 그래서 그걸 샀
다가 그 사람들이 이 뭇도 모르고 경매로 맡았다가 뜨거운 감자란 걸 알고서
내놨지. 그래서 다시 돈을 그때 성금을 모아서 해결해주고 그랬어.

- 그리고 이걸 최근에 저희가 폐쇄지적도를 떼 봤다 그랬잖아요. 저희도 이걸 진짜 몰
라서 하는데 그 저희가 책이나 이런걸 보면 벽산스님이 땅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폐쇄
지적도 보니까 그 김동명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을 동자에 밝을 명자를 쓴 사람
인데 지금 만해 동상에서 그 밑에까지 해서 그쪽 땅을 다 김동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유숙원 여사한테 넘어갔다가 소유권이 김동명, 유숙원 그 다음 한용운 이렇게
세 분한테 차근차근 이어지는데 혹시 김동명이라는 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는지? 벽산
스님이란 같은 분인지?

같은 분이야.

- 같은 분이세요? 김동명이라는 분이?

그건 속명이야.

- 아 속명이 김동명? 찾아도 잘 안 나오기에. 아~ 그럼 그쪽 땅을 다 많이 가지고 계신
거세요?

그거 토굴을 지으려고 스님이 가지고 있던 땅이었어. 그 자꾸 조선일보
는 왜곡하는데 뭐 조선일보 방응모가 다 해준 것처럼 자꾸 하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야.

- 그럼 반응모는 어느 정도?

그냥 후원을 해줬지. 후원.

- 저희가 토지대장을 떼니까 딱 나오기에 그 같은 분이면 그냥 그것을 증거로 들이대면 되겠네요.

원래 이제 그 땅이 그 벽산스님이 그 현재 땅을 그대로 다 들인 건 아니고 고 반 정도 밖에 안 돼. 조그마하게. 뭐 그 때 뭐 그 토굴 하나 지을 생각이지 집을 제대로 뭐 크게 지으려고 생각 했던 건 아니야. 그래서 집도 뭐 십 수 평도 안 되게 그렇게 지었잖아. 그래서 한 50평 가지면 되는 거라. 그렇게 했어. 해놓고 보니 너무 작고 그래서 주변 땅을 또 52몇 평을 더 사 들 인거야. 그래서 그 걸 더 늘렸지 그래서 백열네 평인가 백 몇 평인가 된 거야.

근데 무슨 돈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전부 여러 지인들이 십시일반 도와 준거야. 근데 땅을 땅이 하나의 근거가 된 거야. 땅이 근거가 되고 십시일반해서 모아서 하였어. 그리고 뭐 고려대학교가 관심이 많은 게 조지훈 선생 때문이야. 조지훈은 만해 제자야. 응? 조지훈 선생의 아버지가 만해와 아주 가까이 지냈다고. 그리고 집이 혜화동에 살아서 응?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지훈 선생의 아버지는 세계적인 인삼 학자였지.

- 아~ 인삼.

북한으로 갔지.

- 네. 그러면 만해선생께서 심우장에 계실 때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뭐 방, 어떤 모습이든 뭐 그런 것 좀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방, 집 구조는 지금하고 같죠?

같지. 같지

- 지금 사랑방에서.

그렇지. 사랑방이지. 그럼.

- 그럼 장서는 어느, 얼마나 있고?

한 100여권 정도. 불경. 중국 불경하고 지인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지. 거기에 여러 가지 현판과 편액이 그리고 서예작품이 걸려 있었어. 제자들이라든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다 준거야. 거기 권동진 선생, 위창 오세창 선생, 석정 안중원선생 이런 분들의 작품이 있었다고 해오 선생이 회고하였지. 심우장이라는 원래 현판은 오세창 선생이 써다 준거고.

- 그게 지금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몇 사람들이 한 네 사람 정도가 작품을 갖다 줘서 벽에다 걸어놨었지. 벽에 걸어놨던 작품들이 뭐 뭐가 있었는지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심우장 그대로 특별전을 하려고 그랬지.

- 구청에서도 이제 지금 구청장도 좀 관심이 많고 해서 아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구청도 말이 그렇지 학예사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 왔거든요. 그니까 학예사가 될 해 불라고. 될 찾아도 그게 안보이나 봅니다. 자료 관리를 구청에서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도 않았고. 줘도 다 없애버렸는데 뭐.

- 할라 그랬는데….

주어도 없애버렸는데 뭐. 내가 준 것도 몇 개 되는데 그것도 다 관리 안 하고. 전임자가 가면서 다 없애고 가고. 내가 지난번에 학예사가 왔기 때문에

찾아보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

- 선생님, 이걸 약간 외람된 질문인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심우장을 지을 때 보면 북향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쪽이 북쪽을 바라보는 면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혹시 총독부 보기 싫어서 북향을 했다 그런 얘기를 진짜 하신 적이 있는지?

아유, 그럼. 그건 해오 선생이 이제 그 집을 지을 때 실무를 심부름 했던 분이야. 그 어른의 얘가지. 만해한테 내가 직접 들은 건 없고 해오 선생이 그리고 석주 스님도 그 얘기를 했고.

- 그리고 여러 일화 중에 겨울에도 불을 때지 않으셨다 이렇게 그런 일화가 있는데 진짜인지.

그치 맞지 그렇지. 다 조선이 냉방인데 무슨 불을 때워. 그리고 뭐 거기 이제 그 청년들이 찾아와서 그 인생의 무상함, 또 그 다음에 실의에 빠지고 연애하다가 뭐 잘못 되서 오고 꽤 많이 찾아왔는데 그럴 적마다 다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잠도 재워 보내고 어? 그리고 다 우주 순환의 질서라는 것을 다 순환하는 법이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늘 격려해주면서 그 춘원 이광수나 육당 최남선은 들어오지 못하게 호령을 해서 내보내고 쫓아내고 그랬던 집이지.

- 저희가 전해들은 일화들이 다 사실인거죠?

그렇지. 그렇지

- 해오 스님.

응. 그분도 성격이 아주 괴팍한 분이야. 스님이 아니지. 선생이지 그냥.

만해를 그 좋아했던 분이지.

- 그럼 혹시 춘성 스님에 대해서는 만나보신 적이?

그렇지. 춘성 스님은 잘 알지.

- 그럼 제자들에게 들었던 많이 석주스님한테도 듣고 하셨던데. 만해 선생님이, 저희는 책으로만 접하니까 실제로 어떤 성격이셨는지?

아주 그냥 칼날 같은 분이지. 고난의 칼날에 서라 하는 얘기가 있잖아 만해가 쓴 칼럼 중에 응? 성공과 실패 두 갈래 길에서 어느 길을 갈까하면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만해는 그길 불가하다고 그랬다고. 그 길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봐라. 실패한다 하더라도 옳다면 그 길로 가라. 정의를 위해 싸우고 고난의 칼날을 밟는다면 넌 그 존재의 통쾌함을 느낄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의 실패보다도 옳고 그름 것을 먼저 분별할 줄 아는 정의론을 주장 하였지. 그거에 반하면 추호도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응?

- 제자들이 이렇게 약간 어려워하는 선생님이셨겠네요?

아니지. 엉뚱한 짓 하는 놈은 어려운거고 엉뚱한 짓 하지 않는 사람은 어렵지 않지. 따뜻하지 오히려. 응?

- 좀 인상이 약간 다혈질이라 그런 선입관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거기에는 이미 연세가 많아서 50대 후반이야. 1933년 이면 응? 50대 후반에 거기를 가셨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격동의 시대를 많이 거쳐 가면서 그랬는데 비분강개했던 건 자꾸 이제 전쟁 말기가 되다보니까 모든 게 변절하고 하니까 그런 놈들 오지 못하게 했고. 춘원은 처음엔 거기 드나들었

어, 심우장을 춘원이 만해한테 여러 가지 물어도 보고 했던 것이 있어. 기록이.

— 춘원은 그래도 드나들게 해줬네요.

아니 초창기에. 근데 황민화 정책을 쓰던 그때는 국방복 해 입고, 향산광량(香山光郎, 가야마 미쓰로)이란 이름을 쓰니까 못 오게 했지. 선학원의 적음 스님하고 제일 가까웠어. 춘원하고. 다 동갑내기고 가까웠어. 적음 스님을 불러다 아주 혼을 냈지. 의절하지 않으면 여기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적음스님이 춘원의 집을 찾아가 가지고 정말인가 하고 가서 확인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 국방복 해 입고. 허영숙은 일본 옷 입고. 아침에 동쪽을 향해 절하고. 직접 가서 봤다고. 그리고 거기서 따귀를 때리고 이제 난 너랑 친구 안한다고 하고 왔다는 거지. 만해한테 그 얘기를 전했어. 그래서 적음은 들어오라고 허락하였어. 정이가 없고 지 혼자 잘 먹고 잘살려는 부도덕한 사람에게는 만해는 추상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거야.



현재 심우장의 모습

- 아까 젊은 사람들 오면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렇지. 어느 한 면만을 보면 안 돼. 만해가 일본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그거 잘 알아야해.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흔히 만해하면 일본에 무슨 뭐 강력한 저항주의자. 만해를 자꾸 저항주의자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표현이야. 저항이 아니야. 뭐에 대한 거냐면 군국주의, 침략주의에 대해서 만해가 질타하는 거지 그거 아닌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만해가 오히려 기도한 사람이야. 일본이 평화, 일본의 평화란 건, 조선의 평화이고 조선의 평화란 건 중국의 평화라고. 아시아의 평화라고. 그런데 그게 깨지면서 다 혼돈의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일본의 길, 조선은 조선의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했지. 공존, 공영이야.

-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봐야겠네요.

그렇지. 그렇게 한 거지. 무슨 그 일본을 향해서 말이야. 배타적이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 저희도 만해 선생님 글을 잘은 모르지만 같이 보면서 만해 선생님이 평화를 얘기하신 게 되게 당시에 다른 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있겠구나. 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평화를 얘기하셔가지고.

평화뿐만 아니고 그 자유, 평등 이런 사상이, 이런 사상이 진리의 본체론적 세계를 봤던 사람하고, 지식으로만 알았던 사람들하고의 차이야, 만해는 진리의 본체론적 그 근본을 알았던 분이고 다른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안거야. 춘원이고 육당이고 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헐박과 굴복에 다 넘어가는 거고. 만해가 안 넘어갔던 건 다 그런 세계를 다 봤기 때문에.

- 제가 또 하나 여쭙보고 싶은 건 30년, 이제 33년에 이제 오셔서 44년에 돌아가실 때 입적하실 때까지 심우장이라는 공간하고 그 당시에 만해 선생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공간하고 만해라는 분이 당시 식민지 조선이죠. 식민지 조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민족의 자존을 지키려고 몸부림 쳤지만, 일제의 삼십육 년 동안 우리 땅이 하나도 없잖아. 우리 강토가 다 없어지고 왜놈들 밭아래 짓밟혔는데 성북동의 백 열세평의 땅은 말이야. 민족의 자존을 지켰던 조선의 땅이었어. 그래서 거기가 성지란 말이야. 조선의 마지막 혼을 지켰던 마지막 땅이야.

- 아~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해선생님이 사실은 만해선생님 하면 작품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면 3.1운동 19년 당시 옥살이 했던 거 그 부분하고 작품으로는 이제 님의 침묵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심우장 시절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거기 사셨다는 것만 알지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셨고 거기가 왜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때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고민들이 많아서 비슷한 얘기가 있지만 선생님의 말처럼 조선의 땅이라고는 얘기까지는 못하지만 좋은 말씀이어서 제가 나중에 가끔 써먹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다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의 혼을 지킨, 영원한 한국 혼이 깃든 땅이지. 그러니까 일제도 말이지 만해를 어찌지 못 한 거야.

- 그리고 또 심우장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심우라는 것은 그 마음자리 찾는 그.

- 그것이 심우도에서 제일 첫 번째 문인데 굳이 만해 선생께서 그 처음 첫 번째 나오는 그것을 택했을까. 전체를 심우도 라고도 하니까.

심우도 라고도 하지만은 처음 마음이 진짜야.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 이야. 처음 딱 마음먹은 것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야. 돌고 돌아서 다시 오는 거야. 심우가 심우도라는 것은 열 가지의 도상을 그려놓은 거고 그중에 첫 번째가 심우잖아. 심우라는 것은 마음을 냈다고 하는 것. 마음을 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근원에 가있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은 마음조차를 낼 수가 없어. 응?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열 가지의 마지막 귀가본래라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도 돌아와 보니 그 자리더라고 하는 거야. 응? 돌아와 보니까 그 자리 본래자리란 말이야 다시. 그거는 이제 그 화엄경에서 그러한 구조들이 많이 나오지. 돌아와 보니까 부처가 내 위에서 막 만행을 하고 막 이쪽저쪽을 보고 막 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있는 거라. 마음이 분주하게 돌아다닌 거야. 원래 그 자리야. 구래부동불래불거(舊來不動不來不去 : 예부터 변함없고,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라는 말도 하는 거야. 원래.

- 그럼 관장님께서 그럼 그 박사논문에 보시면 님을 비로자나법신이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봤네?

- 예. 봤는데, 그건 저희가 처음들은 말씀이라서 독특하다, 독창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창적이지~ 만해를 문학으로 한 사람들은 현상론적 세계를 논한 거지 사실은. 저 잎이 무성했던 한여름의 나무를 표현 한 거야. 나무 잎 그 가을이오면 다 떨어져버리잖아. 그리고 다음이 오면 또 잎이 피고. 근본적인, 근원적인 자리로 돌아가서의 만해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본 사람은 없다고. 님의 침묵의

님이 뭘까. 백 번 님을 따져 봐도 님은 없어 그 속에. 내가 저번에 KBS에서도 그 말 짚막하게 5분 동안 얘기해줬지. 님, 님이라는 거를 알고 싶는데 님을 찾아 봐, 님은 없어. 어디에 님이 있는 줄 알아? 침묵의 의미 속에 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님의 침묵이야. 그 침묵의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온 단어가 님이야. 침묵을 알아야 해.

- 님만 보고는 안 되는 거네요.

안 되지! 그건 현상적인 얘기고 본체론적인 얘기는 침묵의 의미를 아는 거야. 침묵. 그게 열반의 세계요 적정의 세계요 비로자나법신의 세계야.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 그러면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국어시간에도 그런 설명은 또 안 나와서.

침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그거를 어, 설명을 제대로 해야 만해를 알 수 있는데 현상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나열, 사건의 나열, 고개 끝이잖아. 근데 철학적인, 그 만해는 철학가야 철학가. 그 요즘 인문학이 인기가 많은데 인문학의 세 사람의 고수를 찾으면 문·사·철이잖아. 당신들은 다 역사 했다면서. 역사에서 우리 인문학의 최고수가 누구야? 근·현대를 통틀어서. 이 사람들 생각 안 해봤어? 역사했다면서.

- 저는 딱히 그렇게 최고 고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난감합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역사의 최고수가 누구야?

- 저는 신채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가 우리 역사의 고대사 부분을

최초로 정리 한 거야. 그 책이 나오기 이전에 중국 북경대학에서 천고라는 잡지에 연재가 됐어. 북경대학에서 그걸 지금 싹 감춰놓고 안 내놓고 있어. 일급 비밀 문서야. 고대사 얘기를 다 거기다 북경대학에서 그걸 인정했거든, 그래서 실리게 해줬지. 누군가가 인정했기 때문에 실렸지 그럼 어떻게 단재가 북경대학에 어떻게 실려. 실렸단 말이야. 고대사 얘기를 딱 해놓은 거야 거기서. 동북 공정하고 정반대되는 얘기를 다 해놓은 거야. 단재 신채호가 최고의 고수란 말이야. 문학은? 문사철에서.

- 문학은 누가 있을까요... 문학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들 인문학을 했다면서.

- 문학은 잘 모르겠는데, 요새 같으면 김소월이 아닐까요?

아유~ 소월 가지고는 약하지~

- 만해가, 깊이 면에서는 만해가 훨씬...

누구나 하면은 벽초 홍명희야. 임꺽정을 조선일보에 연재할 때 벽초의 인기는 대단했다고. 그 당시 폭발적이었어. 어느 스님은, 금강산에 있는 스님은 그 신문에 조선일보에 연재하는 그걸 보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와서 연재가 끝날 때 까지 마을에서 살았어. 신문을 빨리 보기 위해서. 그만큼 인기가 있었는데 육천 부를 찍었는데 육천 부를 더 찍게 되었다고 나중에. 벽초 홍명희의 그 한학과 그 지식은 말이야 뛰어난 사람이었어. 조선의 천재 아니야? 천재. 벽초 홍명희의 그 응? 임꺽정이 문학사적으로 제일 큰 반향을 일으킨 거야. 그럼 철학은 더 깜깜이지.

- 철학은 한응운 선생님.

맞다고. 만해는 철학이야. 만해는 동서비교 철학을 했다고. 칸트, 루소, 베이컨, 데카르트를 만해가 이야기 하였다고. 그리고 칸트를 비판했잖아 만해가. 그런 거는 전혀 들어도 보도 못한 얘기지. 칸트는 중세 봉건주의 사회에서 봉건 영주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 그 밑에 사람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전부다 뭐야, 노예잖아 노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인간은 누구에게 다 자유가 있다고 했다고. 혁명적인 얘기야. 어? 혁명적인 얘기라고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것을 칸트가 얘기한 거야.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근데 만해는 딱 그걸 보고, 칸트를 보고 만해가 비판했잖아. 왜 개인의 자유만 얘기하느냐. 고 반문하였지. 그건 참 좋은데 왜 그것만 얘기하느냐. 집단의 자유도 있어야지. 국가의 자유도 있어야지. 우리는 지금 국가가 자유를 잃어버려서 지금 다 이 모양이 됐는데 집단의 자유, 공업의 자유에 대해서 칸트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만해가 비판했지. 동서비교철학의 문을 연 분이야. 그게 불교철학을 공부를 좀 해보면 그,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역사만 해놓으면 이제 좀 그런 게 약하지.

- 불교 쪽에서 봐야 만해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렇지. 만해 학교에님은 누군가가 내가 90분 특강을 해주잖아. 그걸 들어 봐야지.

- 오려고 하는데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10월 달에 하신 거죠?

어, 했지.님은 누구인가가.님 글자 하나가 90분 강의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럼 다 이해하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적정의 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침묵의 세계. 적정이라는 말이 한자어를 만해는 침묵이라는 아주 쉬운 우리말로 써

놓은 거야. 열반적정 하잖아. 열반적정. 그 말을 만해는 그냥 쉬운 우리말로 침묵이라고 풀은 거야. 침묵이 다 그 얘기란 말이야. 말을 배우는 것은 2살이면 말을 배워. 우리 손자 보니까 2살이면 말을 하더라고. 말을 하다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알라고 하면은 사춘기정도 지나야지 알아. 말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야. 말이 화근이 돼. 화근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해져.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간하려면 사춘기 정도가 지나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할 말이 있는데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거, 그건 환갑쯤 돼야 되는 거야. 말이라고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 침묵이라는 단어가 간단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늘 즐겨 쓰는 말이 독립운동가 한용운을 찾다보면 어느 사이 예술가 한용운, 시인 한용운이 떠오른단 말이야. 시인 한용운을 찾다보면 어느 사이에 또 사라져 버리고 철학가 한용운이 떠오른다고. 철학가 한용운을 또 찾다보면 어느 사이에 또 시인 한용운이 떠오르고 왔다 갔다 한다고. 어느 것 하나에 메여 있지 않아. 그게 바로 중정의 도다. 중정. 가운데 중자 바를 정자. 중정의 도를 가르친다. 이것은 중용하고 다른 얘기야. 중용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극점이 있어요. 중용,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하고 다른 얘기야. 중용은 어딘가에 극점이 있단 말이야.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어느 한계에 주어진 안에서의 어느 극점이야. 중용은. 근데 만해는 이 한계 자체를 부정한다고. 이게 무변이고 무량인데 무슨 한계가 있어. 그거 자체를 다 부정하고 뛰어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말이야.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그거는 전부다 이념 따라 변하는 거지 고정돼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중정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지.

- 그럼 선생님께서는 책으로도 펴낼 생각을?

어, 그걸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정년을 했는데 대학교수 41년하고 정년

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아~ 지금 일이 더 생겨가지고 고민하고 있어. 경기도박물관의 관장으로 가있어서 거기 가니까 일이 많아.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죽겠어.

— 저희도 문화원에서도 이제 학생들, 초등학생들 데리고 이번에 연말에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나 한번 가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이번에 어린이들을 위하여 내가 어린이왕자 특별전 유치하였어. 5월부터 특별전시를 할 거야 그때 놀러와.

— 어린이왕자요? 어린이왕자, 참 좋은 책이죠. 그러면 올해, 올해 되신 거죠?

그렇지. 대학교수 정년 8월말에 하고. 정년하기 20일전에 그쪽에 발령을 받았다고. 일이 더 많아졌어. 이제 다 치우고 좀 앉아서 자료를 정리하고 책을 내야하고 할 게 많은데 못하고 있어.

— 선생님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여쭙 보는 게 선생님 말씀하신 말 속에 사실 답이 있긴 했는데 바르게 이렇게 만해 선생님이 정도가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한 데에 답이 있긴 한데 정리를 해서 말씀해주시면 2015년 한국사회 지금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만해가 갖는 의미가 뭐가 있는가를 얘기를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 의미가 있고 이것만 해도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하실 수 있으실 테지만.

만해는 철저하게 공공을 위해 산 사람이야.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개인의 이권이야. 기득권과 개인의 이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충돌하지.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 개인의 이권, 개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다 발버둥 치는 거야.

노조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자기 개인의, 자기 집단의, 개인의 기득권을 놓고 지금 그러는 거야. 조계사 들어가 앉아서 다 저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공업과 사업이 있는데 공업을 보고 해야지. 그런 것이 우리가 결여 돼있는 거야. 너무 물질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개인의 이권, 집단의 이권 이렇게 보는 거야.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약한 거야.

대통령도 전체를 보는 눈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약해. 그거, 교과서 가지고 왜 싸워? 싸울 일이 없어. 아니 그대로 검인정으로 해놓고 하려고 하여도 언제든지 할 수 있지. 국가가, 교육부가 그거 고치라고 할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바보 같은 짓이지. 지혜가 없는 거야. 지혜가. 지혜도 없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이야. 내가볼 땐 괜히 소비적인 에너지를 엉뚱한 데에다가 소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홍콩 가보니까 활력이 넘쳐. 너무 복잡해 활력이 넘치고 말이야. 활력이 넘쳐서 팡팡 돌아가더라고.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보니까 다 반신불수가 돼있어 보니까. 사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 역동적이어야 하는 거지. 신바람이 나야 돼. 시민들이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우리사회에 뭐 신바람이 나나 어데. 세월호 문제만 하여도 그, 저 물에 빠져서 전부 다 희생된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분통 터트릴 일인데 그거 누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다 운이 그렇게 되가지고 된 건데 그럼 그것의 사후처리를 말끔하게 잘 해야지.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집단화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그 고인이 된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명복을 빌고 열심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간일을 우리가 같이 받들어서 해야지. 그런데 뭐 집단화해가지고 다~ 저리가고 말이야 뭐 그렇게 하는 것은 현실화고 그건 에너지를 서로 깎아먹고 있는 거야. 결국은 본인도 개인도 국가도 다 손해 보는 일이야. 그런 것

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어른이 있어가지고 다 두드려 잡아가지고 마! 이제 고만해 하고 딱 끌고 갈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게 좀 안타까워. 만해와 같은 어른이 있었다면 말이야, 그거 다 할 텐 데 말이야. 그런 어른이 없어 지금은. 다 그냥 꼴뚜기 뛰니 망둥이도 뛰고 다 들고 뛰는 거야. 지금은. 다 손해야. 누구도 이익이 없어요. 국가도 손해고. 개인도 손해고.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공공성으로 보되 철저하게 좀 세계관을 갖고, 거시적인 그런 세계관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상을 생각하면서 공공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만해가 독립운동 한 거는 다 그런 거야. 일본을 미워한 게 아니야. 그래야지 질서가 생기고 동양의 평화가 오고 세계 평화가 오는 거지. 그렇게 안하면 일본도 망하고, 일본 망한다고 만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망했잖아 일본이. 근데 이놈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지금도 또 극우들이 저렇게 떠들어대는 데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깊은 철학적 사유가 우리한테 결여돼있어.

— 각자 시각을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기 성찰과 해안을 갖기 위한 노력은 안하고 말이야. 가뜩이나 지식 더욱이 스마트폰 때문에 말이야. 뭐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 속에 있는 거 그거는 누구든지 아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그 스마트폰에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스마트폰에 없는 얻은 진실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거정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안 되지 그거는.

- 그럼 앞으로 이제 만해기념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인지?

우리가 이제 19년째 했는데 만해학교. 그럼 계속 하고. 확장, 그거를 확대하려고 했어. 정년하면서 만해학교를 좀 더 확대해서 1년에 한 번했는데 한 네 번 정도 하려고 하고 좀 더 해서 교육관을 하나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좀 강좌를 더 하려고 했어. 했는데, 근데 지금 좀 뒤로 늦춰진 거야. 성북구 문화원에서 만해 강좌 같은 거 해.

- 저희도 지금 생긴, 저희 이제 향토사연구팀이라고 생긴 게 이제...

향토사 연구팀, 향토사연구소는 뭐.

-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 달라고.

- 연구소는 따로 없고요. 문화원 안에 팀으로 그냥 뒀고요.

연구팀이야? 향토사연구회, 연구소를 만들어서 소장을 따로 누구 뽑아야지.

- 아직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구청장님 만나면 얘기할게. 성북구청장이 만해기념관에 오신 날내가 없었어. 그 날은. 구청장이 여기 왔다갔어. 만나서 향토문화연구 기능을 성북구 문화원에 두라고 강조할게.

- 저희도 지역 연구소가 있으면, 여기 워낙 인물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종로하고 성북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옛 어른들이 살던 집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잖아. 거기 이사라고. 성북구청의 자문위원이야. 근데 자문위원이라고해도 회의 한번 안하더라고.

- 어제제 제가 최호진 국장 만났거든요. 같이. 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안 그래도 어제 최호진 국장이 심우장 얘기를 하면서 심우장은 지금 그, 저도 그 얘기 맞는다고 하는데 그냥 지키고 있는 거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사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 도둑이나 안 들게 지키고 있는 거지 그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저한테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는데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우장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 집을 빨리 헐 으라고 했으니까 헐고 밑에 집을 구청에서 좀 더 확대하려면 사야 돼.

- 네, 맞습니다.

밑에 집을 사가지고 다 터 가지고 그쪽에다가 연구소를 만들어주든지 하고. 내가 좀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지금 뭐 내 일이 바빠 가지고.

- 밑에 집도 비어 있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 살 수 없으니까, 김종권 선생이 이제 돌아가셨어. 아들이 그걸 맡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살 수 없으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이 그런데 살 수 있나. 그 집이 뒤뜰이 굉장히 넓어. 하천이거든? 그쪽도. 하천이어서 그 다 시유지를 그대로 깔고 앞가지고 굉장히 넓어. 그 집이 한 300평돼. 그것만 입수해서 다 헐어내고 그쪽에다가 뭐 깨끗하게 해가지고 동향으로 앉혀서 연구소 하나 만들어놓고. 그러면 좋지.

- 저희도 행사하는데 항상 비좁아서.

구청장님께서 날 뭐 오라고 몇 번 그랬는데 30년 전에 오지, 지금 와가지고 뭐, 여기다 다 해놨는데. 백담사도 해놓았지. 고향에도 해놓았지.

- 거기 백담, 흥성 거기 그 생가 앞에 기념관도?

그렇지. 기념관이라는 명칭은 못 써.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관 이야 거기는 흥성은 체험관이라는 명칭을 써. 그것도 다 내가 들어서서 한 거야.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한 거지 그거는.

- 과연 그 만해, 심우장 계실 때 찍은 사진이 있으면 저희가 촬영해갈 수 있을까요?

- 아니면 받아볼 수 있거나.

몇 컷냐?

-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한 열장정도?

열 장? 내가 심우장이야기라는 원고를 상당히 써놓은 게 있어. 쓰다가 아직 완성을 안했거든. 작년에 내셔널트러스트에서 역사 가꾸기 마을 해서 발표를 했어. 그 때 피피티로 내가 했던 말이야. 다 깜짝 놀랐지. 여기 최순우 선생 집은 다 현대잖아. 심우장을 그렇게 한 역사는 자기들 보다 30년 전에 벌써



전보삼 관장은 인터뷰를 마치고 만해 기념관을 직접 안내해 주었다.

시작했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살던 집을 가지고 문화재로 만든 첫 번째 케이스가 심우장이야. 그 얘기하고 쪽 했더니 첫 번째 발표를 하래. 했더니 참석자들이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고 전부 다 놀랐지. 그랬더니 내가 내셔널트러스트 이사를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쳐서 할 수 없이 이사 수락을 하고 지금 이번 토요일 날인가 뭐 망년회 한다고 꼭 와야 한다고.

- 어제 최호진 국장 만나서 관장님 만나 뵈러 간다고 했더니, 자기도 가고 싶은데 다른 일정이 또 잡혀서, 어제 갑작스럽게 만나서 얘기한 거라서.

여기 내셔널트러스트 여기 남한산성 와서 한 바퀴 돌았지 나랑.

- 그래서 관장님이 또 다 해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지. 놀랐지 그것도. 여기 남한산성 세계유산도 내가 들어와서 만든 거야. 내가 초대 기획단장을 했다고. 천사백오십역을 끌어냈다고. 경기도지사를 설득해서. 그래서 다 복원한 거야. 이거 다 개인 땅을 다 사들인 거야. 삼만 육천 평을 사들인 거야. 사들여가지고 이거를 다 복원정비, 11년 동안을 거쳐서 복원정비를 해가지고 세계유산이 작년에 된 거야.

- 저도 제대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저기, 행궁 뒤쪽에서 발굴 했었습니다.

아 그랬어? 토지공사?

- 예. 토지공사에서 할 때 잠깐 일했습니다. 바쁘신데 저희가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은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4

유형문화재

장위동 부마가옥_부마의 집에서, 수행도량으로

- 성암스님(진흥선원 주지)



성북구는 동서 양쪽에 두 채의 멋진 한옥 살림집이 있다. 동쪽에 성북동 최순우 가옥이 있다면 서쪽으로는 장위2동 진흥선원이 있다. 진흥선원은 원래 순조의 넷째 딸 덕온공주(德溫公主, 1822~1844)의 묘가 이쪽에 들어선 후 1865년(고종 2)에 그 옆에 지은 재사(齎舍)이다. 부마 남녕위(南寧尉) 윤의선(尹宜善, 1823~1887)의 소유였으므로 정식 당호는 ‘남녕위궁재사’였다. 짧게 ‘부마가옥’으로 불린 이 집은 부마의 아들 윤용구(尹用求, 1853~1939)가 갑오개혁 이후 들어와서 장위산인이란 별호를 달고 기나긴 은거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이후 몇 차례 소유주가 갈린 뒤 고 김진흥 씨가 구입해 살림을 이어오다가 1998년 12월, 부인 고 권옥경 씨가 선학원 측에 대지와 건물 전체를 기증함으로써 이듬해 진흥선원이란 이름으로 선방을 열었다. 현재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어 있다.

순 조선식 한옥으로 지어진 진흥선원은 1930년대에 지어진 최순우 가옥과는 건물의 짜임새나 공간 구성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시대별 생활양식일 것이다. 최순우 가옥이 일제강점기 도시민의 살림에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면 진흥선원은 남녀가 유별했던 조선시대의 위계적인 가족 질서를 충실하게 반영한 집이다. 이를테면 안채와 사랑채의 명확한 구분, 별

당의 존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엄격한 구분들도 건물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생활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예외적 순간들을 위한 공간들을 예비하고 있음을 보는데 예를 들어 안채와 사랑채의 내부 연결 통로 같은 것이 그런 공간이다. 아파트식 말끔한 평면에 익숙해진 요즘 서울 사람들에게 이러한 한옥들은 지나간 시대의 생활양식과 정서를 알려주는 소중한 공간임에 틀림없다. 2015년 11월 4일 진흥선원의 주지로서 성암 스님을 만나 진흥선원의 유래와 여기에 살고 있는 느낌들에 대하여 몇 가지를 묻고 선원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기회를 가졌다.

백외준



장위동 부마가옥 안뜰의 모습

장위동 부마가옥_부마의 집에서, 수행도량으로

일 시 :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장 소 : 장위동 진흥선원

구술자: 성암스님

인터뷰진행 : 박수진, 백외준

(인터뷰 시작하며 바로 이야기 시작)

원래 이제 잡지 집을 건축하신 분이 그 저 남녕, 남녕군이기 때문에 요고 가면은 그 남녕재라고 써 있는 간판이 있어요. 그 때 당시 써놔졌지 그거를? 그 때 그 이제 조각해서는 간판을 그제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마당에 보면 하마석, 말리는 꽃 우리 이제 안내장 있는 개나리 나무 밑에 있는 고계 하마석. 밑에 있는 그제 그거고 그리고는 뭐 특별히 뭐뭐뭐 일반 사십 가지 아흔 아홉까지 되있는 거라. 그런 거 하고 지금 이제 가을 맞아서 이제 감이 풍성해.



남녕재 현판, 내부에 있어 쉽게 보기는 어렵다.

- 감이 저기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온 산을 다 타야 되는 거지.

-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또 그거를 또 스님은 그거를 다른 복지관에다가 여럿이 보고 풍성히 느끼라고. 그래서 늦게 늦게 따요. 아주. 늦게 늦게 까지. 사람들 이제 막 걱정을 하지. 다 먹어진다고. 그래야 이제 그 때 따고.

- 스님, 제가 실례지만 스님 법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성암.

- 성암스님이시구나.

성, 바위 암.

-이를 성자 쓰시나요?

아니. 깨달을, 깨우칠 성자. 깨우칠 성, 바위 암.

- 실례지만, 연세를 물어봐도 될까요?

52년생.

- 법랍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 15년 됐어요.

- 15년 되셨어요? 여기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온지가, 여기 처음에 내가 온지가 한 10년?

- 2010년이요?

아니, 내가 처음 온지가 9년 되나, 10년 되나? 그렇게 되지. 2007년도에 왔으니까 8년, 햇수로는 9년째 되는 거네.

- 제가 알고 싶은 건 이제 어떻게 살림집에서 절로 됐는지 말씀해주시면.

근데 이거는 김진홍씨하고 권옥경 그 내외분께서 우리 은사 스님이신 현공스님에게 이걸 기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도 이제 제자로서 우리 은사 스님을 보고 존경스러운 게 우리 스님은 무슨 누구 봐주고 점 봐주고 이런 거 없이 오롯이 기도만 정신 수양하셔가지고 거기에 감복하셔서, 감응하셔서 이 분들이 우리 스님한테 기증하신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자손이 없으셨어요. 형제자매는 있었어도 자손은 없으셨고. 근데 형제자매들도 다 잘도 사시고 넉넉하시고 생활이, 그리고 또 법 조계에도 계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스님한테 기증을 하시는데 자기 네들이 이제 생애 남기고 갈 때 그래도 잘 이후에도 잘 뜻 깊게 쓰고자 우리 노 스님한테, 현공스님에게 기증을 하고 가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도 또 이거를 기증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 얘기니까 이후에 들은 내용은 이걸 받으셔가지고 ‘나도 나를 못 믿는다.’ 내 개인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원래 개인 소유물이었으니까. 그래서 받으시자마자 바로 선학원을 등록을 하신거야. 아무도 사고팔지 못하게. 그래서 부처님을 모셔서 우리 스님께서 김진홍씨의 아호를 따서 진홍선원이라고 그런거예요.

그래서 진홍선원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사절제도 보면 김진홍가

잖아요. 그래서 진흥선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스님도 그렇게 해서는 아주 부처님 모셔서 누가 사고 판매하지 못하게끔 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처님 불도량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지 되서 갈 수 있도록 스님이 뜻을 세워서 하시니까 또 우리가 있는 우리도, 스님의 뜻을 따라서 샀된 것 하지 않고, 열심히 스님 하시는 대로 오롯이 그냥 남이 볼 때는 저기 답답하다 할 정도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 왔는데 절도량도 스님이 맡으셔가지고 또 이제 아주 잘, 그분들의 그 이걸 함부로 하면은 그분들의 뜻이 훼손되잖아요. 주신 기증하신 김진홍씨하고 권옥경 그 내외분의 그 뜻에 반하지 않게끔 그분들의 말이, 살아계시더라도 서운하지 않게끔. 그래서 이제 잘 절도량도 관리하고. 우리 스님이 나무나 이런 거를 하도 좋아하셔가지고 나무들 아주 밤, 밤꿀을 만드신 거야. 가을되면.

- 직접 다 심으신 거예요?

다~ 심은 거야 우리가. 다 이거 사다 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꽃밭, 꽃이 이제 많아요. 봄에. 여름에 꽃동산, 여름에 꽃 절 도량이되고, 가을에는 감도량이 되고.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해서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십보름년, 십 한 보름년, 십 육칠년 그 정도 돼요. 기증 받은 게.

- 정확히 한 2000년 정도?

2000년 전에 1998~9년도쯤에. 그래서 이제 김진홍씨는 먼저 타계하시고 이제 권옥경씨가 이제 그 보살님이 나중에 자리보전했어요. 자리보전이 뭔지 알지? 그래서 한 7년, 내가 알기로 한 7년 정도를, 그분들도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주야로 간병인을 붙여서 7년 정도 우리가 그분을 간병을 해드리면서 돌아가실 때 아주 성대히 잘 해서 모셔드리고 이제 그 친척들이 권옥경



인터뷰를 진행한 성암스님

씨나 이제 그분들 자녀들이 기일이
나 무슨 법일되면 가끔씩 다니시고
그러시죠. 우리가 매 그분들의, 그분
돌아가신 분의 그 가족들, 지금 살
아있는 가족들 오신 분들 다 우리가
축원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매번 기
도해 드리는 거야. 그래 이제 우리
살아생전 스님 살아생전까지는 그
분들 그 뜻을 잇을 수 없죠. 솔직히
이게 말이 기증이지 쉬운 일이 아
니거든요. 여기 땅이 한 평에 얼마
씩인데, 돈으로 따져도 이게 백 평
이 더 되잖아. 천 평 가까이 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엄청나지. 근데 이제
건물 자체를 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 땅값만 따져도 얼마인데. 이게 그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일을, 향
상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암아, 그분들 뜻을 받들어서라도, 그분들 뜻을 헤
아려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동안만큼은 열심히 수행해라, 샷된 짓 하지 말고 잘
수행을 해서 잘 절도량을 빛나고 하계꿈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 늘상 그런
말씀을 하시죠.

— 실례지만 다시 한 번 여쭙보는데, 은사스님 법명이 어떻게 되시는지?

현공스님

- 현공스님

내가 현공스님 몇 번 얘기했구만~

- 들으면서 제가 깜빡 해가지구, 현공스님이셨구나.

- 현공스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우리 스님 아주 기도 한다고 소문에 나셨거든. 우리는 이 기도도 보통 스님들 힘들어서 안한다고 능엄제해요. 능엄절 기도를 하긴 하는데 능엄제 추가로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능엄제하는 스님은 소문에 났지. 그래서 우리도 거기 따라서 다 능엄제하고 법회날이면 신도들도 다 따라서 능엄제하고. 그래서 오래 하다보니까는 능엄제 외우는 신도들이 많아요. 그거 스님들도 외우기 어려워서 안 해.

- 그제 능엄경?

능엄주. 능엄신주라고 해서. 대불정 능엄신주라고 그래.

- 이제 내부를 좀 둘러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5 유형문화재

흥천사_도심 속 도량이야기

- 정관스님(흥천사 주지)

●
●

성북구의 흥천사는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康氏)의 원찰이다. 1395년(태조 4)에 신덕왕후 강씨가 죽자 1396년 능지(陵地)를 정릉(貞陵, 현재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에 정하여 조영하고, 그 원당(願堂)으로 능 동쪽에 170여 칸의 절을 세워 흥천사라 칭하였다. 1398년 6월에는 왕명으로 3층 사리각과 사리탑을 절의 북쪽에 세웠고, 7월에는 우란분재(盂蘭盆齋)를, 8월에는 신덕왕후의 천도회(薦度會)를 베풀었다. 1569년(선조 2년) 왕명으로 함취정유지(含翠亭遺址)로 옮겨졌고, 신흥사(新興寺)라 이름을 고쳤다. 1794년(정조 18)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지었다. 그 뒤 1846년(헌종 12)에 구봉화상(九峰和尚)이 칠성각(七星閣)을 지었고, 1849년에 성혜(性慧)가 적조암(寂照庵)을 창건하였으며, 1853년(철종 4)에 대웅전(지금의 極樂殿)을, 1855년 명부전(冥府殿)을 지었다. 또한 1865년(고종 2)에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지원으로 대방과 요사채를 짓고, 이름을 다시 흥천사라 하였다. 1885년에는 대방(大房)을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당우(堂宇)로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多包系)의 팔작지붕인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명부전·용화전(龍華殿)·칠성각·독성각(獨聖閣)·만세루(萬歲樓)·승방(僧房)·대방·일주문(一柱門)·종각(鐘閣) 등이 있다. 정관스님은 2011년부터 흥천사의 주지로 주석하였던 정념스님이 2015년 회주가 되시면서 흥천사의 주지로 주석하였다.

이현주

흥천사_도심 속 도량이야기

일 시 :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장 소 : 흥천사 대방

구술자 : 정관스님(흥천사 주지)

인터뷰 진행 : 이현주, 박수진, 백외준

－ 도심사찰로서 흥천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서울 시내에는 거의 없잖아요. 흥천사는 시에 있으면서도 뒤에 북한산이 딱 배경으로 되어 있어서, 불자님들 수행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시민들 휴식처로서 산책도 하시고, 조금 저희 사찰부지가 한 만 오천 평이 넘거든요 굉장히 입지조건이 좋지요 그런 뜻에서 강북의 거점사찰이다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강남의 봉은사같이.

－ 흥천사는 신덕왕후의 원찰인데, 그와 관련한 행사가 있습니까?

지금 4년차 됐지. 정념스님이 오시면서부터. 신덕왕후 명복으로 원찰로 설립된 사찰이니까, 다례재를 올려드리는 게 낫지 않나.

－ 흥천사가 2011년 정념스님이 주지하시면서 명실상부한 조계종관리사찰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흥천사가 조계종 사찰인데, 이전에 태고종 스님들이 거주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원래 일제시대에 왜색, 일본불교화.. 정책차원에서 일본사람들이 통치하기 편하도록... 일본불교화를 시킨 게 일본불교의 특징은 생활불교예요. 우

리 한국불교는 수행불교고, 수행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스님들이 독신으로 참선하고 수행하고 하는 전통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생활불교라고 보면 되요. 쉽게 얘기하면은, 거기는 수행하는 스님도 계시지만은 대체적으로 스님들이 가정을 갖고 있지.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통합되면서 일제시대에 종교관리차원에서 왜색화를 시키는데 그 대표적인 영향을 받은 게 스님들이 결혼을 하고, 그런 스님들이 생긴 게, 타종단 같은 경우는 있었죠. 흥천사 같은 경우는 재산은 대한불교 조계종 재산이지만은 일제시대부터 60년간 4년 전까지 관리가 안 되는 사찰이었죠. 타종단 스님들이 여기에 계셨고. 그래서 경내에 그 가족들 집이 한 20채 민가가 있었고, 세입자까지 하면 60세대, 총 80세대지요. 경내에 살고 있었던 게. 그걸 정념스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분들 6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냥 못 나갈 것 아니에요. 이 준비 보상을 해주고 해서 싹 정리를 했죠. 그 때부터 조계종 관리 사찰로.

- 그 과정에서 갈등은 없었습니까?

갈등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슬기롭게 잘 해결이 참 잘됐어요. 예를 들어서 용산 참사 같은 거 보세요. 그런 일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하는데 여기는 80세대를 무난하게 큰 잡음 없이 정리를 해서, 판자촌 같은 이 절이 근 4년 만에 원래 모습으로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죠.

- 흥천사 건물은 총 몇 개입니까?

건물이 전각이, 법당이, 극락보전, 명부전, 영화전, 건물이 다섯 동이 있고, 법당 건물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뷰하는 곳이 대방이라고 하거든요, 대원군이 건립한 게 대방이 있고, 저쪽 스님들 요사채, 노전채가 있고, 노전채는 최근에 복원한 거고... 그 위에 지은 게 삼각 선원, 저기 적조사 밑에 그리고 흥



위창 오세창 선생이 쓴 종각 현판

천어린이집.

- 요사채 건축 시기가 언제인가요?

대방 지을 때 요사채를 지었다? 그렇게 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저 요사채를 철거해서 보니까 그 안에 상량문이 3개가 나와요. 제일 이른 시기가 정조

때, 한 300년 됐죠. 조선 말에 한번 있고, 또 근래에, 최근은 아니고, 정확하지는 않은데, 1960년대인가? 3번에 걸쳐 변형이 된 거예요.(노전 건물 말씀하시는거죠?) 너무 훼손이 많이 돼서. 주춧돌 이런 거는 그대로 썼는데, 재목은 다 썩고.

- 오세창선생이 쓴 종각 현판의 내력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인연이 있어서 썼을 테고. 아마 명필이시니까, 흥천사하고 인연이 있어서 썼든지, 아니면 글을 잘 쓰시니까 부탁을 해서 받아서 현판을 걸었던지, 지금은 제가 그런 자료를 어떻게 해서 오세창씨가 종각현판이 걸렸는지 잘 보지 못했어요...

- 종각의 종을 만든 시기가 언제인가요?

확인 안 했는데요. 근세종이에요. 근세종이고, 조선시대에 만들어서 보물로 지정된 것이 덕수궁의... 원래 그게 흥천사종이에요.

- 원래 흥천사 종을 복귀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흥천사가 다 갖춰가고 하니까, 원래 흥천사 종

이니까. 문화재청에 돌려 달라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대개 안 돌려주려고 그러지요.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원래 흥천사에 연고가 있는 흥천사종이니까 원래 여기에 모시는 게 맞지 않나..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흥천사 현판의 문화재 등록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판에 대해서는 아직 없고, 불상하고, 탕화, 그 부분을 계속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극락보전 42수관세음보살, 문화재청에서 심의가 올해 또 열려요. 다른 불상들도 다 조선시대 불상인데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 가치가 충분히 있고…

후불탱화 같은 경우에 극락보전 가운데 있는 아미타불도, 오른쪽에 있는 지장보살도, 명부전에 있는 괘불도, 고계 현재 문화재로, 지방문화재로 작년에 지정이 됐어요. 또 노전채에 있던 약사괘불도 지정예고가 되어 있고…

－ 감로도는 문화재 등록 계획이 있으신가요?

감로도는 강우방 교수께서 ‘특이한 탕화인데, 역사는 얼마 안됐지만, 그런 형식의 탕화는 감로도는 흥천사가 유일무이하고, 충분히 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있다.’ 그런 견해를 피력을 하셨는데, 아마 나중에는 문화재로 지정될(할 예정이에요)….



흥천사 감로도: 일제강점기의 생활모습을 담고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 일제시대 생활상이 담겨 있는 감로도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 불사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귀중해서 총무원의 강월관에 일단 보내서 그곳에 보관하고.

- 흥천사에 주불이랑 협시불이 있는데, 협시불이 더 큰 이유가 있습니까?

흥천사는 그 왕실사찰이잖아요. 왕실사찰이고, 원래 중구 정동에 있었는데, 연산군 때 유생들이 흥천사를 불태우잖아요. 그러면서 한 3번 옮겨요. 3번 옮길 때마다 전각을 옮겨짓는 것도 있을 테고, 새로 옮겨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새로 짓는 것도 있을 거고. 중간에 신흥사란 이름으로 새로 조성을 했다가 대원군이 대방 건물을 지으면서 원래 흥천사 이름을 찾아 준 거예요. 흥천사에 모셔져 있는 불상 같은 경우에 특이한 거는 흥천사 편액을 걸고, 건물 특이한 거는 원래 사찰의 불상은 화주를 해서 시주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여기는 그러지 않고 추측컨대 왕실사찰이니까 지방의 여러 사찰 중에서 상호가 완만한 부처님, 잘 조성된 부처님을 모셔서 조합을 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약간 비율이 그렇게 나온 거지요.



대원군이 쓴 흥천사 현판

- (시대도 다 다르고)가운데 있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이고, 80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 대방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원래 대방의 용도는 왕실사찰인 경우에는 궁중의 인제 상궁이나 궁녀들이 절에 와서 법회



홍천사 관음보살(일제강점기)



홍천사 관음보살(현재)

도 보고, 기도도 하고, 조선시대는 남녀가 유별하잖아요. 원래 주법당인 극락보전에서 해야 하는데,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같이 한 공간에서 할 수는 없고, 극락보전에서 법회를 하면, 궁녀들은 대방에서 극락보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용도로 쓰였다. 문헌에 보면 그렇게 하다가, 대방은 큰 방이라는 뜻이잖아요. 큰 재나 법회를 할 때, 대방을 법회 장소로.

- 노전채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쓰고 있죠. 두 명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스님들이 거주할 수 있는 요사채가 지금 홍천사에 없어요. 옛날 민가 중에, 민가가 20채라고 했잖아요. 다른 것은 다 철거하고. 그 중 3채는 철거하지 않고, 쪽 개조해서 스님들이 쓰고 있고.. 나중에는 그것도 철거해서 요사채로 쓰고 있죠.

- 요사채는 복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럴만한 정신이 없죠. 지금 주 공간, 극락보전도 내년에는 해체해

서 보전해야 하고, 많이 기울어져서, 대방도 원형복원 작업을, 지금 주 공간에 대한 일이 너무 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거는.

— 극락보전의 해체수리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사람이 살다보면 필요에 따라서. 원형을 훼손시키잖아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원형이 훼손된 공간이 대방 공간이에요. 원래 마루가 한 칸 씩 있었고…사람들이 많이 법회장소가 필요하니까. 내 생각에는 원래 건립했을 당시의 그 모습을 찾아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원래 대원군께서 건립했을 당시 그 모습을 찾자. 그게 원형복원의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면은 법회공간을 따로 마련하더라도.

극락보전 같은 경우는 4도 정도 기울었어요. 시각적으로도. 그곳은 관람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신행공간.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썩은 부재 같은 걸 교체도 하고.

— 대방의 원래 모습은 어떠했나요?

원래 옛날에는 부엌도 있었고. 옛날식이었을 것 아니에요.

— 대방의 내부사진이 있으신가요?

문화재 같은 해체하면서 설계가 변형이 돼요…지금 같은 경우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체하면서 부재를 떼어내면서, 하나하나 역으로 복원이 돼요.

—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공사기간은. 한 2년 정도 잡아요.

- 흥천사가 주관하는 주민관련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찰이라고 하는 공간이 단순히 스님들 살고 신도들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은 도심지역의 사찰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지역 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시민들 휴식 공간, 문화 공간, 또 복지 공간. 그래서 경로잔치도 하고 주변 경로당. 돈암동 같은. 주기적으로 어르신들 필요하신 거, 쌀이라든지 휴지라든지 커피, 녹차, 계속 후원을 해드리고. 요구르트 같은 것도 갖다 드리고, 또 인제 주민들이 많이 산책로로 활용하시잖아요. 음료수 하나씩 들고 가서 마시라고 갖다놓고. 커피도 그냥 마시게 하고. 사소한 배려 많이 하고, 공간이 좋으니까 공간을 활용해서 어저께 시낭송회도 했었고, 돈암동 축제, 주민들 축제, 시낭송회도 있었고, 돈암동 축제, 주민들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그런 배려, 또 어린이집을 개원을 해서 어린이집 본래 취지가 맞벌이 취학 전 아동 보호(잖아요)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조건만 갖추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공간으로써(활용하고 있습니다).

- 칠성각은 어떤 성격의 건물인가요?

원래 북극전이예요. 원래 명칭이. (산신각하고는)같이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북극전, 북극이란 걸로 칠성각이거든요. 산신각하고 같이.

- 명부전은 수리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수리 계획이) 없죠. 기울어진 것도 아니고. 기와 같은 게 흘러내렸어요. 옛날 전통식으로 기와를 얹어 놓으니까 밀려서. 언젠가는 기와는 보수를 해야 하고, 명부전을 중심으로 한 주변 축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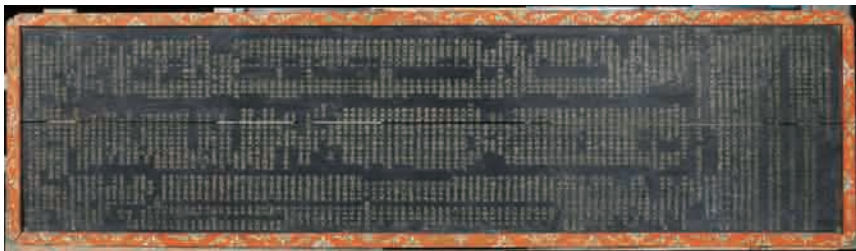
전통, 우리나라식 축대가 아니고 왜식이예요. 기울여쌓는 거 있잖아요. 전통 축대로 바꿔 쌓을 필요가 있죠. 여기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또 주변 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배수 시설도 해야 하고. 그러나 전 각 자체에 근본적으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어요.

－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원래 영화대라고. 유골을 모시던 공간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주로 무연고, 육이오나 그럴 때 무명용사들, 그 이후에는 아픈 역사지요. 역사적으로 HIV에 희생된 사람들, 그분들의 명복을 비는 공간으로서 연화대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화대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고 그래서, 붕괴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명부전 뒤에다가 새로 늘려서 조금 지어서 제사공간으로... 우리 신도님들 원래 대방에서 했었는데 지금 할 데가 없잖아요. 명부전은 좁고. 명부전에서 기도하고. 49재나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화대, 어차피 복원을 해야 되니까.

－ 정릉과 관련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건 계속 숙제지요. 원래 정릉원찰이니까. 정릉하고 흥천사는 앞으로 혼



흥천사에 시주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 이 안에서 흥선대원군도 찾을 수 있다.



극락보전에 남아 있는 영친왕의 낙서

자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숙제로 안고 고리처럼 정릉 찾는 사람이 흥천사도…
공식적인 것은 없어요. 공식적인 것은 없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 번역 사업도 계획되어 있나요?

거의 번역은 다 됐죠. 주로 연기(緣起)거든요. 예를 들어서 극락보전. 거기 불상보수라든지, 왕실사찰이니까 시주한 내력이라든지, 그거는 번역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 참 영친왕의 글씨가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순정왕후가 한국전쟁 때 흥천사에
서 피난 생활을 했었다는 기록도 보았어요.

영친왕 5세 때 여기 영친왕 별장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이집 자리에. 어린이집 자리가 영친왕별장자리라고. 바위 굴 같은 거, 무슨 빙고(석빙고). 영친왕 별장이 있었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피신하신거지요. 영친왕 모친하고. 그 때 5세 때 쓴 글씨가 극락보전 현판으로 남아 있고. 종 같은 게 있고. 자세한 그 이상은(잘 모르겠어요).

- 끝으로 흥천사의 유물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현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탕화나 불상 같은 거. 문화재급이잖아요. 현재 이렇게 갖고 있는 사찰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관리를 못한 60년 동안에, 소품(작은 물품) 같은 경우는 그냥 없어진 게 많았다고 추측을 해요. 탕화만 해도 십여 점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보존이 됐다고 하면 박물관 한 층을 장식하고 남을 정도의 문화재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 오늘 일정이 많이 바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흥천사의 모습(2014년 촬영)

6

유형문화재

성라원_김일엽과 한용운 그리고 일당스님

- 정탄스님(성라원 주지)

●
●
한성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성북동 방향으로 뻗어 있는 성북로를 따라 계속 올라가면 그 끝자락에 큰 기와집이 하나 보인다. 그 사찰이 바로 성라암이다. 성라암의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윤심덕, 나혜석과 함께 신여성 3인방으로 불리던 김일엽(金一葉, 본명은 원주, 1896~1971) 스님이 자전 소설 『청춘을 불사르고』를 쓴 곳이 바로 이곳 성라암이라고 전한다. 일엽 스님의 아들인 일당(김태신, 1922~2014) 스님은 1988년 출가하여 성라암에 주석하다 입적했다. 그는 어려서 이곳에 살며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심부름을 하기도 했다고 전한다. 재능 있는 화가이기도 했던 그는 해방직후에는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를 그려 이후 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

또한 성라암은 1981년 비구니대학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도 큰 기와집 건물 밑에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비구니대학의 학생들이 공부하며 기거하던 방의 흔적이다. 일엽 스님의 제자인 법성스님 주지로 있던 시절이었다. 법성 스님은 일당스님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명 화가들을 만나 작품을 기부 받아 건물을 지었다. 이 성라 비구니 승가학원은 개운사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승가대학에 합쳐지며 1년 만에 문을 닫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아직도 성북동 한켠에 남아 있다.

박수진

성라원_김일엽과 한용운 그리고 일당스님

일 시 : 2013년 11월 13일 토요일

장 소 : 성라암

구술자 : 정탄스님(성라원 주지)

인터뷰 진행 : 박수진, 박병호(서울시문화관광해설사)

※ 인터뷰는 주로 박병호 문화관광해설사가 진행했으며, 박수진이 진행한 경우에만 (박)으로 표시함.

- 저는 해설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성북동이 너무 매력적인 곳이라.

그럼요.

- 성북동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문화원에서 역사문화탐방 팀 데리고 와룡공원 말바위쉼터 숙정문 삼청각 길상사 지금 보고서 점심먹고 온 김에 공부 좀 더 하자 싶어서 왔는데 좋은 스님 만나가지고 내가...

저 그러면 우리 박수진님은 성북문화원이라고 하면.

- (박)한성대입구역 바로 지나서 성북동쪽으로 나오시면 한신아파트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거기 선원도 하나 있죠?

- (박)선원이요? 글썄요 제가 잘...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찰을 말씀을 드리자면 김일엽 스님이 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선승 비구니의 선승으로서는 최고의 스님이죠. 그거는

위낙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분의 또 비구니 제자 되시는 분이 이 절을 창건을 하신 거예요. 창건을 옛날엔 여기가 주위가 다 배나무 밭이었어요. 사람도 안 살고.

- (박)일당스님 만나 뵙고서 녹취나 이런 걸 좀 해도 건강이 괜찮으신지?

하루만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 일당스님하고 여기 창건하신 그 분이 법성.

『마음 한번 돌리니 극락이 예 있구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됐죠. 웬만한 분들은 다 읽어 보셨을 텐데.

- 지금 법성스님은 생존해 계시고.

아니요. 돌아가셨죠.

- 일당스님은 김일엽 스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 그 혼전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신여성 삼인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원주라고 하는 분이 김일엽 스님의 속명이에요. 김원주. 내 얘기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라고 부르는 당신의 일당스님의 자전소설이 있어요. 저기 가면 서점 가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냥 쪽 나와.

- 그래가지고 이분이 김일엽 스님이 수덕사에 가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왜 수덕사를 갔는가. 그 김원주라는 분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아버님이 목사셨고 굉장히 서구문물을 빨리 접했어. 빨리 접하다보니까 그 나이 대에 외국인 문물을 빨리 접하다보니까 외국에 꿈을 끈 거예요. 그러면 일본 유학을 가겠다. 유학을 가면서 시모노세키부터의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젊은 청년하고 젊은 처자하고 대학생이 만났으니 사상과 이념과 관계없이 서로 필이 통했겠지. 동경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헤어져서 그 남자가 바로 일당스님의 아버님이 되시고요. 오다 세이쥬라고 하는.

- 오다 세이쥬?

오다 세이쥬.

- 세이쥬?

세이쥬. 그래서 그 이념으로 깊은 사랑을 하다가 일당 스님을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집안에서는 극렬한 반대가 이뤄지죠, 그래서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해요. 동경에서 일당스님 출산을 하고 일엽스님은 한국으로 오고 조선으로 오고 아버지 오다 세이쥬는 다시는 내가 오다 가문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노라 한 다음에 평생을 정말 외교관으로만 독신으로 살다가 죽어요. 근데 또 그 양반이 어디로 오냐면 조선 총독부 최고 관리로 와요. 아버지가. 그래서 만해스님, 만공스님 그 많은 큰 스님들이 만공스님이 일제시대 때 법회를 하면서 일본 놈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 분 때문이었어요. 헌병들이 그때는 스님이요 뭐고 어디 있습니까? 자기 한국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은 다 그래서 만해 한용운 스님이 일당스님을 심부름 뭐 싸 주는 거 들고 가고 결국 나중에 가보면 그게 독립자금이었다. 뭐 대부분 그래서….

그 때 조선시대(일제시대에)에 오다 세이쥬, (일당스님)일본명이 오다

유키무라예요. 일당스님 일본 이름이 오다 유키무라를 검문할 수 있는 헌병은 하나도 없었다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말하는 국정원 같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분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본이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밀가루 구하러 가고 일본에 엔화 차관 빌리러 가고 그 차관을 우리나라에 오게끔 한 게 저 양반이에요. 자기 아버지 영향을 통해서 일본 정경계 움직여서 김종필씨가 우리나라 차관 그 차관이 들어오는 바람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없어졌고.

- 오다 유키무라, 이후에 일당 스님의,
오다 유키무라.

- 오다 유키무라 그 분의 한국 이름은,
김태신.

- 김태...?
태산할 때 태 클 태 신.

- 김태신.

그리고 또 저 양반이 이당 김은호 선생님 제자예요. 이당 김은호가 누구냐면 오만원 권 있죠? 신사임당 그림, 그 다음에 이순신 초상 이런 분들(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고종의 어진 화가였어요. 그 분의 수제자로서 우리나라 이 석채 동양화 석채 북종화의(?) 대가시고 세계적인.

- 일당스님이,

일본에서 3대 미술상을 다 석권했고.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저 분의 레파토리는 길어요. 삶 자체가 역사예요. 역사고 문화예요.

- 그래서 내가 수덕사를 가가지고 그 때 인제 일엽스님과 계시던 어떤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 그땐 공부했는지 지금은 다 까먹어가지고 얽힌 이야기들 인제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산 증인이예요 수덕사가면 수덕여관 위에,

- 예. 수덕여관.

수덕여관 위에 암자 그것도 당신이 지어준 거예요. 이 앞에 지금 건물 이것도 기라성같은 화가들 수주 받아서 그 건물도 지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일엽스님이 선생들한테 이제 청춘을 불사르고 쓰신 거예요. 일생을 지금 연세 세수는 93세이신데 일생을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데서 그래서 그 책 제목도 최근에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그 책을 한 번 보면 포괄적인 일엽스님이나 왜 당신이 여기 있는지 그 내용이 쭉 나와요.

- 그것은 일당스님이,

네 자전 소설.

- 그러면 만해 선생님 이야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 심우장이 여기잖아요. 바로 여기잖아요. 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그때는 바로 뭐 산골코스예요.

- 그러면 지금 심우장은 1933년에 지은 건물입니까?

네.

- (성라암은)그 전에?

아뇨. 그 후에 지어졌지요. 그후에.

- 그 후에 지어졌지만.

그 장소가 이 장소가 처막이 옛날 같으면 상여막이.

- 그때는 사찰이 아니었나요?

그때는 아마 여기가 요리집인가 뭔가 하나 조그맣게 있었는데.

- 성라암은 그럼 언제 만들어졌나요?

이게 한 역사적으로 보면 7~80여년 70여년 막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 그러니까 만해 선생님이 공약삼장 쓰실 때에는 사찰이 아니었고

그렇죠. 아 저 사찰이 아니었고, 그냥 이 앞에 처막. 소위 말해서 상여막 그런 것의 소위 말해서 그게 아지트였죠. 위장 아지트. 그땐 여기가 골도 깊고 민가가 없었던 때고.

-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당신이 중학생 때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산 증인. 그리고 저 양반 때문에 직지사 주지스님이셨던 분도 친일파로 몰렸다가 독립 유공자가 됐어요. 그 자손들도 지금 여기 있고.

- 직지사면 저 추풍령.

예예. 한번 자세한 내용은.

-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네요.

당신이 직접 경험자니까 당신한테 물어보시면 그 다음에 미리 연락을 주면 내가 스케줄을 언제쯤 오시는가 스케줄 잡아서.

- 저희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리고 그래야 이제...

성북구청이든 성북문화원이든 저 분은 정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리냐 하면 역사이자 산 역사예요,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쪽에 가끔 와서,

아니요. 제가 여기 주지인데 지금 인제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구청하고 저희하고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하는데, 어떤 그 소위 말해서는 꺼리가 이곳만큼 성북동에서 큰 꺼리는 없어요. 길상사부터 뭐 죽 알지만 꺼리가 여기만큼 좋은 꺼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 그런 곳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아직 저희가 사찰 내부적으로 정리할 일이 있어서 조금 자중을 하고 있습니다.

- 며칠 전에 그 성북구청에서 서울시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20명을 이쪽으로 초빙을 해가지고 그 때 심우장하고 길상사하고 이제 그 간송 미술관을 답사를 했어요. 제가 그 때 해설을 쫓 했는데 그 때 구청장님이 옆에서 같이 들으셨으니까 최초로 해설하면서 성라암 언급을 최초로 제가 했어요. 그게 교정을 보고 그리고 공약 삼장을 쓰신 곳이 성라암 이쪽이다 하는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구체적인 지금들은 이야기도

모르고 그냥 어깨 너머로 본 거 가지고 그 발견만 해도 이제 나한테는 좋은 공부거리가 되니까….

저는 제가 이 곳은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었냐면 일단 성북구청이 벨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만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를 제가 알아요. 낱골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성북구청하고.

- 낱골?

예. 그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성북구청하고 성북구청도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저희가 빨리빨리 정리를 해 줬으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분명히 성북구청한테 제안을 할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러냐면 이 곳은 우리가 돈 주고 배워야 되는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무슨 역사를 만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외세 일본 친구들이 또 이렇게 하잖아요. 반대로 그 친한파되는 정치인들도 많아요.

(다른 얘기)

-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엔 이 성라암이라는 곳이 우리 성북동에서 둘러볼 코스 중에서 훌륭한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인제 그 자체가 장소 자체가 항일의 본거지였고, 또한 그 항일 본거지의 일본인의 최고의 권력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뒤로는 한국인을 보호해 줬다. 그 분이 일당스님의 아버지다. 저 분 때문에 만공스님이 산거예요. 만해스님이 살았고. 안 그랬으면 고문으로 다 죽는거예요. 그리고 오다 세이쵸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사랑했던 여인이 한국 여자 조선 여자였잖아요. 그 안에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저 양반이 일본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해버렸어

요. 일본 국적에서 어머니의 나라는 한국인이다 하고 귀화를 해버렸어요.

- 일당 스님이 몇 년생이세요?

지금 93세이니까.

- 1910.

1920년생? 그렇겠쥬.

※ 실제로는 1922년생이다.

- 그럼 만해 선생이 1879년도 생이니까 나이 차이가 한 30년 차이.

그러니까 그 중학생 때 그리고 또 만해 스님의 따님이 있어요. 영숙이
굉장히 가까워요.

- 영숙씨는 지금 살아계시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 (박)삼선교 쪽에.

- 삼선교 쪽에.

※ 현재는 삼선교를 떠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

- 그때 수덕사에 가서 승재곤 선생이라는 분이 해설 진행을 맡았는데, 어머니라 부르지
말라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성북동 그 책 잊혀져가는 성북동 그 책을 읽다
가 성라암하고 만해선생의 관계를 알았어요.

그 자전 소설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를 한 번 구입을 해서 보세요. 보시



계단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옛 승가대학 건물이고, 계단을 올라가서 오른쪽 땅이 예전에 토굴과 처막이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면 웬만한 큰 아웃사인은 쭉 나와요. 보신다음에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은 머리에 숙지를 하신 다음에 중간 중간 삽입하는 것은 스님이 산 증인이시니까. 아니면 카메라를 갖다놓고 이거 정말 굉장한 자료고 사료예요. 이게 국가적으로 그래서 스님의 일대기를 같이 해 놓을게요. 일본에서 오다 가문에서 이것을 한일 합작 영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스님의 일대기를 왜 그러냐하면 오다 집안이 지금도 최고의 집안이거든요.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만들었다면 아시겠죠. 그 당시에 태평양 전쟁 당시에 천황이 저도 일본에서 좀 오랜 시간을 있었지만 천황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천황은 허수아비였어요. 군벌들 미츠비시라든지 이런 물자를 만들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천황을 압박을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 때문에 천황도 사실 산거고... 안 그랬으면 그 때 교수형 당했어요. 거기에 최고의 자금줄 재정적인 자금줄의 수장이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특 A급~

- 그러니까 그 일당 스님이 여기에 머무르시게 된 것도 동기는.

일단은 절의 창건주(법성스님)가 일엽스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법성 스님의 제자야. 그래서 법성한테 일당스님이 '누이~ 누이~'했어요. 그리고 일엽 스님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청춘을 불사르고』를 3년간 주석하시면서 쓰셨어요.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어머니가 계셨던 곳이다 어머니 그림자를 일생을 쫓아다니니까 그리고 '직지사하고 여기는 당신이 어머니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곳이에요. 어머니가 계시든 안 계시든 어머니의 집 그렇게 애절했는데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불러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윤심덕이라는 분 알아요? 나혜석이라는 분 알아요? 그 다음에 김원주 이 세 분이 우리나라 신여성 3인방이예요.

- 나혜석 그 프랑스까지 가서.

그 일대기를 보면 일엽스님하고 친구야. 근데 만공스님이 일엽스님 출가를 허락을 했고 나혜석이는 넌 안 돼 그랬어요.

-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 있는 데가 그러면 '난 중도 안 되니까 여기 있을래' 해서 수덕여관에 있었어요. 그런데 찾아가 겨울에 그러면 겨울에 문을 안 열어줘요. 일엽스님이 그러면 이제 나혜석씨가 데리고 오라 해서 자기 젖가슴을 풀어주고 품어 안고 잤다는 얘기 친구의 아들인데 그 애절함이 그 때가 30대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처녀인데도 그 어린 일당을 그 추운데 떨떨 떠나니까 데리고 와서 만공 스님도 부르고 재우고 자전소설이 한 사람의 일대기가 이럴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는 TV에서 보면 김일성 초상화 있죠. 그걸 저 양반이 3년을 끌려가서 그런 겁니다.

- 일당스님이?

예 저 양반의 일대기를 보면 저는 4등분을 해요.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 양반이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북조선이라는 북한이라는 나라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 양반한테 인생에 뭐냐면 자기는 일본국에서 태어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왔는데 38선이 갈리면서 북한에 끌려갔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끌려가서 3년 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김일성을 앞에 놓고 그림을 초상화를 그렸다고. 그래서 한국 들어오면 빨갱이라고 총살한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못 오고 일본을 들어가 대한민국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 양반의 뭐랬냐면 일본 가가지고 저 양반의 개념에는 북한 남한의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냥 조선이었잖아요. 황해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다 도움을 준거야. 그랬더니 민단 쪽에서는 빨갱이다 라고... 인제 그러니까 여기 오면 총살이지. 오고 싶어도 못가. 그런데 김종필씨가 일본을 넘어 가면서 국무총리하면서 넘어 가면서 한일회담 하면서 차관 들어오는거, 이걸 하는데 뒤에 노력을 다 했어요. 세이쵸라는 아버지하고... 그래서 오게 돼서 김종필씨가 인보증을 서서 한국에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때 들어와서 한국으로 귀화를 해요. 그러니까 저 양반 인생에는 일본, 조선, 그 다음에 북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네 나라가 존재하는 근데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을 못 받아요. 남한에서는 왜색이라고 대우 못 받고 옛날에는 쪽바리라 이거지.

- 아버지가?

예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아주 자본주의 반동분자라고 못 받고, 일본에서는 조센징이라고 또 대우 못 받고, 인생을 보면요 파란만장해요. 집안에서조차 오다 집안에서 독살을 두 번 당해요. 조센징 피가 흐른다면서 가짜다 그래

서 한 쪽 눈이 실명이 돼요. 비소 약을 탄 정종을 먹여서.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아. 그런 분이 대한민국이 어머니 나라라서 좋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포기할 해요. 책을 읽어 보시면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화하자 드라마 뭐 뮤지컬하자고 많은 제안이 들어오는데 제가 지금 다 캔슬하고 있어요. 일본인 입장에서 저 양반을 그린다든 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 그러면 만약에 성북동을 알고 계시던 사람들하고 같이 해설하러 왔을 때 이 사찰 성남에서 그걸 보여주려 만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스토리텔링은 좋은데 혹시 어떤 불교 사찰로서.

불교 사찰로서는 저 건물만 빼고는 다죠.

- (박)명부전이요?

- 명부전은 왜 빼요?

저 공간이 지금 사고가 난 공간이에요. 저게 납골당. 앞에 최초의 우리나라 비구니 승가대학이 있어요. 저걸 저 양반이 지은 거예요. 천경자, 윤보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회사해서 그걸 판 자금으로 지은 거예요. 여자 스님이 공부를 한 승가 대학이에요.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시주해서 꺼리 너무 많죠. 두 분 앉아계신 일엽스님이 자리에서 청춘을 불사르고를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법당에 단청 저게 서울시에서 잘~ 보존 가치가 있는 단청이죠.

- 저 대웅전은 언제 지어진 건가요?

저게 한 50여년.

- 그럼 1950년이나 60년.

60년 이후 됐을 거예요. 저게 한 번 불이 났었어요. 그 다음에 손경산(?) 큰 스님께서 조계종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조계종 비화가 많은데 여기서 계시고 그 가신 날 린치를 당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반대파한테.

- 그 분이 손경산 큰 스님.

인터넷에 경산 큰 스님 하면 쪽 나와요 여기서 한 9년 주석을 하셨고.

- 여기서 한 9년 계셨다고요?

예 많죠. 여기는 정말로.

- 그래서 대웅전에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어떤 불상이 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 지금 명부전의 위패가 모신 건 아니고 약사여래가 계신가요? 지장보살이 계시죠. 납골 관계는 무슨?

전 주지스님이 무리를 하셨지. 스님들이잖아요. 막무가내로 밀어버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한참 시끄러울 때 그게 터져서 여기 봉국사는 납골당 때문에 문 닫아버렸잖아.

- 아 여기 납골당이 있었군요.

예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안돼서 그렇게 된다면요 여기는 베스트 관광 코스에 있어서 가볼만한 명소로는 최고죠. 최고 끼리가 있잖아요.

-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안내 표석이라도.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조금 정리될 때까지 유보를 하고 있다고 일체 그거는 남들은 꺼리가 없어서 일부러도 만드는데 지금은 일부러 있는 것도 내가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지난 다음에.

- 지금 여기 팸플렛 같은 거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예 지금 있는 것도 제가 다 스톱 시켜버렸어요.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나중에 일당 스님 읽어서 오시거든.

- 언제 오시죠?

오늘 가셨으니까 아마 한 달 정도.

- (박)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연락처 교환)

당시에 있는 이승만부터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이런 분들하고도 쪽 계속해서 나는 저 분이 일당스님이라는 분이 승려로서는 딱히 할 일은 없지만 김태신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이 우리나라 역사하고 다 어느 한 부분에.

- 아까 네 시대 일본 조선 북조선 대한민국.

- (박)그건 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될 정도로.

근데 네 나라라고 하는 데서 다 환영을 못 받아. 근데 다 도움을 줬어. 다 도움을 줬어요.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 민간인 역할로 굉장히 노력을 했고.

- 건강은 어떠세요?

아주 좋으세요. 정신적으로 좋고.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뿌리가 박히질 못하고 여기 가면 왜색이다 저기 가면 칸코쿠진이다. 저기 가면 빨갱이다. 저기 가면 자본주의 찌든 반동분자다. 그건 저 양반 잘못이 아니고 시대적 흐름에 있어가지고 희생양이 될 수 아버지도 맘대로 아버지라고 집안에서 할 수도 없었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었고.. 기가 막힌 어떤 한 개인의 인생을 본다면 역동, 국제적인 시대에 태어나서 조선의 어머니 나라 힘이 없는 나라의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힘이 너무 강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거 받는....

- 그럼 저기 일당스님은 그림 공부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당 김은호 선생님 그 분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동경제국대학의

- 동경제국대학.

네 동경제대 미대를 나왔고 일본의 삼대 미술상을 다 휩쓸었어요.

- 그럼 고희동 화백하고도 이렇게.

글쎄요 아마 단대 미술 정부 아직도 현직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 지금도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유화물감이 아닌 석채로 그리니까 돌 보석가루로 그림을 그린다 이거죠. 색채의 마술사라고 그러죠. 알파 문구가 알파 문구 아시죠? 그 알파 문구가 크게끔 된 게 저 양반 도움이 굉장히 커요. 시제품만 만들면 스님이 와서 테스트 해보고 이거 이렇게 고쳐 고쳐 알파 회장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막역한 친구분이셨어요.

- 아까 그 미술 스승 김은호?

김은호 화백.

- 김은호 화백.

선생님이 한국에 두 분이고 일본에 한분 계시는데 각각 그림의 작품을 다 청록화풍이라고 그래서 윤보선생도 김은호 화백 제자거든요. 그 분보다 먼저 청록화풍을 선보인 게 저 분이라 이거죠.

- 무슨 화풍?

청록화풍. 지금 저 분 그림은 일본에서 책정된 게 1호에 얹서 한 장 사이즈 80만엔 사이즈에 책정이 돼있어요. 우리나라 돈 1000만원이죠.

- 그러니까 좀 무식하지 않아야...

한번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라는 그 책을 사서 읽어 보시면 내가 지금 한 얘기가 중간 중간 어떤 내용이구나 금방 그리고 그거는 소위 말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당신의 정치적인 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야. 이제는 왜냐하면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그러면 지금 여기 성리암에는 무슨 어디 조계종 말사라든지.

옛날에 ○○○이라고(녹음상태 불량) 있었어요. 이름만 등록하고 내는 게 있었는데 그게 4년 전에 조계종 전면 기부 안하면 내 이름 쓰지 마라. 근데 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아웃 그게 상태로 일당 스님은 미륵종의 종적으로 취급을 하셨어요.

- 미륵종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도 350개의 종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감리교 뭐.

- 미륵교의 종정이세요.

저는 조금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정도만 말씀드려도 굉장히 큰 수확인데.

- 네 바쁘신데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7 무형문화재 대금산조의 산 증인

- 이생강(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
●
성북동에 우리나라 대금산조 분야에서 시대의 명인 ‘이생강 대금산조 전수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죽향(竹香) 이생강(李生剛) 선생은 1996년 12월 10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세계각지에 국악을 알리는 일에 일생을 바쳐 온 ‘예인(藝人)’중의 예인이다. 우리나라 대금산조(散調)는 20세기 초 한숙구(1849~1925)·박종기(1879~1941)가 처음 연주한 이래 한주환(韓周煥), 한범수(韓範洙)를 거쳐 이생강으로 계보가 이어진다. 경남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를 원적으로 둔 이생강 명인은 일제 강점기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의 천부적인 ‘부는 소질’을 알아본 아버지(이수덕 · ~1975)의 손에 이끌려 처음 ‘피리’를 잡은 뒤 국악 예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해방되던 해에 부산에 정착하여 본격적인 국악인으로서의 수련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그의 일생에 최대 전환인 당대 대금산조 최고 명인인 한주환(1906~1966)과 사제의 연을 맺은 사건을 맞는다. 어린 이생강의 단소 소리에 반한 한주환은 자신의 문하에 입문시켜 ‘죽향’이란 아호까지 지어 주었다. 이생강의 연주는 당대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전수된 것을 보존하였을 뿐 아니라 대금·소금·단소·피리·쌍피리·통소·태평소 등 전통 즉관악기를 모두 통달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민속악의 계승과 발전에 굵직한 궤적을 남기고 있다. 그가 걸어온 국악인의 길을 함께 더듬어 보자.

고지수

대금산조의 산 증인

일 시 : 2015년 1월 14일 목요일

장 소 : 성북동 이생강 대금산조전수소

구술자 : 이생강(중요 무형문화재 제2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인터뷰 진행 : 박수진, 백외준

— 선생님께서는 대금산조 예능보유자로 되어 계신 거죠?

네….

— 1996년에 되신 거죠?

원래 1992년도에 준 문화재로 되어 있다가 1996년에 됐죠….

— 대금산조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거는 1980? 70몇 년도 엔가 되었을 거야… 왜 그런가 하면 대금산조가 우리선생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주환이란 분이신데… 같이 또 시나위란 대금 부는 분이 강백천이란 분이 우리 선생님보다 여섯 더 잡셨고 더 오래 사셨어요. 82년도엔가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86에. 유파가 두 개 있었어요. 제가 배운 산조가 뭐랄까… 전통이라 그럴까. (기침) 그런데 강백천이란 분은 당대에 그때 그 시대 처음 만들 때 문화재가 되셔서 돌아가셨고 우리 선생님은 문화재란 제도가 없을 때 돌아가셨고… 산조란 음악은 내가 아마 시초가 될 거야. 과거 선생님들은 산조가 아니고 시나위란 음악이거든. 시나위란 거와 산조의 내력은 노래 같으면 장조가 없는, 단조만 가지고 하시는 분이 시나위. 그렇

게 잡고. 옷대 옷대 우리 선생님 옷대 위 선배들은 옷대 선배들은 장조, 단조 모든 걸 통합해서 하나를 이룬 것이 산조라고 합니다.

- 완성된 게 선생님 대에 와서 된 건가요.

옷대 선생님들은 그렇게 산조를 해 왔고, 아까 말씀 드린 강백천이란 분은 옷대 선생님들을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훌륭한 분이시죠, 강백천이란 분이. 강백천이란 분은 남원출신이고, 1898년생이고, 우리선생님은 1904년생인데 우리 옷대 선생님은 한숙부라고, 한성준, 본명은 한성준인데 1849년에 출, 1925년 졸하셨죠... 돌아가셨고. 강백천 선생님은 육자배기란 음악을 가지고, 육자배기는 한스러운 음악인데, 산조음악을 만들었어요. 대단히 훌륭한 분이지요.

- 선생님은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에 오셔서 주로 부산 피난시절에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셨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분들에게 배우셨는지요.

원래 나는 부는 악기를 5살에 시작해서, 단소소리, 대금은 좀 길 짧아요 여덟 살 때부터 배웠고. 부는 악기를 다섯 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친이 자동차 사업, 운수사업을 하셨는데, 열 살 때 일본으로 가셨거든요. 우리 선친은 고향이 울산이에요. 거기 대나무 밭이 있었는가 봐. 삼대독자고 하니까 친구도 없고, 형제간도 없고, 그러니까 대나무하고 풀잎이라든지 ...부는 거는 못 부는 게 없었어. 근데 프로는 안하셨어요. 직업은 아니고. 무조건 부는 걸 좋아하셨어. 근데 아무래도 거기는 일본이니까... 우리 집이 동경에서도 컸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나았고, 자동차 제조회사에 책임자 되는 사장의 양아들로 들어갔어요. 기술을 배우고 운수업도 배우고 그랬지. 차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공부를 다 하셨는가봐.

새벽 한시쯤 된 거 같애 그 때 당시에. 화장실에 가는 길에 아버지가 단

소를 불고 계시더라고. 그때 어린나이에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어서 내가 눈물을 닦아 드리고 단소를 뺏아서 내가 불어 본 것이 시작이 된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뺏아서 아버지가 당장 그 이튿날 나를 데리고 일본에 아사쿠사라는 곳에 일본인이 가르치는 학원엘 데려가서, 일본 악기는 우리나라 악기 통소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다섯 살짜리가 무슨 악기든 소리를 잘 내고 하니깐 그 가르치는 사람 말이 ‘이 아이는 천재니까 앞으로 부는 것만 가르쳐라’ 그랬는 가봐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부터 아버지가 부는 악기는 뭐든 관악기든 서양악기든 다 사주더라고. 입만 대기만 하면 소리가 나. 어찌된 판인지. 사실 아리랑 같은 건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음악을 대놓고 하진 못했어. 사실 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조선사람 행세를 안 하고 일본사람 행세를 했어. 그래야 기술도 배울라면서 그랬지. 편법상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릴 때 일본말 하고 그랬지. 그런데 아리랑을 부시더라고…내가 아리랑을 불면 아버지가 ‘조용히 해라’고, 일본말로. 왜 그러냐고, 신나서 부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나중에 이야기를 해 줄 테니까… 그랬어. 나중에 도라지도 가르쳐 주고, 봉선화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이후에 해방되어 나왔는데, 이후에 2년 동안에 친일파로 몰렸어. 아버지는 부산에서 최고 갑부였어. 자동차가 18대가 있고 집이 백 몇 십 채 되니까 부자죠. 일본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제 죽을 테니까 빨리 들어가거라, 내가 지키고 있을게…’ 일본 사람들 집을 백 몇 채 지을 돈이 있어서 살았겠어요? 우리가 나오기 전에 아버지가 해방 2년 전에 미리 들어와 계셨어요. 자동차 제조를 하다보니까 정보를 빨리 아셨는가봐. 남양군도 일본군들이 망한다, 중국에서 철수한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다 전쟁에 진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 나와가지고 지금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바로 옆 거기에…우리

집이 바로 국제시장 옆에 보수동이고, 그 바로 옆에. 거기에 매일 마적단들이 와서 독립운동가라고 그러면서 독립투사라면서 도둑질하고...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 독립 운동하던 사람들이 만주서 군인들이 안 되면 마적단이 돼. 마적단. 말타고 산적같이. 밤만 되면 내려와서 돈 내놔라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어도 현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현금이 있나. 해방 되서 무슨 돈이 있어. 돈 내놔라 하니까 새벽에 도망을 갔어. 야반도주를 한 거야. 포항으로. 외갓집이 있었어... 포항 죽도란 곳에... 그곳에 있다가 6.25사변이 났어. 나는 전쟁을 두 번 겪었어.

그때 11살때 포항을 가서 동해 별신굿 문화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남해 별신굿, 동해 별신굿, 서해 별신굿이 있거든? 고기 많이 잡아서 만선하라고 별신굿을 하는데, 동쪽에는 김석출이라고, 그 분이 첫 우리 아버지 제자이지. 나이는 많아도 내가 아저씨 아저씨그래도, 해도 부는 건 내가 더 잘 부니까. 지금도 그 분 조카들이나 사위들이나 현재 강릉 단오제에 그 분 친척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 분이 태평소를 배웠고. 또 포항에서 족적을 남기고. 건어물을 실어서 어딜 갔느냐 하면 전주를 갔어. 군산도 없고, 길이 안 났을텐데, 우리 아버지가 전주역에 앞에 옛날에 풍남동이라고 있었어. 역 앞에서 차를 세워가지고 건어물을 밑에 싣고, 팔지도 않고 그 위에 나를 세워서 불라고 했어. 태평소도 불고 피리도 불고. 열한 살 먹은 놈이 태평소 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모이는데 보니까 동전 던지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아버지한테 기분이 안좋아서 왜 사람들이 날보고 동전을 던져 주냐고 물어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팁을 준다. 잘하니까 동전도 던져주지 못하면 주지도 않는다. 감사히 받아라.” 이러더라고.

고기는 안 팔고. 돈만 버는 거야. 첫날에. 8월 달이었거든? 내가 운동모자를 썼다고. 밑을 쳐다 보니까 옷을, 승복 비슷한 두루마기에다가 콧수염이 났는

데, 얼굴이 새카맣고 아주 긴장한 분이 일본 사무라이 칼을 차고 있는 거야. 대검을 길게. 야, 조선에도 사무라이가 있구나, 쳐다보는데, 아버지가 나를 데려다 인사를 시켰어요. 선생님이라고 인사하래. 그때 두루마기 속에서 꺼내보니까 대금이야. 내 대금은 작았거든? 아버지가 그분한테 인사하라고 해서, 알고 보니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께서 ...그때가 1947년거든? 그때 선생님이 1904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마흔 세 살인가 넷인가 그랬거든. 그때 선생님이 할아버지 행세를 하더라고, 조혼을 하니까. 선생님이라 부르라고 해놓고도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도 해. 우리 아버지가 그분보다 두 살 더 잡셨거든.

그 옆에 삼거리 왼쪽에 보면 순대국 파는 데가 있어. 거기 가서 보니까 여인숙도 있고 장돌배기도 있고. 거기 한 4,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한 20평 되는 방을 빌려서 그날부터 대금산조라는 음악을, 다른 거는 다 아는데, 쉽게 말하면 경기쪽 음악은 길지 않다고. 가요처럼 길지가 않아. 2, 3분 정도밖에 안 길어. 근데 이거는 뭐 대금산조라고 가르치는데, 산조중에 장르가 시나위라고 수 천 년부터 내려온 음악이 무성악으로 흘러 내려오다가 2, 3백 년 전에 판소리 음악이 생성되었을 때, 그때 시나위라는 음악을 바탕으로, 시나위란 신을 모시는 음악이야. 그때 유불선이 없었을 때 해와 달이나 대 자연을 숭상할 때 신을 모시는 음악이 시나위란 거야. 시나위라는 음악이 구전돼 내려오다가 우리 대에 와서 우리 웃대 선생님들이 판소리란 곡이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가 있어. 장단 이름이에요. 박자 이름이라고.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사람들은 동화가 잘 되고 인텔리라는 사람들은 식당이라고 하면 저질스럽게 보고 같은 곳이라도 레스토랑이라고 해야 높게 치잖아. 그렇게 키웠어. 일본 놈들이 36년 동안에 우리 문화를 말살을 하려고 모든 것을 폄하시켰다고. 거기다가 여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국악이 두 가지가 있는 걸 아십니까.



인터뷰 중인 이생강 명인의 모습

— 국악, 궁중음악, 민속악….

궁중음악, 민속악 두 가지 인데, 궁중음악은 국가가 잘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해가지고 거기 나온 95% 사람들이 지금도 각 학계에 포진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민속악은, 실상적으로 우리 생활에 서울말, 전라도 말 하듯이, 각 지역에 방언, 사투리가 있듯이 음악도 자생적으로 생성됐다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음악을 농요라고도 하고, 어부요가 있고, 가요가 있고, 각 지방 국악이라 하면 각 지방 8도에 있는 방언을 근간으로 발생된 것이 8도 음악이란 말이지. 그게 총 망라해서 개척된 것이 민속악이란 말이지. 가무악이라고 하죠? 노래와 춤 음악…그래서 그 음악이 너무 방대하다. 그 음악이 절대로 책에 나와 있다던지, 국가에서 예산도 없지만은 국악원이란 국가에서 국립국악원이란 것은 왕의 음악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음악이 대부분이 사대를 하던 사람들이라서, 외침을 많이 받고, 대국이든지 몽고든지, 강한 나라가 와서 다 잡

아가서, 다 수탈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게 모두 없어졌단 말이야. 국립 국악원 음악이란 그분들을 위한 음악이란 말이지. 뺏기기 바쁘잖아. 그 당시. 그 음악 자체가 다 왕의 음악으로 나온 것이 국립국악원이란 말이지. 근데 그 걸 위정자들은 모르잖아. 우리 국악이 뭔지. 별 관심도 없어. 그런데다가 50년대 6.25사변이 나잖아요. 전쟁나니까 누가 들어왔습니까. 16개 나라 참전국이 들어왔어. 문화가 물밀 듯이 쏟아지는 통에 우리 음악이 앉을 자리가 없어진 거야. 그 이전에는 일제시대 말살정책으로 산에 말뚝을 박고, 음악은 남자들은 아예 못해. 안중근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럴까봐 사람들을 못 모아. 모을 수가 없어. 남자들은. 그러니까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하로 다 숨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가진자들이 농촌에서 풀피리나 불고. 선배들이 하던 음악이 민간 음악이나 불면서 좋아하는 음악들, 대나무 꺾어서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부는 게 민속음악이란 말이야. 이런 것은 정립이 안 돼 있어. 오늘날에 이걸 이걸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야. 나의 역사를.

오늘 중요한 말은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이 바보는 없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리 시대를 따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랑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모든 첨단 길을 이생강이는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다 자기 자랑밖에 안된다고 해. 왜, 전부다 첨단이니까. 자랑을 할라고 하고 싶어도 역사를 이야기를 할라고 하니까 나 밖에 없는 거라.

일본 놈들이 여자들만 번호를 쥐가지고 생활을 해야니까, 술집을 내 보는거야. 온천장이라던지 사람 모이는 관광지에는 권부인이라고 해서 번호 쥐서 여자 분들이 가야금이나 장구나 노래하는, 전라도 판소리도 있을 것이고 각 지방 노래가 있잖아. 각 지방마다 노래하는 사람들, 권번을 쥐서 하는데, 일반인은 그거를 기생이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안 본 사람들도 지금도 가야금 들

고 있으면 기생이다, 그래. 경상도 지방이 특히 더 그래. 일본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았거든. 정말이야. 그래가지고 장구 들고 대니고, 가야금 들고 대니면 공연할 장소가 그제 밖에 없잖아. 남자들은 일체 못 들어가지. 가면 저격할까 싶어서. 남자들은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구전심수(口傳心授)라 하는 거야.

나는 운이 좋은 것이, 내 자랑을 좀 하면 큰일을 좀 했는데, 그때 선생님들 스물세 분 중에서 19명이 부산에 다 있었어. 피난을 다 오셨단 말이야. 용두산 공원이라고 보면 둘레 작은 동산 하나인데, 그 옆에 박스를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한 번씩 자는 거야. 바람 불고 그러니까. 바람만 안 불면 춥지 않은데, 바닷바람이 부니까 춥잖아요. 거기에 웅기종기 사시는 바람에. 제가 거기서 그분들에게, 나중에 보니까 다 최고 분들이란 말이야. 피리, 대금, 소금, 단소, 통소, 태평소, 상피리, 부는 악기는 입만 대면 다...그분들에게 귀중, 소중한 것을 그때 다, 그때 열 네 살, 다섯 살 때니까 다 입력을 시켰어. 그때. 지금까지도 그 악기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올라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운동도 되고, 그렇게 해왔죠.

- 배우실 때 눈으로 보시고 기억해서 배우신 거죠.

그렇지. 아니지. 우리 민속악은 책이 없었어. 제가 책을 만들고, 뜻있는 판소리 하는 분들. 우리 위에 선배들이, 그때는 공부할 능력이 그때 공부할 능력이 안됐잖아. 옛날엔. 가진자들이나 유학을 가지 그래가지고 위업을 달성했다 할까. 말하자면 자화자찬인데, 선생님들이 남긴 것을 국가 문화재청에다 오랫동안 신청을 해서 금년에 끝냈어요. 영상이나 선생님들 남긴 음악을. 전문분야가 다 틀릴 것 아니겠어요. 피리도 손가락도 틀리고, 음악도 틀린데.

그 중에 우리 민속악 중에서 방대한 민속악 중에서 서울 이남 쪽을 남도 음악이라고 하고, 서울 이북을 세로로 세워서 중국 쪽을 바라보는 것을 서도라, 나머지 함흥 원산부터 시작해서 강릉 포항, 부산까지 동해까지 내려오는 음악을 동부음악이라고 해. 정선 아리랑 이런 게 전부다 동부음악이야. 남도는 충청도, 경상도 하지만, 총 본산이 전라도야. 거기서 나온 음악이 남도 음악이다. 그게 지금 대표로 유네스코 등재돼 있는 판소리도 남도음악이야. 문화재 중에서 전라도 쪽이 제일 많을 겁니다.

－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보존해 온 공이 참 크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한분이면 한분 덕을 보지만 나는 스물세분이니까 많은 것을 듣고 수용을 하고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옛날 선생님들은 말씀이 많지를 않았어요.

－ 선생님께서 대금 독주를 처음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니까, 누가 알아서 독주해달라는 건 아니고, 무용 애들이 춤을 출 때, 애기들이 깡충치마 입고 추잖아. 그 애들이 미군부대를 가는 거야. 반주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피아노로 할 수 없잖아. 내가 여러 악기를 하다보니까 악사들을 많이 부르면 돈을 많이 줘야 하니까, 내가 혼자 가는 거야. 내가 여러 악기를 부니까 혼자 가서도 다 부는 거야. 나 하나면 돼. 내가 제일 잘 팔려. 쉽게 말하면 하루 백 원이면 열배, 열 다섯 배 줬으니까. 미군부대 가서 하는데 옷을 갈아 있을 때 사회가 나와서 나보고 나와서 때우라는 거야. 때우는게 아리랑을 불던지, 민요 가끔 하고. 자꾸 다니니까. 그 다음 제 무대가 끝나면 재즈배운 사람들, 팝 하는 사람들이 그때 유명했던 사람들이 공연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귀에 들어왔어요. 밴드 마스터 이름을 대서

미군부대 가서 연주하고... 맞든 안 맞든 비슷하기만 하면 되니까. 팝송 같은 음악도 듣게 되죠. 그런데 국악계는 5음계잖아.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일본에서 태어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한국 악기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하고 생각해 봤어요. 난 어릴 때 국악 하면서 칭찬만 받고 자랐는데, 성장을 해서 보니까 제일 천한 것이 부는 악기고 국악이야. 내가 차라리 섹스폰이나 불면 세계적으로 케니 지 보다 잘 나갈 텐데, 후회를 했지요. 그래도 당장 돈도 없고 할 수 없으니까 무용반주를 했어. 아는 노래, 외국노래는 외웠다고. 그래서 연주를 하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국내에서 무용 반주하러 계속 다니고 밤 되면 야시장에 나가서 가스 불 켜서 내가 불었다고. 단소도 팔고 그랬지. 최초로 우리나라 리코더가 있잖아, 전부터 레테르 이름이 생강이라고 붙였어. 생강이란 이름은 일본서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 지지 말라고 날 생, 강할 강으로 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로 오니까 이름이 첩피 해. 생강이라고. 지금도 말썽이 많아. 내가 첩피해 죽겠는데. 이 이름은 절대로 바꾸면 안된다. 날 생자에 보석할 때 강 자야. 그렇게 살아야 이긴다. 그런 뜻에서 생강이라고 했어.

그래서 열아홉 분께 배우고, 네 분은 그 당시 임출영이라든지 아쟁산조를 만든 한일섭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죽주라고, 국창이란 소리를 들은 분, 그 다음에 김소희 선생이라고 그분들이 대금을 부는 게 아니라 호출을 해 줘. 나는 경상도인인데 전라도 음악을 할라면 전라도 사람이 되어야 돼. 악기는 곡을 하는 거잖아.

악기는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선생님께 남도음악을 배웠는데, 모르겠단 말이야. 산조가 뭔지 알 수가 있나. 18년 동안 선생님 밑에 있어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임출영이란 사람을 만나서 반주를 하면서 서울을 왔다갔다 하면서 그때 전라도 이리, 지금 현재 익산이야. 그때가 66년돈 줄 알고 있는데,

익산에 그때 당시 이리라고 했어. 중앙동에 여관에서 자는데, 머리맡에서 애기들이 양지바른데서 놀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문을 열고 고함을 질렀어. 시끄럽다고, 왜 그러냐고 하면 피곤하잖아. 공연을 하니까. 애들이 옆에서 ‘그렇지, 이~응. 그렇지 응… 그래 이~ 그래 이~이~이~.’(소리) 이게 판소리구나. 그때 깨달았어. 18년만에 깨달았어. 이게 산조구나! 전라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는데, 산조란 게 무엇이나. 판소리가 뭐냐 말이야. 그때 아, 애기들의 사투리 방언을 쓰는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서양음악은 직선률이잖아. 도미솔도솔미도레미 이렇잖아. 그런데 우리 음악은 둥글터란 말이야. 반원형으로 돼 있어. 지금도 전라도는 음이 휘어져 있어. 그 음이 전부다 단조구나. 판소리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때 득음이란 것을 해도 음악이란 것을 안 거야.

그 다음 프랑스, 1960년에 4.19년 해에 허정이란 사람이 국회의장을 했어.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4.26에 하와이로 망명을 합니다. 5.27일날 프랑스가 여의도에 와서 33명을 태워서 가요. 그중 한 분이 지금 태평무 예능보유자로 계시는 강선영(1925~)이예요. 이분들이 같이 갔고 나는 악사로 갔어. 반주자로. 악기를 여러 가지를 하니까. 다 갈 필요가 없잖아요. 부는 것은 내가 가고, 현악은 리틀엔젤스 안무장이 아쟁이란 악기도 제작을 하고, 우리나라 무용음악계에선 대부야. 그분이 선생으로 춤추는 음악은 무조건 음악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사람이라도 음악이 달라져. 반주라는 게 같은 음악이라도 날씬한 사람이 출 때에는 음악이 간드러지고 좀 통통한 사람이 출 때에는 음악을 무겁게 해야 하는 것이 원리가 맞더라 말이야. 발란스가 맞아야 한다 말이야.

그때 춘향전을 가져갔어. 춘향전이라고 하는 무용음악이 갔어. 춘향가를 테마로. 반주를 뒀는데 그때 안나영이라고 나보다 네 살 위인데, 스물 여섯

살때야, 그 분이 유명한 영화배우였는데, 그 분이 유일하게 쌍꺼풀이 지고 서양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 춘향이가 둘이 갔는데, 하나는 춤 잘 추는 분이 하고, 하나는 안나영이가 얼굴을 내밀었어. 근데 갑자기 맹장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다음 공연을 해야 하는데 다른 분들이 모두 땀뺑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바람에 단장이 13분 동안 무대에 나가서 시간을 벌어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찬스를 갖고 내가 첫 무대를 썼지. 대금산조를 알리게 되니까 난리가 난거야. 통신마다. 왜, 코리아라는 나라가 조그맣고 전쟁만 있는 나라에 청나라 음악이나 일본음악만 있는 줄 알았지 산조라는 음악이 깊고 깊은 민속악이 있는 줄 몰랐던 거야. 그 후 유네스코에서 사람들이 와서 대금 속에 무슨 장치가 되어 있는지, 왜, 온갖 그 속에서 자연의 소리가 다 나오니까 내가 또 잘 불렀으니까. 그대 도대체 무슨 장치가 있길래 그런지 궁금했던 거지요. 그때 유네스코에 이생강 이름이 등재가 된건 아니고, 벌써 55년 전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갔지. 녹음을 해가지고. 최초에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음악을 소개한 사람이 이생강이다. 이게 역사에 남은 거고.

둘째는 내 자랑을 하면 퓨전, 크로스오버라고, 우리나라 악기를 하게 된 동기가 내가 제일먼저 뛰어 들어서 일본에 가서 1960년 초에 SP판이 LP판으로 바뀔 때 도시바에 가서 취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해서 갔지. 내가 한다고 되는게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국악만 하면 안팔리니까. 가진자들이 돈 있으면 하고, 옛날에 레코드 음반은 축음기 팔라고 이름 있는 사람들 골라서 한 거고. 국악을 할 수가 없지요. 기회가 없고.

일본에 초청가서 공연을 하러 갔는데 취입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몇 십만개 팔리더라고, 그거를 김용만이라고, 살아있어. 지금도. 그 양반이 그 소리를 듣고 이거 한국 와서 취입을 하자고, 그래.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대중없는 예술은 없다, 대중에게 우선 알려야 겠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목포의 눈물,

두만강, 황성옛터 그걸 가수처럼, 반주 대서 취입한 걸 수백 만장 팔린 거야. 그때가. 그 유행은 뭐 카세트로 해서 팔고. 현재 내가 레코드 찾아보니깐 이 백장도 채 못 찾겠는데, 내 기억엔 한 600장도 넘어. 내 레코드 나온 게. 씨디 이런 거 합해서. 그래서 그게 팔리니까 너도나도 각 레코드 회사에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달라.

그다음에 우리 날 춤추는 사람이, 무용가들이 음악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한국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부채춤 하나 칠라 그러면 악사들 6인조 데려 갈 라면 4, 5 백만원 줘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하겠어. 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카세트를 레코드 회사에서 내가 돈 취입료 받고 음반을 했습니다. 무용가들은 나에게 감사하다 하겠죠. 많은 돈을 들여야 발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용음악을 할라면 가야금도 하고, 현악기도 불고 했죠. 서울 경기도 음악은 피리가 대단하고, 남도음악은 대금이야. 지금 편곡하듯이 자연히 음악 듣고 하는데.

지금도 99%이상이 해외 나가면 한국예술단이 민속예술단입니다. 나라에서는 몰라요. 국악에 관심이 없으니까. 영어로 해야 알지, 이 나쁜 인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우리 것을 몰라. 좀 아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대통령이, 2007년 4월 5일, 숙정문 오픈할 때 내가 했어요. 황지우라고 한예종 총장이 시 넣고, 내가 대금 불어서 노무현대통령 있을 때, 성북구청장 서찬교, 종로구청장, 식목일날, 이생강이 대금 불어 '산천은 울린다' 연주해서 오픈했어. 내가 행한 거는 많아요. 이후에 단 하나 답답한 거는, 공연을 많이 다니니까, 쉽게 말하면 약방에 감초같이 내가 어테를 안 들어간 데가 없지. 서양음악이나 가요나 5음계가 7음계를 어떻게 커버를 험니까. 안나오는 음을 테크닉으로 조작을 해서 살짝만 넘어가고, 듣는 사람이 안 들리게끔 해 온거지요.

우리 한국음악으로 대중에게 근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고. 오늘

날도, 그저께도 전국 종교, 기독교 신우회 모임에 내가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불교가 됐든, 유불선을 넘나드니까, 한 날 꿈을 꿔는데 예수님이 흰옷을 길게 입고 십자가를 지고 산을 내려 오시더라고, 그 다음에 5,6일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와서 찬송가를 해 달라고 해..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기독교음악에 박봉조 선생이라고 있어. 연주 함 해주면 재미가 없어. 찬송가는 가곡처럼 한계가 돼 있잖아요. 잔가락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없어. 내 기능을 발휘할 일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근데 꿈에 나왔고, 염려는 스님들이 나 안 부르면 먹고 살기 어려운데, 찬송가는 많이 줘야 거마비 50만원 밖에 안 줘. 그래도 난 종교인은 아니지만은 우리 것을 이분들께 한사람에게라도 알려야 겠다, 서양음악만 아니라 우리 것도 좋은 것이 있다, 알려야 해서 그것 때문에 찬송가 연주를 했어요. 그 분이 주문을 해 놓고, 행방불명돼 버렸어. 현재까지 그 후로 종교음악은, 그렇게 됐지. 찬송가 음악은 두 장 났지. 앞으로 모르죠. 어쩔지 모르지. 우리 음악 가지고 했다, 반주는 대금, 피리를 가지고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한국예술단 단원으로 해서 나가서 독주를 하게 되고, 반주도 하고, 그렇게 나왔지요.

- 지금 하고 계신 역점을 두고 계신 사업은 어떤 것인지.

사업을 해도 음악을 하고 싶은 건 많아도 경제적인, 재정 뒷바침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책 한 권을 내더라도 다른 사람은 한 권을 내도 나는 7권을 내야 하거든. 내 책 나온 것이 7권인가? 교본도 만들어야 되고, 역사적인 거,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그때당시 시나위, 산조 12곡을 120분되냐? 독주곡이 한 시간 넘는 것은 드뭅니다. 독주곡이 한 시간 넘는 것이 없어요. 대금산조는 세 시간이 넘는 거야. 담을 데가 없어서 두 시간 짜리는 나와 있어. 곡 하나입니다. 곡 하나가. 그릇을 담아 보니까 무궁하다. 끝이 없다.조를 바꿔보고 하니까. 그

러다 보니까 가요도 하게 되고 재즈도 하고, 악기란 누가 하든 원형을 잊어버리고 하게 되면 공격해라. 나를 능가할 수 있으면 피리든, 태평소든, 무슨 악기든 나를 능가할 수 있으면 해라. 자신있으니까. 어떠한 음악이든, 나는 지진 않는다 이말이야. 난 그만치 노력해 왔다 그 말이야. 내가 30년전에 풍이 왔을 때 대금을 못 불었어. 입도 돌아가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선생님들이 남긴 것 뿐만 아니고, 내 시기에 남을 걸, 내것을 남겨야겠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니까. 떠들기만 떠들지. 문화나 해도 외국에 나갈 때 보면 아리랑만 하지.

전국 피아노연합회에서 단소를 배우고 싶다고 해. 왜? 자기들이 해외 가서 피아노를 옮겨갈 수 없으니까 이태리 가서 로마의휴일 나올 때 나온 샘, 광장, 그런 모임에 가서 연주하는데, 오카리나를 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나라는 당신네 나라 악기가 없습니까’ 하더라. 부끄러워 가지고 가서 얼른 뭐라도 하나 배워야 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단소를 배우겠다고 해서 내가 가서 몇 십명 모아가지고 광주에 가서 강의를 해 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자랑할라면 국외 가고, 국내 들어오면 찬밥이고, 인간 문화재라고 하면 현재 기능 쪽에도 같은 기능을 가진 인간문화재라도 솔직히 저녁거리가 없고, 그런 사람도 있고, 부자가 돼서 몇천억 번 사람들도 있고, 화살통을 맨든다, 전통을 만든다 하면 누가 사나, 사실 앓는데, 우리같이 대금 연주를 하고 다녀도 내가 지금 수백억치를 만들어 났어. 지금. 이거를 자라나는 아이들이 조기 교육으로 시키지 않으면, 해외 나가서 나하고 안숙선이하고 정명훈이 공연을 하면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역대 대통령이 돼서 우리 것을 말만 해 놓고 우리 것이 있으니까 문화민족이라고 말만 해 놓고 국악이라고 국립국악원으로 지원으로 다 돼 버린다 말이야. 민속악은 어려우니까, 그 과정이. 어려워도 기초부터 가리키면 나중에 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안 하고, 쓱 넘어가버리고. 앉아서 교수님 딱 돼 가지

고 휘방이나 놓고 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어. 이웃 논사면 배아프다고.

여하튼, 잘못된 것은 문화재를 뽑든 예능 보유자를 뽑든지, 기능 쪽을 뽑든지 전문가가 심사를 봐야 할 것 아니야. 학자들이 간판을 가지고 교수들이 말이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깊이 들어와야 하는데 수박 겉핥기해가지고 국립국악원 분들은 서양음악도 같이 간단 말이야. 음악 자체가. 악보도 5선으로 그냥 갑니다. 민속악은 그렇지 않아요. 토속마다 말 방언이 틀리듯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음악 자체가 아주 아기자기 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내가 산조를 잘 안 하고 팔도 아리랑을 해요.

- 대금 연주 -

서양음악이나 한국음악이나, 가요, 동요나, 우리 음악같이 좋은 게 없어. 세계음악에 안 빠집니다. 근데 왜 폼하를 하고, 그러니까. 서양음악이든지, 서양예술, 가곡, 이런 것도 연주가 가능해요.

- 대금 연주 -

문화재 몇 분만 빼놓고 나면 얼마 안되요. 몇 분만 빼놓으면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국가가 보조해주는 것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지원만 해주는 거야. 국가적으



이생강 명인은 인터뷰 중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대금 연주의 시범을 보였다.

로 국격도 높아지고 그러면 국가가 국악을 위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댓가가 있어야지. 아무 보상없이, 내가 70년 넘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모아 놓은 것도 보상도 없이 봉사차원인데, 이래선 안된다. 노벨상도 상금 적으면 노벨상이 아니잖아. 가치관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민속악은 귀한데 국립국악원처럼 제도로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학계에 가만히 앉아만 있고. 우리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악기 하나 들고 세계를 다니는 건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가나요. 올라해야 가지. 초대할 때 까지, 내가 성북동 산지가 82년도에 왔는데, 성북문화원은 처음 온 거예요.

— 성북문화원 팀이 생긴지 2년이 안됐습니다. 향토사 연구팀이 생긴지가 오래 안 되서 올해는 무형문화재를 찾아 남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이 처음 대상이신 거죠.

유형문화재는 아시다시피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잖아. 그러나 무형문화재는 사람 죽고 나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능쪽에는 벌써 문화재라고 해서 잘하는게 아닙니다. 계보가 어떻게 배워왔느냐. 양자인가 입양인가. 정식으로 적자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바로 배워서 없으면 양자로 끌어 들어서 데려 앓히듯이, 우리는 위에 위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많아. 악기 7개 입에 대고 있으면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나한테 기자가 인터뷰해? 공연에서 인터뷰를 해? 불과 몇 시간 앓아 인터뷰 할 수 있냐 말이지. 지금도 악기를 갖다 놔 놓고 불어요. 집에 놔 놓고. 불고 그래요. 안 하면 안돼.

— 요즘에도 연습하십니까.

하지요. 안 하면 안되지. 손이 굳어서 안 되지요. 지금 모든 것이 복식 호흡으로, 자연히 조기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단소들 가져와봐. 오늘 왔으니

까 선물로 싸인을 해서 줄게. 단소 PVC로 만든 거, 오죽대나무하고, 단소 세 개
씩 아홉 개 가져와봐. 두 시에 차로 강화도를 가야돼. 레슨이 있어.

-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좋지도 안해요. 일어서다 넘어져가지고.

(단소 시범 보임)

PVC 단소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부천에서 세계유네스코 대회가
있었는데, 내가 홍보 대사야. 그 때 아이들한테 가르쳐줬어. PVC 단소로. 애들
이 다 소리를 내서 가져 갔어. 애들이 다 좋아하지.

국립국악원은 이렇게 가르쳐. (단소 잡는 법 시범). 요렇게 잡으면 애들
이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 민속악은 이렇게 해야 해. (단소 시범).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동요도, 노래도. 다 할 수 있어. 요즘 애들이 공부만 하지, 검판사
된다고. 우리 음악은 안 듣잖아. 심성도 차분하게 콘트를 되는건데. 요거 하나
씩. 우리 문화원에선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이걸 갖는다는 것보다는 이
런 악기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내가 할 것은 우리 민속악 복습이 되
야 되겠다. 전문자를 양성할 수 있는 지도자이 되어야 하고 학교가 국립이든
사립이든 하나 있어야 겠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살아 있을 때 되기 어려워. 내
가 성질이 급해서 하다보니 빗만 늘었어. 보급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나라 악기가 이런 소리도 낸다, 골방에 쳐박아 놓지 말고. 어떤 분이
교포인데, 할머니가 일본 절을 가지고 있어. 내 아는 사람이 이걸 가져가라고
해서, 이양반이 안 갖고 있다가 차에서 틀어봤대. 80넘은 노인이 그 소리가 너
무 좋아서, 안듣고 편하할 것 아니라, 서양음악을 좋아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

는거지만, 우리 것을 다 해 보고 그래야지.

(선생 공연 담긴 테잎 싸인해서 줌)

책은 따로 있어. 초보들 용. 이걸 이렇게 붙어야 돼.

(시범)

소리가 다 나게 돼 있어. 몇 번씩 연습하면.

(이생강 선생님 연주음반 선물로 주심).

문화원도 그래요. 누가 되었든,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말릴 사람 하나도 없어. 속으로 내가 안 좋아한다는 것 뿐이지. 우리나라 음악이 저변확대된 것 같지만 실상은 안됐다고. 대중들이 전부다 알아야 하는데, 학교에서 배워서 나가면 관악대에 몇이나 나가지.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자꾸 퇴보되지. 이 악기를 가지고 어떠한 곡도 연주할 수 있게 해야 돼. 그런데 사실은 안돼. 궁중음악만 해야 돼? 귀족음악이지. 청나라 음악이지 우리 음악이야? 결국 현재, 내가 한 마디 하면은 신문에 할까 하다가, 내가 참았어. 내가 입을 열면 모든 사람이 옷을 벗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국악이 또 퇴보해. 단지 그 속에서 자생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나 혼자 떠들어야 소용이 없지만 알리긴 알려야 겠다, 나 혼자라도 알려야 겠다. 지금 안 하면 여러분이 배워온 것은 잘못됐다고 보다 궁중 음악입니다, 내가 이생강이가 하는 것이 국악이다. 내가 강연할 때는 하지. 단소도 이렇게 배울 수 있게끔 되어, 클라리넷을 붙든지 해야지. 서울 교대 가서 한

번 얘기했는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나 보고 대학원 원장이 안 천이야. 선생님, 문제제기 하실랍니까. 그래. 그 분들이 다 알아 듣는데, 나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궁중음악은 이렇게 하고 민속음악은 이렇게 한다, 말했지요. 제도가 돼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해야 편해. 여러 가지 해야지. 애들이 기초로 단소를 배워야 대금도 할 수 있고, 피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거를 없는 것 같이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건 그렇고 지금 솔직히 말해 98%이상이 그분들이 관현악단 다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화성악이 아무리 5음계로 해봐야 서양음악을 따라 가지 못합니다. 세계각국나라 없는 곡이 없어요. 보면은... 재즈든지 대니보이든지, 뭘든지, 우리나라 악기로 들어 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야지.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어디 가서도 그래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나라 음악도 세계적이라고. 그리고 또 나 정서적이라든지 군인들도 교양이나 윤리 도덕을 안 배워도 이런 음악을 조용히 앉아서 아리랑 하나를 불어도 마음이 차분해지잖아. pvc로 하나 사서 국방부에서 사가지고 단소라든지 비싸지 안잖아요. 4년전인가 올려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내려왔더라고. 내가 기어코 관철을 시킬라고 있는데, 12월 22일 국방일보에 나와 있어요. 거 보면은 국방부에 들어가면 그게 있어요. 군인들이 위계질서도 없고, 인성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거 하나만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원에서도 협조를 해 주세요. 우리 것이니까.

- 네 잘 알겠습니다.

8 무형문화재 선소리 산타령의 맥을 잇다

- 이건자(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전수교육조교)

●
●
선소리산타령은 조선시대 초기부터 전래되어 내려온 우리나라 민간음악이다. 소고를 들고 박자를 치며 남녀 10명 내외가 서서 함께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서서 부르는 노래라 하여 ‘선소리’라 했고, 팔도 유명산을 모두 가사에 표현하였으므로 ‘산타령’이라 한다. 선소리산타령은 대개 깨끗한 목소리로 힘차게 질러내는 높은 음이 많이 쓰인다. 그리고 발성 소리 자체가 박진감이 넘쳐흐르면서 씩씩하고 멋을 풍겨주기 때문에 흥을 한층 돋구어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되었다.

2005년부터 성북문화원 문화강좌 ‘선소리산타령’반을 개설해 지도하고 있는 이건자 선생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기능보유자 황용주 선생으로부터 소리를 배웠다. 2003년부터 성북구에 국악전수소를 개설하여 일반인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고 알려왔으며 2012년 선소리산타령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되었다. 2013년 11월 5일 이건자 선생을 만나 지금까지 우리 소리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살아온 이야기들과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참고로 올해 개설 11년째를 맞이한 성북문화원 선소리산타령반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에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서울문화원연합회 주관하는 「2012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 국악 부문 대상을 타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백외준

선소리 산타령의 맥을 잇다

일 시 : 2013년 11월 5일

장 소 : 성북문화원

구술자 : 이건자

인터뷰진행 : 강성봉, 백외준

－ 일반 사람들은 선소리산타령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선소리산타령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선소리산타령은 한 명 한 명 부르는 소리도 있겠지만, 여러 소리꾼들이 서서 소고를 들고 간단한 율동을 하면서 부르는, 각 지방의 명승지 가사가 다 들어가 있는 산타령입니다. 옛날에는 서서 하는 소리, 좌창(坐唱)하는 소리로 나뉘져 있었기 때문에 선소리산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나 놀이마당 할 때 흥겹게 여러분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서서 율동하면서 재미있게 하는 소리입니다.

－ 선소리산타령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잘 계승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민요나 타령하고 비교해서 선소리산타령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어떤 것입니까?

네, 그렇죠. 다른 경기 민요는 흥겹고 가냘픈 소리로 예쁘게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그냥 리듬을 높낮이 없이 해요. 우리 선소리산타령은 아주 씩씩해요. 높낮이가 강하고 발성도 있고, 받침목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혼자서 하기 힘든 소리죠. 혼자서 소리 힘을 높이는 것은 힘들고 여러 명에서 불러야 상쾌하고 소리가 커요.

- 그러면 선생님께서 선소리산타령을 배우게 된 계기는 뭔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질이 있었어요. 소리만 나오면 좋았어요. 하여튼 아프다가도 음악 소리만 나오면 약 먹은 듯이 안 아프거든요. 아버님께서 경기민요를 잘하시거든요. 아버님 때부터 흥얼흥얼 따라하고 돌아다니다가, 18살 무렵에 전문가에게 배우려고 했는데 안 되었어요. 28살 정도까지 경기민요는 전문가 선생님한테 배운 건 아니고, 아버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부르다가, 소리를 배워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을 때, 우연찮게 판소리 신영희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하고 몇 년 같이 생활하면서 배웠어요.

그때만 해도 소리는, 좋아서 파고드는 사람만 배웠어요. 우리 전통 국악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거기잖아요. 변함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에게 판소리를 배우다가 저하고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몇 년 같이 있다가 어느 계기가 되어서 윤평하 선생님, 그 때 전수조교로 계셨을 때인데 그 선생님하고 인연이 어떻게 돼서 그곳에 가서 남자 선생님께 배우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남자 소리다 보니까 여자 선생님에게 갈까 망설였죠. 그런데 여자 선생님한테 찾아가려고 몇 번 했다가 안 되고 다시 선소리 산타령을 배우기로 했어요. 왜냐면 소리가 너무 단단하고 씩씩하고 상쾌하고 흥겹고 또 여러 명이 같이 어울려서 부를 수 있으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이게 좋겠구나 하고 배웠어요. 그렇게 5년 동안 배우다가 본격적으로 전수를 받으려고 황용주 선생님을 찾아뵙고



인터뷰 중인 이건자 선생님

‘지금부터 입문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때가 1986년이예요.

- 그러면 보통 무형문화재 특히 선소리산타령 제19호 전수, 이수, 전수조교까지 하시면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라오신 건데, 이런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엄격한 도제식 훈련과 교육이 있었을 거 같아요. 선소리산타령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기억이나 에피소드, 추억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지요. 제가 조교까지 올라온 단계에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소리라는 것은 전부 ‘내 것이구나’. 내가 소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도전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그제 아닌 거예요. 대회를 나갔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대회마다 떨어지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공명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때부터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면서 이제 대회 가서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파악해야 되고 그러다보니 세월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간 것 같아요.

처음의 소리가 유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학교 시절하고 똑같아요. 2, 3년 배우다가 우연치 않게 만난 사람이 너 소리 들었어, 또 2, 3년 안 보다가 만나면 ‘너 소리 많이 들었구나’ 또 2, 3년 지나서 ‘이제 소리가 제법 되는구나’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거구나’해서 다시 시작했어요.

힘든 건 욕심이 과해서 그랬던 거죠. 선생님들이 시금새 하시는 것을 들을 때는 나도 될 거 같은데 막상 내가 하면 아닌 거예요. 돌리고 꺾고, 시금새나 숨 쉬는 자리를 정확히 알아야하는데 모르니까 아무데서나 쉬고, 새고, 돌리는데 시금새가 안되니까 엉뚱하게 가죠. 예쁘게 돌려야 되는데 목이 잘 안 돌아가니까 꺾 돌리고,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내가 소리를 안해야 되나 이랬는데, 1년 동안은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세월이 3년, 3년 이렇게 지나다보니까, 사람들이나 어른들이 보시고 ‘노래 들었다’ 하는 그 소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까지 오게 되었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연륜이 돼서 어느 정도 경지가 되어야 따라가는데, 1년 되어서 10년된 그 소리를 하려고 하니 마음뿐이죠. 안 될 때는 포기를 하고 싶었어요.

또 경창 대회를 나가서 욕심이 과해서 내가 일등만 할 줄 알고 갔죠. 그런데 가서 예선도 못 붙고 떨어졌어요. 그때는 하기 싫어요. 내 마음에 안쳐졌을 때, 그때 그만하고 싶다고 한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그만둬야 하지?’ 하면서 선생님을 찾아갔죠. “선생님 제가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뭐가 잘 못 되었죠? 받침목이 안 되고 끝을목이 안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받침목, 끝을목, 건널목 그거를 다 찾아서 선생님한테 여쭙서 될 때 까지 몇 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려상부터 해서 우수상, 최우수상, 장원, 대상 이렇게 올라갔어요.



제6회 국립민속박물관 발표공연

어느 날 대상을 타고 허무해서 한 달을 걸어 다녔어요. ‘이게 뭐 길래’ 생각하면서요. 또 내 후배들, 나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럴 때가 있으니까 요렇게 하면 고비가 넘어간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되면 싫증을 부리게 되니까 요렇게 넘겨라,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어요.

제일 좋았을 때는 대상을 탔을 때죠. 대상은 50명이 경합을 해서 한 명을 뽑아요. 49명이 명창부에 들어오면 그 중 여섯 명을 뽑아요. 거기서 또 한 사람 대상을 뽑잖아요. 그때 긴장을 해서 손가락이 안 펴지더라고요. 그럴 때가 제일 좋았고, 내가 어려운 소리를 배워서 대상을 탔을 때 우리 선생님이 생각났죠.

— 성북문화원과의 인연은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엔 강남에 살았어요. 그때 선생님께 ‘제가 학원을 어떤 쪽에다 낼까요?’라고 여쭙니까 ‘성북구에다가 내지’ 라고 하셔서 성북구에 자리를 잡으려고 그때 동아리 반을 왔었죠. 내가 살고 있는 데는 강남이었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 반을 만들어서 여기와 몇 년 하다 보니까 학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리를 슬슬 잡아갔죠. 그때가 2005년도였죠.

학원을 하면서 그때 ‘소리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구나, 우리 소리를 내가 학원생들한테만 가르치면 안 되고, 성북구에 어디를 찾아가서 가르쳐야지’ 생각하다가 문화원을 찾아왔어요. 제가 여기서 소리를 지도하고 싶다고 하니, 경기민요 선생님이 계셔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경기민요하고 선소리산타령하고 호가 다르니까, 경기민요는 놔두고 선소리산타령반을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기가 되어서 선소리산타령반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1년 있다가 성북구로 아예 이사를 왔어요.

- 문화원에서 선소리산타령을 가르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서울시 25개구 문화원들 대회가 있잖아요. 이왕 도전한 거 대회를 좀 나가보자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가르쳐서 대회를 나갔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한두 번, 몇 년 나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프로 맛이 나니까. 장려상부터 받았어요. 그래도 처음 반이 갖추어질 동안만 안 나갔지 계속 나갔어요. 왜냐면 성북문화원 이름을 내야 되니까. 근데 갈 때마다 회원들이 단합이 잘 돼서 우수상은 안 놓치고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 한 대상 한 번 받아놔야지 그 목적으로,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그때 우리 사무국장님 처음 뵈는 때 대상을 받았지요. 그때 저의 꿈이 그거였거든요.

이제 제가 성북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1년에 한번씩 하는 국악제하고 경창대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차츰차츰 관계자들도 만나고 해서 그런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때까지 우리 사무국장님 나랑 손잡고 해야죠.

- 그러면 우리 전통 문화를 지켜간다는 것은 선소리산타령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의 혼이 담긴 이런 문화를 지켜나간다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21세기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전통문화를 지켜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나만 소리를 좋아하는 건가? 괜히 나만 흥이 겨워서 이러는 건가?’ 어떤 날은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소리 배울 때나 지금 현재까지도 가요나 팝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리만 열성이에요. 국악을 지도하러 가보면 20명 정도인데, 가요반을 가보면 100명, 60명, 80명이래요. 거기서 허무함을 너무 느끼죠. 어떻게 우리 소리를 활성화시킬지 이것저것 다 연구를 해서 하지

만 그것도 안 채워질 때 허무하죠.

그래도 요즘에는 활성화가 많이 돼서 학교 쪽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입문할 수도 있어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시간 강사로 나가봤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먹히는 소리죠. 할머니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 활성화가 돼서 반도 만들어졌고 학원에는 6살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소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마음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날까지는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아리랑이라도 전 국민이 우리 소리를 좋아할 때까지 하고 싶어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중국, 미국으로 공연을 가요. 자체 공연을 가면 우리 입양된 한국 아이들을 지도하죠. 아리랑 같은 거 가르쳐 주죠. 운동장에 모아놓고 팽과리 치고 북치고. 그래서 일 년에 한 번씩은 꼭 가요. 제가 앞으로 더 좋아지고 어느 계기가 될 때 외국에 우리 소리 가르치는 집을 하나 설립하는 꿈 그런 꿈도 있어요.

- 아까 국악제나 경창대회도 말씀하셨는데, 지자체나 관계기관, 단체들에 어떤 바람이 있고 어떤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지 선생님의 개인적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청에서 밀어주신다면 한 달에 한 번 장소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공연을 꼭 하는 것이 제 바람이죠. 예전에 제가 한 번 구청에 건의를 드렸어요. 우리 성북구에 국악인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리랑 축제나 무슨 벚꽃축제 같은 것은 일단 국악인들을 초대해서 가요보다도 먼저 공연하자고 그랬죠. 구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 좀 성사시켜 달라. 근데 아직까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안됐고요.

- 인터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건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꿈들 꼭 저희 문화원에
계실 때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저희도 선생님 활동 열심히 돕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
합니다.

2부

성북의 역사

문화재의 숲, 사람의 마을
인터뷰자료집



1

대를 이은 독립운동

_우당 이회영과 이은숙 그리고 이규창

- 이종철(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우당 이회영 선생(1867~1932)은 1910년 조선이 주권을 잃는 이른바 경술국치가 일어나자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형제들 및 가족 60여명과 함께 서간도로 이주했다. 이후 경학사(耕學社),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 등을 설립하여 독립운동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였다. 19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참여하였다. 임시정부를 나간 이후에는 무정부주의자로 활동했다. 1924년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설립에 관여했으며, 1931년에는 항일구국연맹을 결성했는데, 이때 행동대로 만든 흑색공포단은 아모이에 있는 일본 영사관 폭파, 천진의 일본 기선 폭파 등의 활발한 활동을 했다. 1932년 만주로 이동 중, 밀정들의 밀고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11월 17일 옥사했다.

이은숙 여사(1889~1979)는 1889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이회영 선생이 부인인 달성 서씨와 사별하자, 1908년 그와 재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상동교회에서 전덕기 목사의 주례로 치러졌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결혼식 가운데 하나였다. 1910년 이회영 선생 가족이 만주로 떠날 때 함께 하였으며, 이후 만주와 조선을 오가며 이회영 선생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이규창 선생((1913~2005)은 이회영 선생과 이은숙 여사의 장남으로 1913년 만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독립운동을 도왔으며, 남화한인청년동맹, 흑색공포단 등에서 활약하였다. 1935년 아버지 이회영의 이동로를 밀고한 사람가운데 한 명인 이용로를 엄순봉 열사와 함께 암살하였으며, 이때 체포되어 1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가운데 해방을 맞이하여 출소했다. 해방 후에는 주로 공직에서 활동하였으며, 은퇴 후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독립운동사 기술에 도움을 주었다. 1961년 정릉에 정착하여 2005년 서거할 때까지 어머니 이은숙 여사를 모시고 살았다.

인터뷰를 해준 이종철씨는 이규창 선생의 장남이다. 이종철씨는 할머니 이은숙 여사와 아버지 이규창 선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정릉에서 모시고 살았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박수진

대를 이은 독립운동_우당 이회영과 이은숙 그리고 이규창

일 시 : 2013년 9월 12일

장 소 : 이종철씨 자택(성북구 정릉2동)

구술자 : 이종철(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인터뷰 진행 : 박수진, 백외준

※ 질문자 가운데 (백)이라고 표시한 것은 백외준, 나머지는 박수진의 질문

- 백 선생(백외준 연구원)은 고려대에서 근대사를 석사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근대사 쪽은 짧게 짧게만 보다가 해서 요번에 선생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게 된 사람은 별로... 옛날 사람 외에는 없을텐데...

- 이은숙 여사님, 책을 보니까 그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정릉에 정착하시고 그래도 좀 평안히 사신 것 같은데 만주로 가셨을 때는 총도 맞으시고

그거는 뭐 그때 당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에게는 비일비재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지금 와서 보니까 대단한 거지. 그 당시에 그 만주의 독립군들의 생활상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거지 뭐.

- 그러면 혹시 그 당시 이은숙 여사님 사셨을 때에 보면 그때 당시 집이나 사진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 사진을... 이사갔다가 다(사라졌어요). 이 근처 여기 집이 원래는 이런 집이 아니었어. AID차관으로 단층으로 지은 그 저기 이층짜리 집 한 열 세

평짜리.

— 한옥은 아니고요?

한옥이 아니라 이렇게 되서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거요?

아니야. 기와였어. 이게 AID차관집의 기본이야. 여기 방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가운데 안에 거실 있고 이렇게 된 집. 고런 식으로 된 집인데 여기 주변은 전부 울창한 나무였어. 저 밑에 바로 밑에 저 산 속에 연못도 두 개씩 있었고 큰 연못이. 그리고 이 집 앞으로는 개울이 흘렀어.

— 그러면 이은숙 여사님께서 손주들한테 물론 이제 할머니들이 (대게) 손주들에게 인자 하시긴 한데 이은숙 여사님의 성품, 성격에 대해서는 어땠는지?

할머니 성격도 저기 저 일반 평범한 성격은 아냐.

— 이 책(『서간도 시종기』)을 보니까 신채호 선생이나 찾아가서 먹살을 잡으셨다고. 이은숙 선생님이 약간 오해를 하시니까 오해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여사님이 보통은 아니셨겠구나’ 생각은 들었는데.

보통 성격, 일반 여자 하고는 좀 다르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들 보면 말이에요. 여자들이 편한 걸 원하지. 누가 그런 거 따라다닌 여자 별로 없거든. 요새도 만약에 남자들이 좀 뭐 어렵게 한다고 누가 장인들이 딸 거기로 보내려 그래. 그 때 당시에든 똑같았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런 거 쫓아다니고 그거까지 저거 하는 사람들은 여자들도 보통은 아니지.

- 그래도 손주분이 보시기에 할머니가 기억나는 장면이라든가 늘 하시던 말씀 같은 거?

할머니 기억나는 거가 뭐 있나. 그냥 똑같지. 일반 할머니랑 같지 뭐. 주변에서 하는 다 똑같은 거야. 별 특이한 게 있을 수가 없어.

- 그래도 자주 하시던 말씀이라든가, 혹시 이회영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해주신 것은 있으세요? 어떤 분이었나.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존중이야.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나... 부부 이상으로 존경의 대상이야. 그 뜻이나 이런 거를 잘 따라. 그게 아니면 어렸을 때의 과부가 됐는데 할아버지만 바라보겠어. 할아버지랑 나이차이도 엄청 났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절대적이었어. 그런 여자들이 요새 드물어. 없지 뭐.



우당 이회영 선생

근데 우리 집 그 여자 분들은 그때 당시 어땠을지 몰라도 할아버지가 주도해서 형제들, 6형제, 일곱째 형제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6형제가 결정을 해서 그 둘째 할아버지 재산을 전부 처분을 했잖아요? 근데 동생이 형보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재산을 처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지금 뭐 전부 다 돈 때문에 그 무슨 명예고 체면이고 관계가 없잖아. 대통령까지 한 사람도 돈이라면 자식에게 돈 빌려주려고 최후의 발악을 다 하잖아. 똑같은 건데 그 당시에 그 부

모도 아니고 작은 밑에 동생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둘째 할아버지가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해서 동생한테 쓰라고 모든 걸 준 것이 드문 것 같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모든 친척들이, 사돈에 팔촌까지 할아버지 대열에 같이 동참해서 만주로 갔잖아? 그거는 그때 할아버지 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따르지 않으면 마는 거지 뭐, 그때 무슨 뭐 권력이 있어? 권력으로 따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냐. 그런 거 보면 그 부인들도 대단했던 것 같아. 그때 다 따라갔거든. 근데 고생하는 거 다 알면서도 따라간다는 것은 신기해 나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아쉬워하는 거는 해방되고 나서는 할머니가 옛날 살던 집 그거 찾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

- (백)옛날 그 명동 쪽에?

명동이죠. 지금 그 YWCA회관이 저거예요 보니까 그때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게 우리 뒷길이었대. 거기 느티나무가 있고 해서.

- (백)이은숙 여사님 성함이 이 영자 구자라고도 쓰시더라고요.

그거 그냥 아명으로 부른 거예요.

- (백)그게 이회영 선생님이 지어주셨다고.

예.

- 그러면 그 책을 보니까 이은숙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근처에 절 같은데 다니셨는지?

절은 저기를 다녔죠. 법륜사. 법륜사가 저기 경복궁 바로 옆에. 법륜사를 다니게 됐냐면은 거기가 태고종인데 거기에 원래에 있던 스님 거기 이름이 기

억이 안나 거기 분하고 친분이 있어 할아버지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깊은 인연이 있어서 절을 다니고. 그다음에 태고종의 조계종이라 하면 종정이라고 그러냐? 조신 스님, 덕암 스님 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거기 절을 나도 거기 다녔어. 할머니 따라서 어머니도 가고. 그래가지고 덕암 스님이 할아버지 항일 독립운동을 많이 동참을 하셨지. 거기하고 친분이 있지. 그다음에 특이한 것은 할머니는 처음에 결혼식을 현대식으로 했어. 우리나라 최초의 그 저기 근대식 결혼이었어. 요새 결혼식.

— (백)주례는 그럼?

전덕기 목사. 상동교회. 새로나백화점 맨 위에 있는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 주례로. 그런데 그 당시 전덕기 목사는 할아버지하고 같은 신민회 창립 멤버지.

— 그럼 뭐 이은숙 여사님께서서는 외부에 나가시는 게 이제 사찰 가실 때, 절에 가실 때 말고는 뭐 특별히?

아니지 저기 작은 집. 작은 집이 안양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건강하니까 안양에 가서 뭐 한 한두 달 있다가 여기에 있다 맘대로 왔다갔다.

— 되게 정정하셨나 봐요?

엄청 정정했지. 거의 저 90이 되기 직전. 사실 후반에도 그냥 막 걸어 다녔어.

— 여기서 경북궁까지 다니신다는 게 안양까지 다니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정정하셨네요.

건강했어. 원래가 건강한 체질이셔.

- 여기서는 가족들이 사실 때 몇 분이나, 이 은숙 여사님 밑으로 다 모여 사신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에는 아버지, 우리 집 식구들 살았고 안양에는 이제 아버지 동생, 작은 아버지 살았고.

- 이규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다니시다 퇴임하시고 그냥 말년 보내시고, 이은숙 여사도 여기서 계속 사시다가.

여기서 살았죠.

- (백)혹시 정릉에 같이 동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아요?

여기선 잘 못 봤어. 아버지 동지들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

-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명동 땅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던데.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이승만 정권이나 아니면 박정희 정권이나 이럴 때 보면 그 때 그렇게 독립 운동가에 대한 처우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국가에서 특별히 아까 전에 처음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잘 알지도 못했더라고 하니까 없을 거 같은 한데 따로 뭐 해주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진 않죠. 할머니하고 어머니 말씀으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진짜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없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더 희한



말년의 이은숙 여사

한 사람이었죠. 그러면 이제 자기 그 때 권력을 위해서 이제 친일파들 손을 결탁한,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 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다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나오긴 역사에 나오더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 잡을 때 기반이 한민당 김성수 쪽 그쪽하고 결탁을 하지. 그러고 나서 지가 대통령 되고 나서 아버지 말마따나 귀찮으니까 척져버리고, 지가 자기 자리 잡아서 한 거라고. 그래서 한 민당이 야당이 된 거 아냐?

그러니까는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 운동가들하고는 결렬이 되가지고 안 좋았대. 그 왜냐하면 아버지 말로는 상해에 있을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일어났잖아. 그제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일본에서 독립을 주장한 것 아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자치를 요구했다는 거야. 미국의 저게, 식민지처럼 되도 좋은데 미국의 자치를 달라. 그러니까는 상해 임정에서 대통령이 그러고 돌아다니니 그래서 이제 이승만에 대해 탄핵을 하고, 그랬을 때에 또 의열단이나 아버지 단체였던 남야 연맹 같은 경우는 이승만을 죽여 버리려고 까지 했다고. 암살해버릴라고. 그래서 이승만이가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상해로 돌아가지 못한 거야. 미국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 애기로는 미군정에 들렀고 그래서 이제 미군정의 힘에 의해서 이승만이가 한국의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독립 운동가들하고는 그 당시에 임정은 미국이 인정을 안했잖아. 그래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 임정은 정치활동을 못하게 했잖아. 또 이승만하고 안 좋은 사이니까 이승만이가 좋게 할리가 없지. 그러면서 자기하고 자기 권력기반에 저저 했던 친일 세력들하고 결탁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미군정도 독립 운동가들은 깔궂럽잖아. 이들은 지 말들을 잘 안 듣겠거든. 그래서 친일세력하고 결탁을 하지.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 권력의 기반이 되는 거지. 근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할머니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분노를 느끼는 거지. 그 당시에 권력을 못 잡은 것을. 그게 우리 집은 그래도 생활이 어렵지 않은 집안이니까. 그런데 다른 독립운동가 집안은 진짜 비참하더라고. 거지지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존경을 받으려면 모양새 자체도 거지면 존경을 못 받는다고. 정신은 무슨 일어 죽을. 누가 바쁜 세상에 남 정신을 알아주나. 그러니까는 굉장히 천대를 받으니까 요새 젊은 애들도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 당시에 권력을 못 잡은 거에 대해서 아버지나, 아버지 동지들이나 할머니들은 그것을 통탄해하는 거지.

- 그러면은 박정희 정권 때 좀 나아지셨습니까?

외래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고서는 표, 저기 훈장도 수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어 대상으로 그 때부터 하더라고.

- 계속 그 정권의 권력을 못 잡은 것에 대해서는 다들 원통해하셨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어머니 얘기로는 외할아버지는 항상 그 얘기를 했대. 친일파를 제거하지 못한 거. 외할아버지가 가장 통탄하게 여겼던 것. 외할아버지도 그 저기 항일 독립운동을 했잖아? 외할아버지는 옥살이를 제일 오래한 분인데. 외할아버지가 해방 되고 제헌 국회의원이 되면서 반민 특위법 위원장으로 그걸 제정했거든. 그래서 실질적인 그 해방 되고 나서 정부 수립 직 전까지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있으면서, 그 때 당시 오광선 장군이 총사령관이 고 그랬을 때에 친일파들을 전부 체포해서 그 일을 해서.

- (백)외할아버지 성함이?

이자 형자 정이형.

-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계속 살아오셨잖아요. 이쪽의 풍경이나 동네가 변하는 것도 다 보셨을 테고, 저희가 이은숙 여사님 얘기를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한데 정릉 지역 얘기도 들었으면 좋겠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시면서 언제 변화가 많이 시작 됐습니까 이 동네가? 집도 원래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고 해서.

맨 처음에는 정릉. 정릉이 여기는 전부 산이었어. 그리고 내가 태어난 데는 저기 저 밑에. 길음 시장 그 앞쪽에. 정릉1동에 거기 집이 있었거든. 거기 집들도 지금 아마 AID 지어놓은 집들하고 비슷할 거야. 그래서 그 때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살다가 외할아버지 집에 장교동이었는데 거기도 2년인가 가서 살다가 여기 집에 만들어내서 이쪽으로 이사 왔죠.

- (백)정확히 여기는 몇 년도에?

여기 60년도일거야 아마.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 되고 나서니까 61, 2년. 4.19 하고 나서인가 아마. 5.16 그 후죠. 여기 집만 여 근처에 50가구 있었어. 그런데 저 앞에 보이는 건 동방주택이라고 그래요. 저쪽. 2층 슬라브 집들 짝 있는 것 그게 동방주택이지. 그거는 이제 삼성에서 개발한 것. 그래서 동방주택은 그 당시에 부촌이었어. 상당히 여기 정릉에서, 거 우리나라 그때도 동방주택은 굉장히 부촌이라고 그랬어.

- 그래서 다 다시 또 개발되면서?

지금 뭐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 거기는 집들이. 내가 보면은 그 처음부터 2층 슬라브 집들이었어. 여기는 대지가 거의 2~300평씩 되는 그런 큰 저택들이 개발된 집들이야.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여기 산을 깎는 것을 우리 여기서 다 보고 있었지. 그 당시 여기 산을 깎는 것을 보면 불도저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왔다갔다 거리는 거지. 그리고 저 우리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은 나오잖아 비참하지 뭐. 이렇게 산에서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평탄작업을 하면서 흙을 이렇게 미는데 불도저 하나가지고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포크레인. 그 당시에는 여기서 보면 요 쪽, 요 쪽 그 동방주택 올라오는 길 있잖아. 그길로 해서 저쪽은 삼양동에 거기는 저거야 달동네거든 그 당시에. 산동네, 그때는 달동네를 산동네라고 그랬어. 판자촌들이 있었거든. 무허가. 그 사람들은 거지들이 많았지. 그거를 하는 인부들이 거기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 저 철도레일을 이렇게 놔가지고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쪽 밀고 오면 저 밑에 가서 이렇게 붓고 그리고 이리로 밀고서 올라가고. 그리고 여자들은 보니까 뭐야 이거 바구니에다가 돌맹이 이렇게 쪼은 거 그거 들고서 가서 붓고 올라가고. 그 다음엔 저 쪽 한쪽에서는 이 뭐야 이거,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는 구멍을 뚫는 것을 차단기가 없잖아. 그 당시에는 그거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지 뭐. 그거 우리 어렸을 때 우리나라 실상이야. 지금 아프리카보다 더했지 뭐.

- 다 이렇게 보고 하셨네요?

난 어렸을 때부터 쪽 봤지. 구경했지.

- (백)초등학교도 그럼 이쪽에서?

응 여기 송덕국민학교.

- 그때 그 정릉이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한 게 그 때 공사하기 그때쯤인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릉이 사실은 그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서울시에 서는 이제 이쪽 명륜동 쪽이 딱 부촌이었잖아. 정릉이 개발됐잖아. 근데 정릉이 계곡 밑으로 해서 이게 딱 교통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제 안 발전한 거야.

그리고나서는 이쪽 수유리쪽으로 외려 우이동쪽으로 발전했는데 거기도 요새는 교통이 안 좋으니까 다 형편없어지고 지금은 강남으로 간 거지. 여기는 오래된 동네인데 발전은 없어.

- (백)그래도 살기는 좋죠.

그렇죠.

- 그럼 중, 고등학교도 다 서울서?

아니요. 나는 중학교는 이제 그 서울 들어왔으니까 이제 서대문으로. 그래서 학교는 거기 갔다가 왔지.

- 그럼 통학하신 거예요?

당연히 통학했지.

- (백)혹시 집안에 가훈이라던가...

그 가훈 같은 거 없어. 그 무슨 가훈은 부모님이 하는 거 보면서 자라는 거지. 쓸데없는 가훈 지은 집안치고 제대로 된 집 못 봤어. 그리고 우리 집은 그 형식을 싫어하는 집안이야. 그니까 할아버지 자체가 진취적이잖아. 진보적이라 형식이고 뭐 이런 거 싫어하고. 아버지도 그런 스타일이고. 전부 자유주의자들 이야. 아버지는 되게 재밌었던 건 돌아가기 직전까지도 젊은이들과 잘 어울려. 밖에 나가면 아버님이 그때 퇴직하고는 국사편찬위원회 가셨어. 거기 근무 했어. 연구위원으로. 거기 젊은이들, 교수들 전부 다 중국어 특별강의.

- 보면 이회영 선생님도 그러면 보면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렸던?

그렇지. 외할아버지도 그랬고. 왜냐하면 그분들 할아버지들이 사고가 났냐면 나이 드는 사람이 싸우질 않는다는 거지. 아버지도 그 말씀하시더라고. 거사를 하러 갔는데, 아버지 말씀이야. 옥광빈이를 암살하러 갔는데 그때 아버지 윗분들이 나이가 이제 한 40대가 된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만주에서는 협협했대. 근데 막상 가 가지고는 위층에서 총을 겨누고는 몸이 떨어가지고 못 쓴 거야.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러 가는 사람은 젊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국가의 재산이라는 거지. 그래서 잘 저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존중을.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버지 말씀에 그 때 누가 나이들은 사람이 젊은이보고 너 가서 죽으라고 해서 가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도 무슨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는 아니잖아. 그니까 자발적인 거라는 거야 전부. 자유의지에서 와서 거사를 하러 갈 때, 죽으러 가는 거 아냐? 그때도 서로 간다고 제비를 뽑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든 일을 하는 중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젊은이들이랑 잘 어울리고 편하게 대하는 것도 격이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 아버지 말씀에 옛날에는 그런 격이 없었대. 일제시대 때 아버지 말씀에는 선배, 후배가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아버지가 다 보면 옛날 우리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왜놈 잔재라는 거야.

- (백) 열 살 때, 친구, 열 살 터울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우리들은 다 잘 어울렸는데 일본 애들이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걸 되게 싫어했어. 그러면 뭐 그러니까는 재밌었던 건 독립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 (백)조선적인 그런..

그렇죠. 그 다음에 엄격하지를 않아. 내가 아버지 동지분들도 굉장히 애
들하고 잘 어울리고 굉장히 자유롭다고. 그다음에 소탈해지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의협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을 한거지. 그 건달 애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하겠어. 왜냐하면 개네들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강한 놈이
와서, 강한 자한테는 금방 굴복하고. 그런데 이런 항일 독립 운동하는 분들은
약한 자들을 굉장히 감싸고, 권의주의지 않아. 그런 분들이 이제 강한 자들에
의한 권의주의에 도전하잖아.

- (백)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별이 없어. 그래서 우리 집에는 여성 차별이 없어.

- 젊은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시니까, 이규창 선생님 약주도 좋아
하셨습니까?

술을 못해 우리 집안은. 유전자로 술들을 못해. 그러니까 친할아버지는
기껏 마실 수 있는 게 포도주 한잔. 그래도 얼굴이 빨개져버려. 그래서 우리 집
에 차례지내거나 제사지낼 때 항상 포도주를.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좋아해.

- 좀 어울리고 하셨다니까 약주도 좋아하시고 하실 줄 알고.

내가 어렸을 때 우관선생. 우관 이종규 그 분이 성대 총장하던 분. 그 아
저씨가 그 때 나보고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야. 같이 담배도. 그분은 직접 그 할
아버지랑 같이.

-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네요.

자유롭게 이제 엄청난 토론을 했다는 거야. 이거는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론적인 배경들이 다 있었더라고. 무슨 별안간에 총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상적인 논쟁도 엄청 했고, 아버지 말씀 들어보면 뭐 밤새도록 그 젊은이들하고 그 당시의 그 사상 논쟁. 해서 아버지도 같이 얘기 들어보고 아버지가 이제 나도 아버지한테 들어서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마르크스-레닌주의서부터 그 아나키스트니



이규창 선생의 모습

사회주의이론이니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서 정통이야 정통.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적극적인 투쟁하는 방법 그것도 아나키스트들이 굉장히 맹렬해.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맹점을 정확하게 공격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가지고는 공산주의 이론에 못 따라간단니까. 근데 아버지 진영에 아나키스트들은 그 공산주의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해요.

-(백)그럼 뭐 중국이나 한국에 그런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나요?

지금 여기 아나키스트들 모인 단체들이 있죠. 국민문화연구소라고. 아직도 굉장하죠. 근데 그 이제 아나키스트들의 하나 약점이 뭐냐, 권력 지향적이지를 못해가지고. 권력을 잡질 못하니까 뜬 구름이라는 소리죠. 그러한 위기시에는 항일 독립운동에서의 엄청난 테러활동을 했던 데가 아나키스트. 근데 다 이론적인 배경들이 다 있는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대포로 가서 살해하려고 한 게 아냐. 그래서 아버지 그분들 얘기는 아무나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지. 그래서 외래 일본인들도 민간인이 옆에서 잘못 다치면은 굉장히 안타까워 했다는 거야. 미안해하고. 그게 도덕적인 기본이 있었던 사람들. 도덕적인 기반이 없는 놈이 테러를 하면 그게 깡패지 뭐야.

- (백)그럼 혹시 이은숙 여사님이나 이규창 선생님 유품이나 친필 원고 같은 거는?

그건 있어요.

- (백)혹시 저희가 촬영을...

그건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는 살아계시거든. 그 다음에 저기 가면 있어. 우리...

- (백)우당 기념관.

응 거기 다 있어.

- 이은숙 여사님 것도 우당 기념관에?

응, 거기 다 있어요. 할아버지 유품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에. 우리 집에는 없지 뭐. 그리고 유품이 할아버지 유품이 없어요 원래.

-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님은 이제 영주에서 돌아가시고 큰 따님이 이제 시신을 찾으려...

예, 예. 고모부. 고모.

- 갔더니 그냥 바로 화장시켰다고 그래서 고문 흔적 없애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신 것 같다고. 오긴 모셔와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때

사진 같은 것도 얼마 안남아 있으시죠?

그 때 사진 없죠.

- 되게 경황없이….

그 때 사진을 못 찍게 했어요.

- 정말…엄혹한 시절에… 이규창 선생님 해방 동시에 바로 광주에 계시다가 나오신 거죠?

그렇죠. 나와서는 아버님, 아버지 동지들하고 많이 움직였죠.

- 보니까 이은숙 여사님께서도 이규창 선생님 나온 것이(출소한 것이) 너무 기쁠 때 또 막내 따님 돌아가시고 동시에.

그 작은 고모. 작은 고모는 아버지 말씀에 오다가. 이제 여기 개발하는 그 고모부가 막내 고모 남편이죠.

- 아 그러시구나. 이은숙 여사가 그래서 원망을 많이 하셨던.

원망은 그냥 별것도 아니야. 어느 집이나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야. 근데 내가 되게 재밌는 게 독립 운동 한 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냥 신화적으로 얘기해서 접근성을 차단시켜. 다 거짓말이야. 다 이웃집 아저씨랑 똑같은 거야. 근데 사고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지. 독립 운동 한 분들 중에서도 그때 보면 성격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사람들 많아. 왜냐면 친일파도 성격 좋은 사람들 많고. 그거랑은 다른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 나라를 보면 이분적으로 나뉘워서 웃기는 얘가지 뭐. 무슨 항일 테러 뭐 했던 분들 이름 나오면 미화시키고 그럴 필요 없잖아. 있는 사실대로 해야지 젊은 애들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뭐 이거 신화처럼 해놓은 것은 그런 사

람을 누가 따라. 관계가 없지.

- 요새는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이제 글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정확히 써줘야 되거든.

- 이봉창 열사 같은 분도 원래는 그렇게 일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안될 때 김구 주석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 보면.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 때 상해에 있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임정은 그런 활동을 하질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작은 할아버지는 임정에 재무담당을 했지만, 임정의 상징적인 것을 했지만은 아버지 말씀대로 의열단이고 강력한 활동은 별로 못했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거기 자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말씀에 가장 힘든 게 돈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 나중에는 먹지를 못하니까 권총도 갖다가 전당포에 맡겨서 이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름에는 겨울옷까지도 다 갖다 전당포에 재껴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돈이 생기면. 그래서 천진이고 상해고 있을 때 얘기가 일본 경찰 애들도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비둔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어디서 전당포가 털렸다던가 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초긴장으로 초비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자금이 생겼을 때에는 총을 사고 폭탄을 제조하니까 그 때부터 이제 긴장을 하는 거지. 그 먹고살기 힘든데, 그러니까는 그 방안에서 조그만 방에서 동지들하고 열명씩 전부 거기서 앉아 있는 거지. 돈이 없는데 맨날 끼니걱정하면서.

- 그래서 보면 이은숙 여사님도 돈이 생길 때마다 붙여주더라고요. 이회영 선생님께. 그 생활을 너무 잘 아니까.



이종철씨 인터뷰 모습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송금도 안 온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그 초기에는 3.1운동 일어나고 나서는 아버지 말씀에 그래도 국내에서 자금도 조금 조달되고 그랬는데, 근데 인간이란 건 그렇잖아요. 시간도 오래가고, 지치니까 에이 무슨 독립은 일어 죽을 독립, 그러니까 그냥 결탁해서 사는 게 낫다. 그 후 부터는 모든 자금도 오지를 않고. 임정 자금도 맨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으로는 할 아버지의 자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임정 초기에. 그런데 그 돈이 고종 황제가 준 돈이라는 거지. 그 때 그 돈은 누가 조달해 줬냐면은 민영달이라고. 옛날에는 육사 교장 했던 민병돈 장군 할아버지야. 그러니까는 그 때 당시에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이나 젊은이들이 와서 그 거사를 한다고 할 때에 그 때 키워서 훈련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의 의욕심에 의해서 와가지고 ‘이걸 하겠다’라고 그러면 그 때 유재명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당 쪽하고 연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부탁해서 개인적인 인맥에 의해서 폭탄을 제조해서 조달하고 그런

거사 하겠다는 자발적인 거지. 무슨 지도는 아버지 말씀에 지도는 무슨 지도야.

- 보니까 이봉창 의사, 열사님은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받은 분이 아니라 폭탄이 하나 더 있었는데 첫 번째 것이 안 터지니까 당황해서 못 던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못 던지고 그래서 바로 잡혔다고.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의 의협심이 있고. 근데 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의협심이 있는 건 아냐.

- (약속시간이 되어)일정이 있으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통해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고, 책에서는 못 듣는 이야기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2 성북동 토박이가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

- 계영선(영라인의원 원장)

●
●
계영선 선생은 성북동의 토박이 중에 토박이다. 햇수로 58년째 성북동에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님’이기도 하다. 성북동의 마을 사람들 이야기. 성북천이 덮이기 전, 그리고 덮힌 후 마을 사람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성북동의 윗동네 ‘부촌’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유명한 삼청각은 원래 어떤 곳이었으며, 삼청각 이전에 대원각, 대하, 상춘관이라는 이름난 ‘요정’들이 성북동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성북동의 명소 예전 ‘나폴레옹’제과점 자리가 그 옛날에는 천막을 쳐 놓고 공중그네 서커스 공연을 하던 자리라는 것도 지금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다.

성북천이 덮이기 전, 물이 마르지 않았던 성북천은 여름, 겨울, 철을 가리지 않던 아이들의 놀이 장소였다. 특히 겨울철 성북천에서 스케이트 놀이는 빠질 수 없는 유년시절 기억이다.

한신아파트 길이 생기기 전 옛날 성북동엔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 옛날에는 성북동 윗마을이 ‘도둑골’이라 불렸는데, 다 같이 어렵게 살던 시절 ‘도둑’이 많았기 때문일까?

성북동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마을이다. 개천이 덮이고 제법 컸던 재래시장이 좁아지고,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옛날 지물포와 센베이 가게는 없어졌지만,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보존된 한옥들, 골목들이 오래된 성북동 사람들의 정취를 그대로 말해주는 듯 하다. 성북동 토박이 계영선 원장님으로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고지수

성북동 토박이가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

일 시 : 2015. 9. 9. 수요일

장 소 : 영라인의원 원장실

구술자 : 계영선

인터뷰진행 : 고지수, 박수진, 백외준

- 먼저 인적사항에 대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관계, 성북동 거주하게 된 시기 등.

성북동 산지가 58년 됐어요. 58년도에 바로 이 위에 한옥 집으로 이사 왔어요. 세 살 때. 현재는 한옥이 없어지고 연립주택이 됐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바로 밑에 자리에서 소아과를 했었어요. 애육소아과라고.

- 예전에 이 곳에 있었지 않았나요, 애육소아과?

있었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여기서 아버님이 병원을 한 58년을 소아과를 했었고. 요리로 이사 와서는 한 40년 했고 전체는 한 55년, 이 자리에서 나랑 같이 20년 했었고. 3년 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지.

- 형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형제는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홍익대 교수하고 여동생은 대전에 시집가서 있고.

- 58년 전이면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지...

아주 어렸지. 그러니까 내가 세 살. 59년도, 다섯 살 때...

- 그 당시 반경에 건물, 풍광은 어땠나요?

개천이 저 아래까지 있었고, 옛날 나폴레옹 자리, 거기도 개천이었어. 거기서 서커스 공연이 있었다고. 천막 서커스가 가끔 있었다고. 가마니 깔고 앉아서 서커스 구경하고, 공중 그네 하는, 그런 공연이 가끔 있었고... 개천 양쪽으로 삼선 시장이 있었지. 시장. 그게 나중에 복개되고 낡은 아파트들이 상가까지 있었어.

-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주상복합... 개천 따라서 쪽 이어졌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억이 나네. 아주 어렸을 때인데, 사거리에 이금희 산부인과가 엄마가 원래 거기서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를 했고, 그분이 분만을 많이 했지. 그 길 건너에 김정자 산부인과라고 여의사가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농협자리. 거기가 지물포였어. 지물포. 농협 옆에 붙어 있는 자리, 지금 핸드폰 가게가 옛날에는 드럼통으로 천장을 만들었어, 드럼통을 만들어서 천장을(만들었고)... 세탁소가 있었어. 그 옆에 붙어 있는 지금 연세치과 병원 건물이 다 한옥이었어. 그 건물이 우리 외할머니 집이었어. 거기서부터 지금 아파트 올라가는 샛길 계단, 쪽 꼭대기까지 옛날에 언덕배기 달동네였었다고. 동구여상도 그쪽으로 올라갔고. 올라가는 계단 있는 자리에 모래나 건축자재 파는 가게가 있었고. 옛날에는 모래를 쌓아놓고 당나귀... 나무 구루마, 수레에다가 모래를 실어다가 건축자재를 팔았고, 머리가 대머리 할아버지가 구십세 이상 살았는데, 그 아들이 날랐다고. 그분 아들이 그 아래서 식당. 그분도 나이가 팔십대 된 것 같더라고.

- 한신아파트 올라가는 길은 없었나요?

없었지. 그땐. 양쪽에 달동네 식으로 허름한 집이 있었고, 동구여상 길이

있었고, 지금 김정자 산부인과, 이금희 산부인과 그 옆에 아이스케키 집이었어. 아이스케키 파는.. 그 다음이 이금희산부인과가 있었고. 그 다음. 개천 길 따라 성북동 길이 쪽 올라가는 길 있었고... 처음에는 나무 다리였었어. 저쪽편이 이 쪽으로 넘어오기도 했었어. 그리고 다리 밑에 가마니를 치고 부부하고 애하고 살았어. 다리 밑에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이 사람이 인민군 출신이라는데, 알콜 중독자였어. 그래가지고 부인도 두드려 패고, 애를 빨개 벗겨 놓고 개천에다 세워놓고 이랬었다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고. 인민군출신이었다고 그러더라고. 몇 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지하철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가 돼 있더라. 그 양반 챙피하니까 이 동네는 안 오겠지. 이름은 동환이 아버지야.

그리고 개천 다리를 건너오자마자 센베이 가게가 있었어. 이쪽 건너오자마자... 센베이를 직접 만들어서 센베이 가게였었고, 그 옆에 솜틀 가게가 있었어. 이불트는... 오래된 이불, 솜틀가게가 있었는데,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솜틀 가게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있었거든. 동네만 왔다갔다하고 구십 넘은 노인네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구십 넘은 노인네인데, 그 분이 죽고 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천도교,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 교령 쯤 되는 사람 인가봐. 천도교 장으로 어마어마하게 치렀어. 이름이 최 뭔데, 하여튼, 천도교에서 2인자인가 그랬는데, 전혀 티를 안 내서 아무도 몰랐던 거야. 여기서 생업에 지냈거든. 그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 아들이. 나중에 요 옆 센베이 가게를 엮으면서 헌 책방을 했었다고, 부인을 하나 얻어가지고 야무지고 성질도 있고 똑똑한 여자였어. 그 분이 남편을 어떻게 해가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그 부인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 다음 처남이 책방을 인수를 해가지고 개들도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아주 성공을 했다고. 우연히 시내에서 한 번 봤었어. 아주 오랜만에.

그 다리를 건너가자마자 목욕탕하고 이발소가 있었어. 지금 거기 슈퍼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리모델링해서 저렇지. 1층은 대중탕이 있었고 앞에는 이발소. 2, 3층은 옛날에는 독탕이란 게 있었어. 가족탕, 독탕. 집에 있는, 목욕탕이 있잖아. 방마다 그걸 만들어놔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목욕을 하고 나오고 그랬었고, 그 건너편에 3,40년 전에 대우미약국이라고, 옵티마약국, 스타벅스 자린가? 거기서 계속 약국을 했었지.

- 그 다리 이름이 있었나요? 신문에 보니까 운수교라고….

운수교? 잘 모르겠어.

- 삼선교는 유래가 있나요?

지금 다리가 삼선교예요. 옛날부터 삼선교라고 했었어. 그 다리 이름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도로가 있었지. 조그마한 2차선 도로.

- 한신 아파트 올라가는 큰 길은 언제 생겼나요?

아파트가 생기면서니까 20년 전에… 20년 아직 안 났어요. 그 위에 그 아파트가 올라가는 자리에, 우리 아버지가 하던 병원이 있었는데, 세를 줬었고 그 옆에 상춘관이라는 기생집이 있었어. 여자들 나오는 술집이.

- 언제까지 있었어요?

꽤 났죠. 없어진지. 주인도 부부가 같이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마을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쌀가게… 그 다음에 이 골목으로 양쪽으로 한 옥으로 돼 있었고. 요 건물(산부인과)만 딱 3층으로 올라 있었어.

- 몇 년 됐나요?

몇 년 됐나하면... 70년도에 올라갔어. 고등학교 때. 2, 3층은 우리가 살고 1층만 소아과를 아버지가 했었지. 솜틀가게 이런 게 다 없어지면서 주택이 됐었던 말이야. 주택이 바로 요 건너편집, 솜틀가게 자리 집이 거기가 뭐냐 하면, 삼청각이라고 하는, 71, 2년도 삼청각이란 요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요정인데, 그 요정에 들어가는 아가씨가 하루에 그때 당시 들리는 말에 의하면 5백 명이 들어가서 2백 명이 퇴고(돌아가고), 3백 명이 하룻밤을 지내고 했었대. 우리 동네에 거기에 출근하는 아가씨들이 있었어. 요 아랫집에만 해도 출근하는 아가씨들이 열 명 살았어. 바글바글하게... 삼청각에서 버스가 내려와. 계속 실어 나르는 거야. 요정아가씨들을, 저녁마다 실어 나르는 거야, 버스가 삼청각으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 사는 사람도 있었고, 판 데 사는 사람도(있었고).. 삼청각에서 버스가 내려와서 싣고 가는 거야. 대하라는 요정도 있었어. 성북동 쪽 대기에. 지금 길상사 자리야. 대하.

- 대원각 말씀인가요?

어... 대원각, 그 대원각 전에 아마 대하라는 요정이었거든. 버스들이 올라갔다고, 삼청각 버스가.. 잘 보이는 여자애들은 그날 저녁 일본인 관광객들하고 놓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퇴짜를 시켜요. 그렇게 들었어. 요 앞에 주택들이 대개 그런 거였어. 요기 있는 한옥집들은 그때 당시 그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현재 있는 요 한옥집들은 그 때 당시 엇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우리 병원 요 자리 바로 옆이 만화가게였어. 우리 병원이 개인 집 두 개를 사서 합해서 지었고, 옆에는 만화가게. 동네 애들이 골목골목 애들이 다 만화가게였고.

- 선생님, 성북천에서 놀고 그랬나요?

아... 놀았지. 비가 좀 오고 그러면 물이 꽤 있었다고. 여름에 가뭄지고
그러면 좀 말랐어. 항상 물이 있었어.

- 물이 맑은 편이었습니까?

녹조끼고 형편없었고 냄새도 좀 났었는데... 비가 오고 강수량 좋을 때
는 들어가서 놀기 좋았어.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탔다고. 겨울에는 썰매타고 이
랬다고. 썰매자리였지, 겨울에는.

- 그때 성북천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복개, 제일 많이 바뀐 것이 어떤 모습인가요? 개인
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댕이고 나서 도로가 생겼다는 것. 개인집들이 연립주택으로 바뀐 거. 크
게 바뀐 건... 복개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요 동네 사람들이 고상한 사
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경기고등학교 영어선생, 청와대 비서관도 살고, 해병대
대령도 살고, 경기도지사도 여기 살고. 요 동네는 좀 괜찮은 동네였었어. 복개
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러니까 집들이 다 연립주택으로 바
뀌더라고. 전부터 연립으로 바뀌었어. 처음엔 저쪽에 살았는데 거기도 연립주
택으로 바뀌고. 우리는 이쪽 2층으로 이사를 오고.

- 학교는 돈암초등학교 다니셨나요?

학교는, 성북구 학군이 성북초등학교지. 성북초등학교. 요 동네 사는 사
람들이 주로 학군이 혜화학군이 아니야. 사람들이 성북으로 가야하는데, 조금
있는 집 애들이나 사람들은 가라로(거짓으로) 조작을 해서 혜화초등학교로 갔
었다고. 나 같은 경우도 성북초등인데, 돈암(초등학교)을 다녔다고.



인터뷰 중인 계영선 원장

— 이유가 있었나요?

중학교를 좋은 데로 가니까. 중학교 시험이 있었거든. 경기중학교, 서울, 보성 이런 데를 많이 가니까. 성북초등학교는 좋은 학교를 많이 못 갔어. 돈암은 어지간히 갔었거든. 저기서부터 쪽 돈암까지 다녔지. 4학년까지 다니다가 혜화로 옮겨주더라고. 4학년 때 리라초등학교가 처음으로 생겼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리라로 갔지. 혜화, 성북, 삼선에서도 리라를 갔어. 요 골목엔 성북고등학교가 있었

잖아. 옛날에. 동구여상 애들이 내려오고. 주로 학생골목이었어. 아침저녁으로 많이 지나다녔지. 전부다 학생 애들이 지나다녔지.

— 등굣길에 기억 남는 분식집이나... 그런 게 있었다면?

분식집 같은 게 없었어.

— 선생님, 고등학교는 어디를 다니셨나요?

과학고등학교 자리 보성. 보성고등학교. 보성이 재밌는 학교가, 머리를 길렀어요. 그 당시 머리를 길렀던 학교가 없었어. 보성(고등학교)이 전통이 머리를 기르는 거야. 일제시대부터. 중학교 입학할 했는데, 난 학교 이발소에 가니까 하이칼라를 딱 넘겨주더라고. 웃긴다 그랬지. 재미를 좀 많이 봤어.

- 60년대 중반 정도 됐을 때죠?

66년도 정도. 서울시내에서 머리 기르는 학교가 우리 학교밖에 없었어. 우리학교 교감이 우석고등학교가 생기면서 교장으로 갔다고. 그 양반이 거기서도 머리를 기르게 했다고.

- 머리를 어느 정도로 길렀나요.

하이칼라로 다 올렸었어. 명찰이 없었어. 교장이 한 번 바뀌었는데, 맹주천 교장이 대머리였어. 그 사람이 머리를 못 기르게 하더라고. 단속은 많이 안 했어. 사고나 쳐야 머리를 깎으라고 하지.

- 간송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우리 보성 이사장이었지.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 4, 50년 맡았지. 그 사람 전에 서울법대 나온 보성고등학교 사회선생이 그 사람이 간송에 관여 했었다고. 재산을 관리할. 그 양반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전라도에 몇 만평짜리 땅 문서가 나왔다는 등, 훈민정음을 살적에 신라시대 공주침덴가, 골동품을 팔아서 샀다는 등... 그러더라고.

- 성북동에 피난민들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피난민이 왔단 소리는 모르겠는데. 피난민 소리는 못 들었어. 이북사람 들은 많았고. 우리 아버지도 이북사람이고.

- 어디 출신이셨나요?

평양. 제대를 어디서 했냐면 전주에서 했다고. 전주에서 병원을 하다가.

- 아버님은 의학공부를 어디서 하신 거예요?

평양의전을 졸업하고 일본 구주대 의과대를 다니다가 해방 되서 서울대로 왔지.

- 이북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잡았나요?

그렇지. 천도교 교주라는 사람도 이북사람이야. 피난민이 여기 있진 않았어. 월남민이지. 월남인.

지금 농협자리 지하에 다방이 있었거든. 다... 지금 스타벅스, 삼선교쪽 스타벅스 지하에도 다방이 몇 개 있었어. 지하에 다방이 있었거든. 그때는 거기가 보면은 이 동네 별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와서 죽치고.

- 양복 입었나요?

어. 양복입고... 옷긴 게 돈 없는 사람들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아침에 가서 모닝커피 마시고 우리 고등학교 때 다방 같은 데 드나들었어. 머리를 길었으니까. 다방에 가면 디스크 자키 같은 게 있었고. 여기 고등학교 때... 명륜동에 가면 명륜극장이 있었었다고. 성대 들어가는 입구에서 길 건너 조금 아래쪽에 지하에 켜 다방이라고 유명했어. 서울에서 좀 놀던 애들 다 왔어. 명륜극장 있었고 그 지하에 켜 다방에 서울대생, 성대생... 좀 특출난 자리였었어. 고등학교 때 머리를 길러서 거기 가서 앉아서 놀았지.

- 선생님도 석굴암이라고 기억하세요?

아. 있었지. 석굴암이 뭐냐면. 혜화문 밑에 성벽 있잖아. 거 밑에 굴이 있었어. 양쪽 편에 다 있었어. 석굴암이라고 막걸리 소주, 술을 팔았어. 알타미라라고 그게 있었다고. 술 먹으러 많이 갔지. 카바이트야... 카바이트. 먹고 나면

머리 아픈...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어. 그게 왜 없어졌지. 그게 왜.

- 불법이었나요?

꽤 컸어. 굴 안이. 유명했어. 그게. 양쪽으로 다 있었다니까. 잘 되니까. 한쪽은 석굴암. 다른 쪽은 알타미라...

- 그때 유명한 기업인이 사신 걸로 아는데 어떤 분이셨나요?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집이 있었어.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쪽, 저 연립 주택 있지요. 저 쪽(한신아파트 방향 가리킴). 이 집이 짹~저 위에까지 올라갔어. 동산이야. 연못도 파놓고. 조각도 있었고. 애들 놀이터야. 어느 날 이양반이 갑자기 담을 쌓은거야. 신상철씨. 우리나라 원양어업 하던, 지금도 그 양반 얼굴이 생각나는데. 지금도. 얼굴 하얀 사람이. 지금도 얼굴이 번쩍번쩍했어. 신상철씨라고... 골목 그 사람 집 들어가기 바로 아래쪽, 청와대 비서관이 살았어.

이 사람이 뺨이 막강하니까, 이 사람이 도로를 침범해가지고 담을 쌓아 버렸어. 힘이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담을. 신상철씨 담이 굉장히 컸어. 들이 받으려고 하니까, 둘이 싸움이 붙은 거야. 신상철씨 어머니가 아주 드센 사람이야. 짚차에다가 그 앞에다 쌀 가마니를 놓은 거야. 받으라고 한 거야. 담을 무너뜨렸대니까.

-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헐렸어. 돈이 권력을 이기더라고... 건너편 집이 경기도지사집이었어. 그 사람 이름이...사택이었어.

-몇 년도 정도인가요?

1960년대, 초반이지. 그 양반이 거기 있다가 애들이 다 우리랑 친군데, 다들 미국으로 갔어. 신상철씨 애들도 미국으로 가버렸고. 우리 친구들인데.

- 집을 개방했었군요?

개방했었지. 처음엔 어느 날 담을 치더라고. 못 들어가게. 애들 놀이터였어. 전쟁놀이 성북동에 애들이 놀 때 저 윗동네, 아랫동네에서 저 위에 가면 도둑동네라고 아주 허름한 집들이 있어. 지금도 있어요. 달동네. 그 동네 애들이랑 아랫동네 애들이랑 싸움을 했다고. 어렸을 때는 전쟁놀이를 해서, 연탄재 던지고... 그렇게 싸움을 했어. 우리 집 뒤에 나무가 있었는데, 나뭇잎에 실을 꺾어서 인디언 추장을 해서.

- 실제로 윗동네 아랫동네 계층구분이 있었나요?

어렸을 때 그게 구분은 없었어.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옛날에 고2 구철이라는 애가 있었어. 이 동네 짱이었지. 이놈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까지 다 데리고 다니는 거야. 참 재밌어. 다 데리고 다니는 거야. 초등학교 생들까지. 동구여상쪽 산도 있는데, 애들 끌고 다니는 거야. 다 같이 어울렸다고. 요즘엔 그런 게 없잖아...

- 성북동에 예전부터 마을 명칭이 있었습니까.

도둑골이라는 거, 하나밖에 생각 안나. 그때 도둑들이 많이 있었어. 은수저 훔쳐가고. 우리도 도둑 몇 번 맞았지. 그때 귀중품이 있나. 제니스 라디오하고, 카메라, 은수저 그런 것뿐이 없었지. 가져갈 수 있는 거 만만한 거는 새벽에 털어 갔는데, 그때 오물차, 화장실. 재래식으로 뿔었으니까,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고 그랬지. 깡통 들고 다니는 거지들... 어린 애들이 깡통에 밥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 꽤 있었고.

- 문화재...간송미술관에 대해 자라실 때 들으신 얘기 없으세요?

없었어. 그때 관심이 없었어.

- 선잠단지...그 때도 있었나요?

없었어. 그때... 부자들이나 살았지. 부자들도 나중에 들어 온 거지.

- 언제부터 성북동에 부촌이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는데... 다 산이었어. 산. 내 대학교 때만 해도 삼청각 있을 때 만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72년 정도까지만 해도.

- 인상 깊었던 분들 있습니까.

박씨인데, 아들 이름이 박웅인데, 아버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해병대 대령이 살았어. 생각나는 게, 변소차가 안 오면 넘치잖아. 그러면 사병들이 철 모로 똥을 퍼갔어. 건너편집이 가수 진미령이가 살았어. 우리 여동생이 진미령이 여동생하고 동창이고. 어렸을 땐 못생겼었어. 맨날 머리 브러쉬 가지고 노래 하고. 개 언니가 참 이쁘게 생겼어. 무용과를 나왔는데. 김백봉인가. 수제자를 잘못 빠져서 미국 살고 있는데... 미령이 혼자 있었지. 그 때 당시 그때 당시, 김동석씨라고. 유명한 사람이야. 6.25 3대 영웅이야. 별명이 돼지라고. HID대장을 십년 넘게 했었다고. 그 사람 바로 밑에 김종필씨가 과장이었지. 그 양반이 자유당 시절에 혁명에 가담을 안 했다고. 혁명할 때 나는 가담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연금을 시켰어. 혁명이 성공으로 끝나니까 이 사람이 추풍낙엽으로 끝난

거지. 옛날 사진을 보니까 이승만씨 옆에서 찍었다고. 직접 그 사람이 이북으로 넘어갔다고. 3대 영웅 중 하나야.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갔는데 혁명 후에 옷을 벗었지. 대성통곡을 했지. 장군이 안 되니까. 추풍낙엽. 육사8기생들이 도와줘서 삼척시장, 목포시장으로 돌아와. 나중에 함경도지사로도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한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많아. 내가 군대생활 할 때 강원도, 그때 돈을 푸대에 가져와서. 행정경험이 없던 사람이 삼척시장으로 오니까. 이북 드나들던 사람이, 삼척시장으로 왔다가 선착순 집합 그러더라, 앞에 있는 사람이. 1년 치 예산을 막 주는 거야. 그 뒤 사람을 두드려 패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했다고. 옛날이니까 통했지. 시 예산을... 목포시장을 할 때는 목포 시내 사창가가 있었다고, 이 사람이 그걸 부임하니까. 보자기에 현금을 갖다 놓더라. 내 쫓고 사창가를 하루아침에 다 없앴다고. 유명한 사람이야 김동석이. 진미령이 아버지야. 진미령이 엄마가, 부인이 그렇게 미인이야. 김지미보다 더 미인이야. 온갖 사람이 다 쳐다봤어. 그때당시... 동네 골목이 다 환해질 정도였으니까.

- 성북동 사람들 직장은 주로 종로 쪽인가요.

요 골목엔 어지간히 사는 사람들이었지.

- 혜화동과 성북동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혜화동은 새로 생기는 분위기였고, 성북동은 오래된 분위기. 거기는 사람들이 이사도 자주가고 그러잖아. 여기는 연립주택으로 바뀐 것 외에는... 옛날 그대로인 집들이 아직도 많아. 그대로야 그대로. 한옥집들도.

- 1930년대부터 성북동이 살기 좋은 동네로 유명했대요.

맞아. 여기 전차가 있었잖아. 전차가 있어서.

- 대하라는 요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때, 대학교 1, 2학년 때, 삼청각이 대한 요정협회 회장, 대하가 부회장이었어. 하하하. 호기심 많을 때 여자들이 건물이 높은 건 이거 하나였으니까. 한옥집에 여자들에 열댓명이 살았던 말야. 그 애들이 특하면 벌거벗고 있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 내 방이...바로 보이는 거야. 친구들 다 불러다가 보고 그랬었지. 하하하.

- 그때 아가씨들 복장은 어땠나요, 한복?

양장이지. 투피스. 잘 입고 다녀. 한복 같은 건 안 입고. 일본 관광객들이 매춘하러 많이 올 때지. 삼청각이 주로 그거였다고. 매춘관광. 이 앞에 일본...저 길상사 올라가는 버스 정류장, 거기서 버스가 올라갔다고.

- 해장국 집도 있었나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애. 주택가이기 때문에.

- 아가씨들 생활문화가 있었나요

개네들 밤에 올라갔다가 새벽에 내려오니까 모르지. 밤에 올라갔다가.

- 안 좋게 보는 분위기는 없었나요?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 우리같이 대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관심 있었지. 상춘관은 요 아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여자애들이 참 이뻐서. 내 기억으로는, 다 이뻐서. 요즘 술집 애들하고 달라.

- 그런 술집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어. 내가 하월곡동에서 준종합병원을 했었어. 그때 하월곡동 가까운 미아리 애들이 와서 검사를 많이 했었어. 골반염, 성병 검사들. 애들 델고 오는 사람들이 포주들인데, 명함을 내미는 걸 보면 대한청소년연맹, 이런 거야. 그때 애들이 다 미성년자야. 미아리 애들은. 이놈들이 ‘청소년선도위원회’, 강북경찰서, 성북경찰서, 방법청소년위원회 이런 명함들이야. ‘야~ 뭐하는 사람들 인가?’ 그랬지. 검사를 할 때 보면 애들이 어리잖아. 19살, 20살. 그 애들이 너무 순진한 거야. 아주 어려서 사회경험이 아주 없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야. 회진을 할 때 이불을 뒤집어쓰고... 술 먹고 마약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수녀원에서 가출 소녀들 데리고 우리 병원으로 와요. 다 그래. 우리들의 쉼터, 해바라기 집, 다 그런 애들이거든. 지금도... 열세 살, 열네 살 애들이. 조그맣고 어린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참 성격이 이중적이야.

그때 당시 들은 얘기가 많아. 포주가 거기 있는 영업소 있잖아. 영업소. 업장 하나를, 경찰들이 소유주야. 월세가 5천 만원이야. 한 달에. 월세가. 그 당시에... 5천 만원을 주고도 1억을 남기는 거야. 그러니까 없앨라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주인이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못 없애는 거지. 그 사람도 후회하잖아.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이라고.

- 근대화 도시화되면서 시골에서 올라온 여성들인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식모들이 다 있었어. 예쁘장한 애들이 있잖아 시골 애들도. 부잣집 딸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과외시키고 그럴 때, 골목에 있는 그 집 딸들이 학교 갈 때 가방이 두 개야. 뒤에 식모가 가방 두 개를 들고 졸졸 쫓아가는 거야. 학교까지. 교복만 바꿔 입으면 애들이 바뀌는 거야.

시골애가 더 이쁘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보면 웃겼다고. 야 저거, ‘바깸어…’ 그랬다고. 또 버스차장하고 그랬다고….

－ 식모들의 생활은 어땠나요?

성폭행도 많았고, 그랬지. 대학생애들도 버스차장 꼬셔가지고. 버스차장 애들도 학생들을 동경하잖아. 고등학교 애들이란 말야. 나이대가. 꼬시면, 버스표를 우리한테 주는 거야. 개네들이 우리한테… 돈 받고 버스 탔지. 우리친구 중에 보컬을 했었다고. 이놈이 키도 크고 잘 생기니까 버스차장한테 몇 마디만 하면 버스표를 이만큼 싹 받아 오는 거야. 그걸로 라면도 사먹고 빵집에서 돈 대신 내고 먹었어. 그때는 그게 돈이거든. 버스표도 사고. 돈 역할을 했지.

－ 상춘관 규모는 어땠나요?

그렇게 크진 않고… 조그만 한 데야.

－ 어떤 분들이 이용 했나요?

바로 요 앞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니고, 성북동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때는 요정이 많았잖아. 옛날에는 요정, 술집이 동네마다 젓가락 두드리고, 싸구려 막걸리, 술 먹고 젓가락 두드리는. 한양대, 성대 앞에도 몇 개 있었고….

－ 교통편이 어땠나요. 전차는 어렸을 때 있었나요?

있었어. 전차를 타면 을지로까지. 우레옥 있잖아. 우레옥 거기가 종점이었어. 버스하고 전차를 타고 다녔지. 그때 당시 초등학교 때 만해도 여기서 신일고등학교 앞이 별동스케이트장이었어. 한참 시골이었어. 신일고등학교 앞에 수

유역, 거기가 다 논이었어. 대지극장만 넘어가면 다 논이었어. 벼농사. 겨울에는 거기가 얼면 다 스케이트장이야. 우리 친구 아버지, 4.19묘지 있는데 벼농사를 졌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그때 개네 집이 초가집이었었는데, 지금은 재벌이지. 그때 그 논을 팔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은 다 재벌이지. 평당 몇 천씩 하는데.

— 그 당시 한양대 갔을 때 교통편은 어땠나요?

동대문에서 갈아탔어. 62번 버스타고 동대문에서, 동대문 운동장, 옛날엔 서울운동장 앞에서 갈아타서 한양대로. 여기서 버스타고 가서 거기서 한양대로 갔지.

— 그 당시 학교분위기는 어땠나요?

한양대학은 공대가 위주인데, 의대가 생기고 나서 커트라인이 10점 이상 (높게)됐다고, 아산병원, 삼성병원도 없었지. 왕십리 이쪽에 환자들은 전부 다 한양대로 갔다고. 개원 첫해부터 흑자가 됐다고. 의대생들은 들어가자마자 공부를 험하게 시켰지. 공대가 의대에 밀려서... 현장에서는 지금도 한양공대가 잡고 있는데, 그때 유신 그래가지고 예과 1,2학년 때 거의 학교를 안 갔지. 2학년 2학기를 레포트로 대체를 했지. 등록금은 내고. 그리고 본과로 올라갔지. 본과에서는 데모하고 상관없이 공부는 하니까, 본과 1학년 때 110명인데 57명을 낙제를 시켰어. 53명만 올라간 거야. 80명이 예과 입학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110명 정도 있더라고. 이게 뭐지? 낙제생들, 보결생들, 휴학생들... 6년만에 졸업한 사람은 14명이야. 다 1, 2년, 3년 다 끓었지. 본과 2학년만 올라가면 낙제가 줄었지. 공부를 안 하고 올라가니까 다 낙제를 시켰지. 그때 당시에는 등록금이 30만원이었거든. 대학 자체를 가는 애들이 별로 없었다고 그때는. 대학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남대문

시장에 점원으로 들어가고, 청계천에 공장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없을 때니까, 그때는, 꽤 많았지.

－ 성북동의 경제활동은 어땠나요?

먹고 살 거리는 없었고, 주거지역이었지. 주로….

－ 어떤 일로 생계는 유지했나요?

요 골목 자체는 사람들이 다 잘 살았어요. 사업하거나 학교선생님, 괜찮았던 것 같애. 요 골목, 저쪽에는 노무자들이 많았고. 농협건물자리, 지물포였을 때, 지을 때 2층에서 인부 하나 떨어져 죽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침을 먹여 보낼 걸.” 그러면서 아주 울고 그랬어. 깡통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생선 장사들도 많았고. 골목길 다니면서 생선파는 사람도(많았고).

－ 시장은 어디로?

시장은 삼선시장. 그때만 해도 삼선시장이 컸어. 복개되기 전에만 해도. 굉장히 큰 시장이었어. 다른 데서도 시장 보러 오고했었어. 처음에는 개천 양쪽으로 시장이 있다가 그다음에 일부가 복개가 되면서 시장 전체가 커지고 그랬다가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게 들어섰다가 다 나폴레옹빵집부터 다 헐어서 개천이 사실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 저 위까지. 위쪽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개천이 올라온다고 그러대요. 쌍다리까지….

－ 훨씬 낮았나요? 개천이. 지형이.

아니예요. 낮지 않았어요. 똑같았어. 개천은 폭 파였어. 다리 놓고 거기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물도 꽤 있었고.

- 홍수나, 넘치고 그랬나요?

넘친 적은 없어. 못 봤어. 거의 찰랑찰랑할 때까지. 비가 오면 그랬고. 바로 요 앞에 폭포처럼 굽이가 하나 졌다고. 넓고 깊었어. 사진을 찾아보니까, 없대. 아버지 사진이.

- 풍경사진이 없을 때니까.

- 한옥들이 지어진 지는 언제인가요?

지금 남아 있는 한옥들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거들이야. 저 위에 신상철씨 집 있던 한옥도 그때 다 있던 한옥들이야. 옛날 그대로 한옥들이야. 집들 구조도 비슷비슷해.

- 세를 주고 살기도 했나요?

요 골목에서 세 살던 집이, 방 하나씩 세를 주는 집이 몇 집 있었어. 하숙 집은 아니었었고, 세를 줬지. 대학로도 옛날에 다 서울 문리대인가, 지금은 없잖아. 지금은. 미대하고 문리대. 거기 학림다방이 우리때부터 다 했었어. 아직도 있었어. 명륜극장도 이 동네에서는 유명했었어. 성대 입구 건너편. 조금 아래쪽. 밑에는 쿤다방.

미아리 고개 넘어가기 전에 동도극장. 지금 어디냐면, 삼선교 핸드폰 가게 있죠 거기 건너편. 동도극장은 2류극장. 미아리 고개 넘어가면 대지극장. 정릉 들어가는 쪽에 또 있었어. 동시상영하는 극장이 있었어.

- 지역에 다른, 오래된 분은 없나요?

있어, 나 외에도, 나 있고, 농협 집, 그 분이 성북동에서 계속 그 자리에

서 살아서... 그 집이 농협하고 그 미용실이 있는 집이 2백 평이 넘어. 좁게 보여도. 우리보다 대여섯살 많은데 옛날 이 골목에서 유명했던 사람이야. 정신이 이상해지긴 했는데... 여기 오래있었어. 그 집 딸들이 다 이대를 나와서, 그 동생이 이비인후과 의사고, 우리보다 한두 살 적나? 그랬는데...

또 누가 오래 사냐하면, 이쪽 골목끝 분식집 있잖아요. 그 건물 주인이 그 뒤에 살아요. 황주섭씨라고. 나보다 네 살 많은 보성 선배인데. 그 사람도 오래 살았지.

— 벽화 그려진 한옥 집 말씀인가요?

그 집이야. 그 한옥 집, 철물점, 분식점 그 쪽 뺑 둘러서... 다 황주섭씨 집이야. 그 사람이 재개발 반대운동을 했거든. 그 양반이 나보다 더 오래됐겠다.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보다 더 컸으니까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

— 약국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대우 옵티마 약국. 길 건너 목욕탕 바로 옆에, 그 사람은 한창 늦게, 내가 대학 때 왔으니까. 그때 시집와서 약국 했으니까, 오래됐지. 여자가 약사야. 대학 갓 졸업해서 와서 한 40년은 됐겠지. 40년? 그리고 연세산부인과, 개도 나랑 동인데, 나랑 과외도 하고 그랬지. 개는 죽 나가 있다가 온지 10년 됐나.. 다시 들어왔지. 그 이금희산부인과 옆 한옥이 이금희씨네 건데, 지분이. 아들하고 딸하고 돼 있을거야. 한옥은 경매에 넘어갔거든. 애가 우선순위인데 그걸 안 했어. 지분의 1/4은(누구), 3/4은 원장 지분인데, 경매로 날아가 버렸는데, 갖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데, 뒤처리를 안 했어. 그 지분이 헐값에 넘어갔지. 1/4 만해도 십억 이상 될 텐데. 서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서로 내나라 그러는 거지. 비어 있어. 지금, 한옥이. 어머니가 거기 살았는데 돌아가셨어. 치매로 있다

가. 그 지분이 둘이 나뉘었을 거야. 그 집도 괜찮지. 옛날에 거기 지금 빌딩 올라 간데 있잖아. 건물을 올리자고. 만나주지도 않더라고. 남하고 관계를 안 맺어. 세법만 연구하고. 동생은 의사거든. 내 후배인데, 활달하지. 유명한 애지. 아버지가 신사동 4거리에 50평짜리 건물을 지어줬는데, 지금 십 몇층짜리로 올렸지. 형하고 다르더라고.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릉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나누기로 하자고….

- 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3 길음동 주민이 들려주는 미아리고개 이야기

- 지막례, 고순심(길음동 주민, 길음종합사회복지관)

●
●

길음동은 동선동에서 미아리고개를 넘으면 첫 번째로 나오는 동네이다. 골짜기가 길게 놓여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기리목골’ 또는 ‘기레미골’로 불렸는데, 그것이 한자화하여 길음동(吉音洞)이 되었다. 비가 많이 오면 이 일대가 물이 많이 차고 길이 질다고 하여 ‘기리미골’ 또는 ‘지리미골’로 불리었다고도 한다. 또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맑고 고와서 좋은 소리가 들리는 동네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한다. 1980년대만 해도 길음동 앞으로 흐르는 정릉천이 보였으나 복개 사업이 완료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한편 길음1동 지역은 2004년에 착공한 길음뉴타운 사업으로 예전의 주택들이 대부분 철거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전혀 새로운 동네로 변모했다.

길음2동 905번지에 위치한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이 지역의 중심 복지시설로 길음동에 거주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는 곳이다. 복지관을 찾아 1960년대 초반부터 거주하고 계시다는 어르신 두 분을 만나 여기서 살아오신 이야기와 그 시절 길음동과 미아리고개의 풍경에 관해 들었다.

백외준

길음동 주민이 들려주는 미아리고개 이야기

일 시 : 2015년 1월 22일

장 소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구술자 : 지막례, 고순심

인터뷰 진행 : 박수진, 백외준

- 언제 이곳으로 이사 오셨는지?

(지) 서울에 처음 와서 이 밑에 하꼬방촌 방 한 칸에 이만오천원에 전세로 이사 왔어요. 방 두칸 주인이 5만원 주고 샀다고. 60년대, 63~64년도에 이사 왔어요. 물은 등기소 있던 자리까지 내려가서 떠오고.

(고) 나도 그 정도에 왔는데, 그때는 방 2~3만원 주면 작은 방, 물을 지어다가 차로 물차가 와서 물을 받아먹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왔었어요. 미아리고개있는데 전부 집이 없었어요. 길도 없었고... 미아리고개는 왜 많이 다녔냐면 30살쯤 서울에 왔는데 장사를 하러 다니라 차로 왔다갔다 하니까 알지요. 길음동 본토박이에요. 여기가 송천동 산75번지였어요.

- 이쪽이 다 공동묘지였죠?

(고) 공동묘지 허물고 집이 군데군데 있고, 집터로 남은 데도 있고.

(지) 움막처럼

- 60년대 초반에 오셨으면 그때는 미아리고개 공사 전이죠?

(지) 그때는 미아리고개 올라오려면 높았는데 지금은 다 낮아졌어요.

- 전차타고 이 앞까지 오신거예요?

(지) 전차가 성신여대 앞까지 왔어요.

- 집이 언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고)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군데군데 비어있어요. 집도 하꼬방 같이 생겼고. 호박밭 배추밭 있고 그랬는데, 집이 다 들어온지가..

(지) 70년대 쯤? 찾길이 안 되어 있었거든. 땅 파고 도로 만드느라 잠도 못 잤어요. 길도 좁아서 버스가 안다녔는데... 여기서 25번(버스)타면 서울대 있는 신림동까지 다녔어.

(고) 25번은 없어진지 얼마 안됐어요. 삼양동이 종점이라.

(지) 없어진지 한 20년 됐을거야.

- 그게 제일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나요?

(지) 길 좁은데 도로내서 다녔어요.

- 미아리고개 있으면 시내 쪽에는 그래도 건물이 많았죠? 그때 무슨 일을 하셨나요?

(고)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많았죠. 그때는 돈벌이가 없어요. 생선장사도 해보고, 건어물 장사도 해보고, 미역장사도 해보고 가리지 않고 했어요. 중부시장에서 했어요. 거기서 물건을 떼어서 걸어서 돈암동에서 부터 정릉으로 해서 애기들이 많았으니까 저녁때 되면 집에서 밥 해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리어카 장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파리장사들이 집집마다,, 한 집에 가면 몇 집이 사니까 몇 사람이 사요. 방마다 집들이 있었으니까. 미역을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미역, 멸치, 계란...

(지) 나는 주인양반이 시골에서는 시청 다녔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군대

안 갔다 와서 떨어졌어요. 서울 올라와서 건축 일한다고 그거 하고 나는 집에서 뜨개질, 스웨터 짜고 단추도 달고 실밥도 따고 그랬어요.

- 서울로 가거나 장사하시거나 시장가실 때 고개 넘어서 서울 안으로 들어갔어야 했네요?

(고) 중부시장 가기도 하고, 그때는 서울역 뒤에 중앙시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도 갔고.

- 이 동네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부분 동대문으로 나가거나 시내로 나가서 그 쪽에서 장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 인천도 가고 안 간데 없이 다녔어요.

- 공동묘지, 60년대 초반이 많이 없어졌기는 했지만 무섭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고) 집 지으려고 땅 파면 뼈가 나와. 그럼 절을 하고 뭐 차려놓고 그랬어요. 호박밭이고 그랬어요. 뼈다구 밍이고 그래.



인터뷰 중인 지막례 할머니(우)와 고순심 할머니(좌)

(지) 방구들 놓으려고 파면 뼈가 나와.

- '귀신 나온다' 그런 이야기는?

(지) 그런 얘기는 못 듣고, 새벽에 1시, 2시쯤 물 길러 가면 누가 시커멓게 오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무서우니까 물통을 서로 부딪쳐서 소리 내고 다녔어요.

- 물 길는 곳은 어디였나요?

(지) 이 아래로 내려가면 미장원 자리에 수도꼭지가 있었어요. 공중수도가.

(고) 그때 친구 말로 물을 지게로 해서 물을 팔더라고.

- 옛날에 정릉천도 이 앞으로 흘렀잖아요. 그게 옛날에 깨끗했다고 하던데.

(고) 처음에는 깨끗했는데 나중에 더러워졌죠. 지금은 메워서 이렇게 됐는데.

- 예전에는 더러워지기 전에는 그냥 마셨다고 그러던데.

(고)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염이 됐죠.

- 거기서 물 길거나 하지는 않고 공동수도에서?

(지) 막둥이는 시골에 보내놔었는데 미날강에 데려다 달라고 그랬데. 미아리고개만 넘으면 우리집 찾아오니깐.

- 걸어서도 자주 넘어 다니셨어요?

(고) 걸어서도 다녔어요.

- 공사하기 전에 고개 넘어 다니다가 기억에 남는 것이? 사당도 있었다던데?

(고) 미아리고개 밑에 장님이 많이 살더라고.

- 그 분들도 인터뷰 했거든요.

(지)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고) 올라가면 부처님 같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몰라. 높이 세워져 있었어. 그런데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지어서 모르겠더라.

(지) 성신여대 쪽으로 불상이 있었어. 돌로 된 불상이 있었어요.

- 당산나무 같은 것도 있었어요?

(고) 당산나무는 모르고 사당 같은 것은 있었지요. 꼭대기에.

- 사당 같은 곳은 들어가 보셨어요?

(고) 보기만 했지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 재개발 할 때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고) 재개발은 처음 삼부아파트, 다음에 동부아파트가 됐어요. 그때는 이사 안 가서 수도꼭지 뽑고 싸우고 그랬어요.

- 몇 년도쯤이죠?

(고) 기억이 안나네요.

(지) 동부아파트 쪽은 97년도에 헐기 시작했어요. 물 길으러 가려면 길이 좁아서 리어카도 지게에 지고 걸어다녔어요.

- 처음 오셨을 때에도 미아리고개라고 불렀죠?

(지) 시골에서는 서울 온다고 좋다고 와서 보니까 산중이야. 길도 좁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고) 우리는 큰 기와집 살다가 여기오니깐 셋방을 사는데... 시골이 더 좋아.

- 지금도 시골가면 훨씬 큰 집에서 살잖아요.

- 쪽 사시다가 이쪽 재개발도 되고 시장도 생기고(그런거죠)?

(지) 길음시장 생기고... 비오면 무릎까지 빠지고.

(고) 텍사스촌 있는 데도 시장이 있었어. 그때는 젊은 사람들 이해가 안가.

- 지금도 남아있긴 있어요.

- 길음시장은 언제쯤 생겼어요?

(고) 우리가 왔을 때 이미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었냐면 그냥 길이야. 조그마한 길이 쪽 이어져 있어.

- 시장에 계신 분들은 동대문에서 물건을 받아서 장사하셨나요?

(고) 그렇지 중부시장도 가고.

- 지금으로 생각하면 거기는 도매네요. 이쪽은 소매고.

(고) 길음시장이 조그맣고, 소매야. 젊은이들이고 거기 앉아서 소매한거야.

- 이쪽 사시는 분들은 큰 거 아니면 길음시장가서 사셨겠네요?

(고)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사 먹었어. 그때는 잘 됐어.

(지) 20년 전까지도 용산 그 시장 다음으로 길음시장이라고 했어요. 물 건도 싸고 채소 같은 것도.

— 이쪽 밭농사 많이 지었죠?

(지) 이쪽은 모두 채소밭. 삼양동 쪽으로 가면 논이 있었지.

(고) 장위동 넘어가야 논이 있었지.

— 장위동쪽으로 가는 버스는 있었나요?

(지) 장위동으로 가는 건 32번 있었어. 많이는 없었어요. 광운중학교, 남대문중학교다니는 학생들은 많이 걸어다니고….

(고) 미아국민학교도 전통이 오래 된 거예요. 송인국민학교도.. 여기는 많이 걸어 다녔어요.

— 송인하고 송덕이 국민학교인데 만명씩 다녔다네요.

(고) 막내가 그때 송인에 입학했는데, 1학년 입학생이 운동장으로 하나야.

— 그때 2부제 3부제….

(고) 그랬어요.

— 자제분들 학교다닐 때 이야기도 해주세요.

(지) 우리아이들은 가까우니까 송인 다니다가 송덕으로 갔다가. 거기서 공부해서 시험보고 송인으로 올라왔어. 거기서 큰아들 처음 중학교 추천했네. 추천해서 주간으로 서라벌 갔어요.

- 여기 서라벌에대도 있었잖아요.

(고) 우리 큰 아들이 시골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서울로 왔는데. 큰아들은 미아국민학교 들어갔는데. 아무리 시골에서 잘해도 자꾸 점수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더니 한 몇 달? 일 년 되니까 도로 올라가더라고. 신일중학교 들어갔어요. 거기서 신일고를 다녔어요. 거기서 우리 아들은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동국대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우리 막내는 서라벌학교 다녔어요. 그때는 예술학교에서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거기서 정릉까지 가면 고등학교가 있어. 우리 막내도 영문과 나와서 대한항공 기장이 됐어요. 서울 와서 잘됐다고 생각해. 딸들도 하나는 고등학교 나오고 둘은 전문대 나왔어요. 하나는 은행에 있었고. 우리 둘째는 시골로 전학했어요. 거기서 고등학교 나와서 전문대 이년을 다녔는데 여기 마포에 놀부보쌈 사장이에요.

- 고향은 어디세요?

(고) 전남 구례.

(지) 전북 익산.

- 그때는 중·고등학교는 많이 없었죠? 서라벌 이외에는...

(지) 장위동 넘어가야 있고 미아리고개에 중학교가 있었지.

(고) 여기서서 서라벌 많이 가고, 정릉에도 무슨 고등학교가 있었고.

- 마지막으로 동네에 사시면서 옛날이야기 중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지) 그 전에는 애 둘만 있어도 방을 안줬어. 우리 애는 순하고 누구하고 싸우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 주니까 미역장수가 우리 방 준다고 그

리로 가서 한 번 들어가고. 방 한 칸 가지고 다섯 식구가 산다고.

－ 집은 사신 건 언제쯤?

(지) 집 산거는 1980년도. 살다가 도로 재개발한다고 넘어가버렸어.

(고) 전세로, 처음에는 방 작은 거 하나 얻었는데 다락에서도 자고 밑에 서도 자고. 10년 만에 집 샀어요. 집 가지고는 고생은 안 해봤어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고) 지금은 우리가 이만큼 행복하게 사니까. 더 이상은 바라는 것 없고. 몸 아파서 자식들 고생시킬까봐 그게 걱정이야.

(지) 없어요. 영감님 돌아가신지 10년 됐지만, 혼자 살아도 아이들이 잘 해주고.

－ 몇 년생이신지?

(지) 30년생.

(고) 호적으로는 38년생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35년생.

－ 두 분은 언제 만나셨어요?

(고) 여기 와서... 33살 때쯤 만났어요.

－ 긴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 오히려 우리 옛날 얘기 재미있게 들어줘서 고마워요.

4 미아리 전투 목격담과 한국전쟁

- 장남용(6.25참전유공자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회)

●
●

미아리 전투는 1950년 6월 26일부터 27일에 미아리고개에서 벌어진 한국전쟁의 전투이다. 한국 전쟁 초기 북한군의 기습적인 전면 남침으로 38도 분계선에 인근한 전선이 무너졌고, 이어서 38도 분계선으로부터 45km에 불과한 수도 서울에 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군은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하여 창동-미아리 등지에 저지선을 펴고 여기에서 남침을 극력 저지하려 하였으나, 북한군의 전차 앞에는 속수무책이 되어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 수도 서울을 북한군에게 넘기고 한강 선에서 다시 대진케 되었다. 미아리 전투는 이응준(李應俊) 소장이 이끄는 국군 제5사단과 유재흥(劉載興) 준장이 이끄는 제7사단이 미아리고개에서 치른 최후의 서울 방어 전투였다. 장남용은 미아리 전투 당시에 열일곱살의 나이로 돈암동에 거주하였으므로 당시 전투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후에 학도병으로 지원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이현주

미아리 전투 목격담과 한국전쟁

일 시 : 2015년 9월 23일

장 소 : 6.25 참전유공자회 서울시 도봉구 지회 사무실

구술자 : 장남용(학도병)

인터뷰진행 : 이현주, 박수진, 백외준

– 미아리 전투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그게 그것이 동도극장을 친구들하고 영화구경을 갔었어. 토요일날. 토요일날 영화극장을 갔는데 상영시간이 됐는데 상영을 안 하더라고. 바깥에서 전차 다니고 그럴 때니까, 토요일이니까. 군인들 휴가 나온 사람들은 복귀하라고 헌병들이 지프차타고 다니면서 부대로 들어가라고 떠들더라고. 토요일날이지. 개들(북한군)이 일요일날 왔으니까.

극장을 안 하고 나가는데 돈을 주고 들어갔는데 돈을 안주고 종이쪼가리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일오라고 우리 향의를 했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돈을 안 주구. ‘내일 상영 할 테니까 이걸 표시하시라고 그때 가서 안 되면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나와서 집에 오는데.

그 때 군인들이 도라꾸에다가 재무시도¹⁾, 말하자면 징발 된 거지. 군인들이 모자에다가 나무에다가 풀 같은 거 해가지고. 하~ 이거 돌아온단 말야! 휘청휘청하면서. 고개 너머를 가는 거야. 차로. 근데 그 당시에 미아리고개가 높

1) 재무시는 GMC 트럭의 일본식 영어 발음이다.

았어요. 상당히 높았다구. 지금은 깎아서 없어졌지만, 재무시 하나 들어가고 마차 하나 딱 서면 들어갈 데가 없어. 양쪽에. 고개 넘어에 집이 몇 채가 있었냐 하면, 집이 세 채가 있었어. 장님 집. 눈 먼, 장님들 땡기는 사람이 지금 꼭대기에 하나...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집이 하나 있었고. 옆에 호떡집이 있었어. 호떡집. 호떡 귀서 파는 집. 똥통 구루마 전부 거기다 푼다 말이야. 그 당시엔 똥을 퍼서 한 지기 얼마씩 해가지구. 그 때는 수세식이 아니니까. 한지기 얼마 똥통 구루마. 올라가는 데로 마чат길 하나가 있고. 고 밑에 내려오다가 땡가지 공장이 있어. 땡가지 잘라가지고 땡 땡기는 사람. 땡가지.

그런 사람이 한 가족이 있었어. 한 세대. 한 가족이 있었어. 집도 좋지도 않아. 그리고 전부 산이란 말야. 산. 전부 집이 없었어. 전부 산이란 말야.

돈암동이 극장을 안 하니까 집에 있는데, 그 당시에 군인들이 거기서 전투를 했다가에 전투를 하는 걸 한 눈으로 보지를 못했고, 나도 이제 열일곱 살, 열여덟 살이나 열일곱 살 때니까 돌아 땡기는 걸 보는 거지. 대망. 대망을 미고, 상사급들은 칼빈을 메고 쫓겨 다니는 거야. 두서너 명씩 분산이 된 거야. 거기서 싸웠다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왔다가갔다 하는 거야. 우리 형, 나하고 십년 차이인데, 형 옷을 주시라고 우리 맞는 옷이 있으면 좀 주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군인이. ‘아버님 입던 거 찌그러기도 괜찮으니까 하나만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줬다고. 총하고 엠오(M5: M1소총에 부착하는 대검)하고 두루루 싸가지고 튀어 나가더라고 종암동 쪽이나 신설동이나, 전부 쫓겨 다니는 거야. 싸울 데가 없었어. 구덩이도 없었고.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 총소리가, 말하자면. 아침에, 새벽인데 쿵쿵 소리가 나. 소리가 올라오는데 포 소리가 나더라고. 집안에 소리가. 전부 숨어서들 있고 그럴 때니까. 집안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고. 나는 그거 구경 대니느라고 쏘다니는 거야. 군인들이 하는 행동을.

그런데 방어를 할 수도 없거니와, 거 공동묘지도 있고, 분산이 됐어 전부 다 헤어져가지고… 왜냐 하면 이게 분산이 됐어. 헤어져가지고 도망하는 직전에 놓여있더라는 얘기가. 그런데 군인들이 자꾸. 쿵쿵 소리가 나는데.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탱크가. 미아리 저 끝에 의정부지 그러니까 포르썰면서 우릉우릉 하면서 막 올라와. 멀리서 숨어서 보니까 탱크를 끼고서 인민군들이지.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앞질러 가지를 앓고, 탱크 뒤에 따라서 떼 몰려오면서 총을 쏘면서, 이쪽 여기 아군들은 개(인민군) 상대가 안돼. 상대가 안 되가지고선 도망하기에 바쁜 거야. 근데 배고픈 사람은, 이제 가정집에 들어가서 밥을 달라고 얻어먹고… 보급도 없고, 오직 빵크, 총 하나, 뭐 찌끄라기 신고선 도망가기가 바쁜 거야. 싸움은 거서 무슨 싸움을 해. 분산이 되 버렸어.

근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었냐면, 이미 거기 산 사람이 얘기해줘서 아는 거지. 내가 직접 목적은 못한 거라고(아래의 이야기 부분을 직접 목격 못했다는 이야기). 아저씨? 할아버지? 아버지뻘이지.

땃가지 공장을 하던 할아버지가, 집이 거기니까 도망갈 수는 없고, 집에서 숨어서 보는 거라고. 탱크가 부릉부릉 올라오는데 탱크가 뒤에 따라 올라온단 말이야. 첫 탱크가 올라오고, 미아리고개로 올라오는데, 그 언덕위에가, 미아리 고개가 높았으니까, 재무시 한 대가 떡 서있더라 이거야. 재무시 한 대가.

자기도 집에서 일보기 때문에 뚜렷이 못 봤지만은 군인인데 도라꾸에²⁾ 올라가가지고 본네뜨에다가 뭘 묶고 이러더라. 그러더니 조용하더라 이거야. 도라꾸가.

근데 미아리고개가 어디를 높았기 때문에 꼭대기는 아니고 중간쯤 쯤

2) 도라꾸는 트럭의 일본식 영어발음.

올라와서 요정도 되는데, 복판으로 탱크가 하나 올라 오는거야.

그니까 이제 딱 차는 거지. 이게 마차길이니까 좁잖아. 쫓아오는데. 재무시가 스르르 내려가더라 이거야.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내 얘기를 들어봐. 가서 땅 박은 거야. 다이다이(일대 일) 한 거라 이거야. 폭탄을 싣고서. 그래서 미아리고개에서 두 시간 가량을 탔다는 거야. 탱크하고 부딪혀 탄 것이 두 시간을 탔다는 이야기야. 나는 봤으니까. 동네니까.

그런데 저 놈들이 군인들이 인민군들이 올라오면서. 탱크를 끼고서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야. 뒤에는 탱크가 몇 대씩 기다리고 있고, 타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가야 하는데 탄 데로 빠져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탄 다음에 밀어내드래. 탱크를 밀어내드래. 밀어내고서 그 탱크가 미아리고개 전차길 넘어서 여 오더니, 그걸 끝나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집이 이제 보고 오는데….

동네사람들이 절대 피난나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동네도 그렇고…그근방 미아리도 그렇고. 피난나간 사람이 없었어. 갑자기 닥쳐오는 거니까.

- 정확히 어느 지역이었나요?

동네 1번지, 9번지, 1번지, 미아동은 경기도야. 그 당시에. 9번지하고 1번지는 탱크 부서진 데가 고 근방에가 9번지고 밑에가 1번지야. 서라벌예대 알아? 거긴 성북구로 들어가 거기 두 군데는 서울특별시 돈암동으로 들어가고 개천 건너서는 이쪽으로는 전부 의정부, 경기도로 들어가고.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선 타는 김에 우리나라가 이득을 많이 봤다 이거야. 그리고 나중에 한강을 끊었다고 하는데, 공병대가 소령인가 중령인가 끊었다고 해가지고 사형 받았잖아. 끊은 사람은 사형을 받았지만은, 공병대가 소령인가? 사

형 받았잖아.³⁾ 그 바람에 군인들이 많이 후퇴했다 얘기가. 엄청난 숫자를 얻은 거지. 기자들이.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야. 그 때 당시에는. 인민군들이 집에 특들어오더니, 아 아바이 동무. 우리가 북진통일을 해가지고 해방을 시킨다. 아바이동무. 아버지가 놀랄 수밖에. 엄격한 아버진데 할아버지가 문교부 장관을 지냈는데,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수유리로 왔지만은, 그래도 가문이 있잖아. 우리 집안에 첩지도 있고. 민씨네하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민영익이하고 일가거든. 전부 족벌정치하고 얹혔단 말야. 전부 공직에 있었어. 옷대들이. 그 얘기는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6.25때만 얘기하는 거야. 아바이동무. 우리가 북진통일을 해가지고. 아바이동무가 뭐야? 처음 듣는 소리 아냐. 아바이동무라고 하니까 환장 하는 거지. 돌아서는데 군인이라 얘기를 못하고.

(인민군)몸에서는 썩는 내가 나는데, 말할 것 없어. 근데 개들은 양말이 또 뭐냐 하면은 이런 양말이 아니에요. 개들은 앉아서 신는데, 발에서 썩어, 썩어. 발에서 냄새가 나는데 옆에를 못가. 군인 옆에를 못 가는 거야. 쪽 서서가지고 총들을 쓰러뜨려 놓고 발을 정리를 하는데, 쑥 쓰러뜨려 홀다이(한장)요, 홀다ירו, 광목인데 광목을 도르르 말아가지고 싸. 발싸개. 그거 또 빨아가지고 바꾸는 거야. 그걸 바꿔 신고... 양말이 없어. 개네 옆에를 갈 수가 없어. 암만 목욕을 할 수 있겠어? 뭐를 할 수가 있겠어? 개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나도 그때 당시에 나중에 피난을 나와 가지고 학도병으로 갔지

3) 한강철교 폭파에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한 사람은 당시 공병감으로 있던 최창식 대령이다. 하지만 그는 재판정에서 채병덕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한강철교 폭파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범석의 건의라는 설과, 미군 장교였던 하우스만 대령이라는 설 등이 제기 되었다. 이 모두 최창식 대령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며, 12년이 지난 1962년 최창식 대령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복권되었다.

만은 거기 미아리 사실은 아는 사람이. 목격한 사람도 깊이를 몰라.

어저께 그날 (행사를)가니까는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 군인들에게 나눠줬다. 그 사람을 그 아줌마를 갖다가 국가유공자로 만들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대. 그거를 듣다 보니까, 몰라. 그 사람은 해줬겠지. 어디서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그 때 그걸 인민군이니까 동네 치안대가 생기는 거야. 빨간 완장 착 두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동네 놈들도 아냐. 빨갱이가 생기니까 금방 치안대가 생기는 거야.

동네에 있는 유지들을 다 알거 아냐. 빨갱이가 딱딱 불려. 내 친구도, 부르면 그 친구 올 거야. 그 친구 아버지도 동네유지인데 끌려갔어. 홍영기라고 있어.

- 당시 피난을 못 가신 이유가 있나요?

그때 당시에 피난을 왜 못 갔냐면은, 토요일이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왔기 때문에 동네사람들 하나도 피난을 못 갔어. 누나뻘 되는 사람들은 인민위원장, 여자들 뭐. 김일성노래. 빨치산노래 해가지고, 이대 합동해가지고... 어디서 생겼는지 빨갱이가 금방 생겨. 잘 사는 집, 거기서 잘사는 집. 우리 아버지도 붙들려가서 매를 맞고 나왔다고 했더라고. 그 때 청년 단장. 단장실이 있어. 집집마다 노인정처럼 청년 사무실이 있었어. 동네마다 불려다 때리면서... 그리고 재봉틀도 있는 집, 드물잖아. 우리 형이 재봉틀이 재단사니까. 재봉틀도 뺏어가고. ‘넌 잘 살았잖아!’ 이 지랄 하더라고. 그 놈들이. 잡아가면서 동네를 끄질러 가는데, 완전히 공산국가가 치하가 된 거지. 내가 왜 인민군에 안 끌려갔냐면은, 돈암국민학교가 있어, 돈암국민학교에서 소집을 한다고. 동네 젊은 친구들을.

- 당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원 나이는 83, 호적상의 나이는 82... (50년 당시에) 당시는 열일곱 살.

끌려가는데 가는 거지. 뭐 회의를 한다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젊은 애들, 젊은 여자들 끌려가는데. 오줌이 난 마렵더라고, 오줌이 마려워서, 오줌을 누고 보니까 난 저 멀리 많이 갔어. 많이 갔길래 뛰어서 집에 돌아왔지. 아버지가 한문을 많이 배워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너 왜 왜 쏘댕겨 이 새끼야’ 그 때 개구쟁이 노릇을 했어. 내가. 얼굴은 예쁘장하고 쪼그만 했지만 개구쟁이 노릇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락 속에, 안방에 다락이 있고, 거 물건들 집어넣는 다락에, 거기다 쳐놓고 통을 하나 넣고, 거기다 쳐 넣고, “오줌 마려워도 나오지 말고” 거기다 집어넣더라고. “아버지 말고 말하면 나오지 말라고. 누구든지 나오려면 나오지 말고. 너 가만있어.” 막 호령을 하더라고. 다락방이 뭐 크기나 해? 요기서 요만한데 꾸부리고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니 “나와.” 아버지가(불러서) 나왔더니, “너 추릴 거 짐 추려” 보파리 하나 주고서는 “나 따라와” 그 때 어른이 해라면 꿈쩍 못했지. 하라는 대로 했지. 날 끌고 가평으로 가. 가평, 청평 있잖아. 현리 쪽으로. 밤 많이 잤 많이 나는 데로. 지금 유원지가 좋지만은...

현리, 밤 많이 나는 데로. 먼 친척 네 집이야. 넌 아버지가 데리러 올 때까지 꿈쩍 말고 있으라고. 거기다 갖다 넣어 놓더라고. 완전히 인민군 세상 아냐. 인민군. 서울은 인민군 체제가 된 거야.

거기다가 밤 잤... 거기 잡곡이 많이 나거든 잡곡. 거 좀 얻어 놓으면은 아버지가 걸어서, 청량리에서 130리, 140리 차도 못타고 걸어서 짊어지고... 왜 그러냐?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아군이 북진해 올라왔어.

(누구 들어옴)

아군이 북진해 올라왔을 때,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 소위라는 사람이 있어. 이 소위. 그 사람 대령으로 제대했지만 한국군 2사단인데,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전쟁을 하면 전화 가설하는 사람이야. 현리. 이 소위가 자기 그 부하들 데리고서 거기 나 있는데 동네로 왔더라니까.(가평).

그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 밤 나오는 걸 잘 아나봐. 밤 나오는데. 쌀 한가마니 하고 밤 한말하고 맞바꿀 수 없느냐? 날 그 동네 사람들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밤 있는 걸 가르쳐주지도 않고 어디다 파묻어놓고선... 누가 쌀 한 가마니하고 밤 한 가마니하고 바꾸겠냐 이거야. 쌀 한가마니하고 밤 몇 가마니하고 바꿀 수도 있는데. 가짜 뺏어갈려고 그런다 이거야. 군인들이 뺏어갈라고.

나는 깨달아가지고, 장교님. 밤 한가마니를 의심하니까 갖다 놓으시오. 갖다놓으면 저 사람들이 가져 올거요. 그 이튿날 우리나라 쌀이 아니고 전부



장남용 선생이 이야기한 사진. 뒤에 고위 장교들이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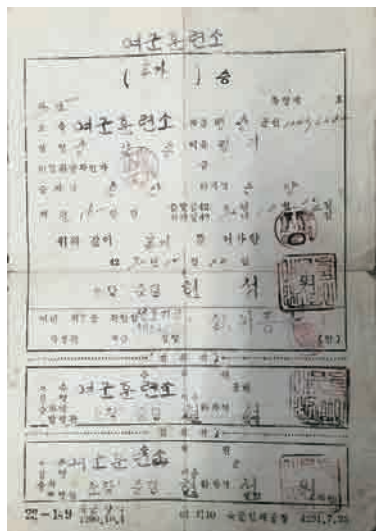


앞 줄 가장 왼쪽이 장남용 선생. 스스로 키가 작았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온 쌀가마니 푸대에다가 갖다놓으니까, 진짜지, 뒷동산에 가서 밤 묻어놓은 걸 캐다가 바꿔달라니까 바꿔줬단 말이야. 전부 바꿔 놓은 거야. 동네에 소문이 나니까 전부 바꾸게 해 달라.

이 사람(이 소위)이 뭐냐 하면 내가 부대 들어가서 알았는데, 상급자에게 상납 하려고, 높은 사람에게, 부대에는 쌀이 흔하고 자기 사단장에게 바친 거야. 한병선이라는 참모장에게 바친 거라고.

그니까 날보고 하는 얘기가 빠리빠리 해 보이니까, 암만 봐도 너 여기 사람이 아니고 서울서 피난 나왔다고. 너 나 따라 안 가



여군훈련소 휴가증

려냐고. 장교가. 배고파서 거기 따라왔으니까 밥만 준다면야, ‘그래 임마 밥 줄 테니 나 따라오라’고. 따라 가지고선 그 사람한테… 아버지한테 편지 간단하게 써놓고서… ‘아버지. 나는 부대를 따라갑니다.’하고 거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갔어.

가자마자 그 때 군복… 내가 키가 쪼그마한데 내가 사진을 보여줄게, 이것도 우리나라 없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야. (–찍어도 되겠습니까?) 찍어도 되지. 여기가 이북이야. 이북이고. 그 당시에 나고. 여기 대학교수도 있고 많아. 잘 봐. 별자리야. 여 위에 있는 건 다 별자리고. 요 밑에는 소령중령들이야. 별둘, 셋. 하나짜리는 여기 끼지도 못해. 여기는 소령. 땅에 앉은 사람들은 전부 중령, 소령들이야. 이 사진은 나만 가지고 있다고. 이걸 없어.

– 학도병으로 가신 겁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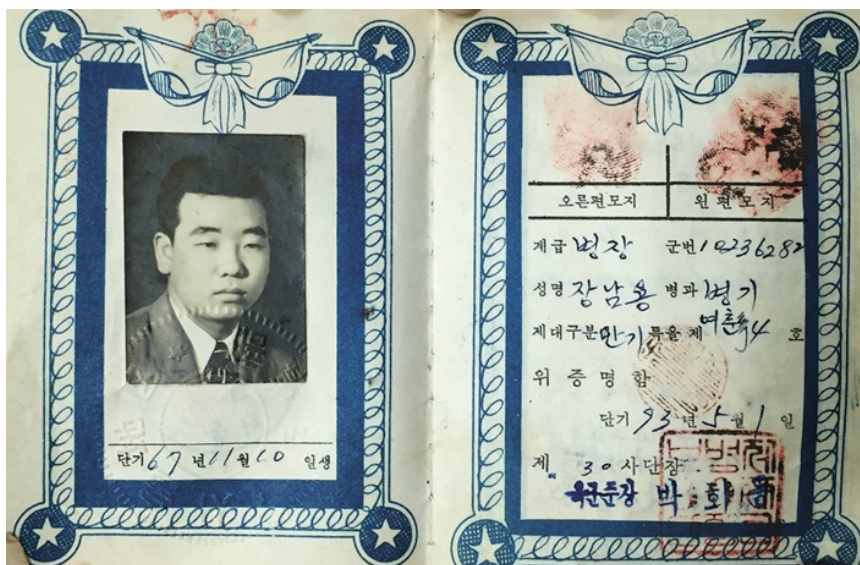
응응 나중에 얘기할게. 미아리, 나중에 행동하는 것은 많지만은 미아리 이 쪽은 아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내가 여군훈련소 김숙 대위하고도 같이… 여군훈련소… 이게 제대증이고… 어디 돌아다녔다는 게 다 나와 있어.(오래 가지고 댕겨) 이게 군인 제대증이라고. 이게. 그게 이제 애는 그짓말 못하지. 나 여군훈련소에서 제대했지만은.

– 여군훈련소는 어디에 있었던 곳입니까?

삼각지. 이태원 넘어가는데.

– 그 곳에서 조교로 계셨습니까?

제대증. 몇 월 며칠에 들어가서. 제대증이야. 그전엔 큰 걸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와. 제대증.



장남용선생의 제대증



전투 당시 북에서 찍은 사진

- 사진 속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긴 이북이지. 우리나라 아니야. 이북에서 찍은 거야. 처음 올라갈 때, 우리나라에선 처음이지. 우리나라에선 처음 올라갈 때, 중공군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후퇴를 했지.

- 후퇴했을 때 많이 힘들었죠?

말 못하지. 그 애길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군이 쓰러져서 죽잖아. 죽으면 구석에다 집어던져. 동네에서 만지는 사람이 없어. 만지면 뭐라 할까봐. 낮이 되니까 없어졌어. 군인 죽은 피 출출 흐른 거는. 개들.. 개들끼리 (놔둬). 그런 애들은 (충에)맞아서 쓰러져서 죽었을 거 아냐. 놔두면서 지들 다 치면 얼른 신고 가고. 우리 아군 쓰러져서 죽은 거는 밝히지도 않아. 그리고 그 이튿날 동네사람들이 슬금슬금 갖다가 어디다 갖다 뒀는지 모르지만. 그 때 아군이 이쪽 편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게 참 매정 한거야.

(베터리 교환)

이 사진은 드문 거야. 큰 거. 이거는 내꺼니까 관계없는 거고. 이 사진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가진 게 없지 않나 생각해. 이걸 왜 나를 줬느냐? 거짓말 탄로 날 것도 없고 내가 이 부대에 있다가, 이 부대 원래는 미군부대(야). 한국군으로 갔다가 배고프니까 (미군)2사단하고 합동 싸움을 같이 했어. 2사단. 인디언 있잖아. 한국은 2사단하고 같이 들어 갔어요. 같이 전투를 하고, 포를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랬다고. 그런데 내가 여겼어 봤자 소용없으니까 ‘미국 놈에게 들러붙어야 되겠다.’ 미국 놈에게 들러붙어가지고, 뭐 기가뻑히게 잘 했겠지. 부식이 좋고 말이야. 부식이 뭐 기가 뻑히자네. 거기 있다가 안 될 것 같아

서, 나중에, 휴전이 됐다고. 간단히 말해서 거기 군인이 적었어. 지프차하고 쓰리쿼터만 하사, 군인 몰았고 군인이 적었어. 운전수가. 차도 징발 되서 왔어. 몸하고 같이 징발 되가지고. 군속, 군관으로 해가지고 써먹었다고. 휴전이 된 다음에, 뭐 나도 하사를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달아 준거야. 그 자리에서 하사를... 누가 나이 30, 40된 사람이 군대생활하려는 사람이 어딴여? 그래가지고 그만 난 집으로 가야되겠다. 휴전된 다음에 그 사람들 다 나왔어. 나중에 수송학교가, 나도 수송학교 교관질 했지만은, 수송학교 나중에 창설된 거야. 군악대. 군악대, 나중에 부산서 창설 되가지고서 그 때 이제 군인들을 가르쳐가지고 배관시키고 그랬어. 그 당시에는 한참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참했어. 저 보급이라든거는 우리나라 보급은 전부 일본에서 건너왔어. 일본거야. 스카다미니 뭐 전부 다 일본이 일어 난게 그래서 일어 난거야. 우리나라에선 날 수가 없으니까.

- 전쟁기간 동안 가족들은 어떻게 계셨습니까?

가족들은 휴전됐잖아요. 같이 있던 사람이 연대 최승락 선생이라고 문리학장이야. 인하공대 창설 당시에, 이 양반이 돌아가셨지만은 최승락이라면 연대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 문리학장이니까. 이 사람이 연희대학을 졸업해가지고 4학년 때 나하고 똑같은... 이 사람은 청평 사람이고 돈암동에 집이 있었어. 가평에도 집 있었고.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기술이 있었어. 미국에서 들어온 기계 같은 것을 망가지면 고치는 사람이 없어.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고치니까 그 사람을 쓴거야. 나는 이 양반보다 먼저 들어오고, 부대 안에서 이제 알았지. 거서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이 양반이 나를 꼬집어 내가지고선 '나하고 같이 있자' 그래가지고 이 양반 총각 때도 원래 인하공전 간거야. 따라 간 거야. 같이 방하나 얻어가지고 이 양반은 선생이고 나는 제자고. 그래가지고선 생각지도 않는 나도 항공과를 지망해가지고서 다니다가, 이 사람

은 연희대학으로 가고 나는 그 학교에서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때 편입신고가 있었어. 서울대, 연대고대가 학교가 비니까 자기 과를 잘못 맡은 사람은 2학년서부터 편입신고를 했었어. 연대, 고대, 이대. 그 때 이승만이가 기피자는 무조건 깃 다운시켜가지고 선생이든 뭐든 모가지 시켜가지고 잘라가지고 내보내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행세를 못하게 했어. 대학교수들은 다 끌려갔어. 미아리 한 많은 고개 노래도 불렀지만은 그 당시 숨은 사람은 안 끌려갔지만은, 동네에서 선생, 그 사람들 다 이북으로 끌려가면서 김일성대학 순시한다고. 학자들은 끌려가고, 동네유지들은 천대가 말할 수 없지. 악질노릇을 했으니까. 선생 교수들은 대우를 해줘가지고 데려갔고. 동네유지들, 우리나라 빨갱이나 마찬가지로. 끌고 넘어가고, 병들면 그 자리에서 쏘아서 죽여 없애버리고. 우리나라도 이북가서 그랬어요. 내 이런 얘기를 할게. 집이 타지 않고 고대로 있었어요. 강원도 쪽으로 올라갈수록 집이 좋아. 우리나라로 올수록 집이 좁았고. 거기 나무가 많으니까.

부대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학교 같은 데. 동네 같은 데 주둔하고 있어. 그게 부대야. 제일 중요한 데만, 막사, 천막 뭐라고 하지. 그 뭐... 군대 왜 전방에 집 없는 데로 가면 텐트, 군대 텐트 있잖아요, 왜 부대 없는 데를 가면 군인들이 거 가서 살고. 거 뭐라 그러지? 그거를 참 실천한 사람도 내가 알고 보면 그걸 세밀하게 본 사람이니까 얘기해줄려고 그 얘길 한 거예요.

— 그럼 당시 미아리 고개에서 끌려가신 분들은?

미아리고개, 그 양반이 그 당시 그 얘길 해줬잖아요. 들이 받아가지고 탕크가 부스러지는 바람에 한 두 시간을 탔다는 얘기. 그 바람에 군인들이 마주치면 쏘지만은 도망 다니다 밀려나가는 거지. 끌려 나가는 거야. 전쟁도 안하고, 전쟁을 많이 했다고. 그 옆에 사람들 쪽 보는데 그런 얘기 할 때 잘못 해석

하는 거 아니냐? 모르면서 세계적으로 모르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는 것이지.

- 당시 미아리 전투를 목격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구경하러, 죽어 자빠진 거, 피가 나는 거, 죽는 거, 군인들 죽은 거는 동네사람들이 관리를 안 해요. 하룻밤 자고 나면 그게 없어지더라고. 없어져. 또 한 가지가, 인민군들 밥해주는 건 어떻게 밥해 주냐? 밥을 때면서 밥을 해요. 밥을 때면서. 그거 모르시지. 마차야 마차. 바쿠가 커. 그게 말하자면 저거 식이래. 일본식이고. 바쿠가 엄청 커요. 가생이는 쇠로 이렇게 두르고. 말하자면, 그 위에고 앞애가 바쿠가 돌이고 마차가 길어요. 여기서 이만해. 말이 몇 개가 끄냐 하면, 3개(마리)가 끌어. 앞애가 하나가 끌고 옆애가 두개 끌고. 나무를 실어. 거기다 나무를 실어가지고 인민군들이 가면은, 가면서 퍼주면서 줘. 그렇게 빠르더라고. 우리는 부대에서 해주잖아요. 개네들이 발전이 됐다는 거야. 나무를 때면서 가면서 밥을 주더라고. 인민군이 쉬잖아. 개들이 첫 번에 들어왔을 때, 나 중에는 모르겠어. 그 땐 이제 나도 지원해서 갔을 때니까 모르고. 그 당시에는 그걸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야.

-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변화가 있었나요?

안변했지. 피난나간 사람이고. 나도 밭이 많았어. 옛날사람들은 밭을 일귀먹고 했는데, 일본 정치 때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 집안은 건드리질 않았어. 행세를 다 알아 그놈들이. 농사. 일본 적산 땅이지, 적산 땅을 갖다가 무조건 나무하나 비면(베면) 클나요. 나무 하나 비면(베면), 모작모작, 밤에 가서 땔나무를 지어다 물어놨다가, 1번지, 9번지가 그런 집들이 많아. 오막살이 하룻밤사이 집, 그래가지고 산 사람이 많았다고, 집을 질 수가 없었어요. 허락이 없으면, 그 당시 집은 그대로 살았고.

(사람 들어 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내가 뒤에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 해 줄게.

- 네. 긴 시간 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5 정릉 옆 마을, 교수단지 이야기

- 박여병, 이정희 부부

●
●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는 여러 역사적인 장소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태조 이성계의 부인 신덕왕후의 '정릉', 그녀를 기리는 원찰 '흥천사'도 이곳에 있다. 그리고 그리고 정릉과 흥천사를 잇는 중간에 마을이름 '정릉교수단지'가 있다. 이름부터 생소한 '교수단지'는 독특한 유래를 가진 마을이름이다. 숲이 우거지고 '여우소리'가 들려왔던 정릉 주변의 임야가 1965년 무렵 불하되면서 주택이 들어 서기 시작했다. 정릉동 559번지 일대의 땅을 당시 서울대 교직원들이 조합을 결성해 가옥을 설계·건축하여 살면서 조성된 주택단지이다. 민간에서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개발된 것으로는 첫 사례인 셈이다. '교수단지'의 독특한 매력은 마을이 조성될 당시 주택들마다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조성하여 주변의 경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점이다. 1970년대 초까지 마을에서 사용하던 공동우물인 '어수정'과 마을보호수가 흔적으로 남아 있는 공원 길을 거닐어 보는 것도 역사와 도시가 공존하는 성북동에서만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일 것이다. 오늘의 인터뷰는 교수단지가 처음 조성될 당시 서울대 교무주임으로 재직하면서 이주해 오셔서 줄곧 이 곳에서 살아 온 박여병 선생님의 삶을 통해 이 독특한 성북구의 '마을'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고지수

정릉 옆 마을, 교수단지 이야기

일 시 : 2013년 11월 28일

장 소 : 정릉동 교수단지 박여병씨 자택

구술자 : 박여병, 이정희(부부)

인터뷰 진행 : 박수진, 백외준

－ 저희들은 문화원에서 성북구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릉지역도 조사 중인데 이 교수단지 마을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어르신께 말씀 좀 여쭙려고 왔습니다.

(박) 이 교수단지를 할 때는 제가 서울공대 교무주임할 때 일거예요. 근데 그래도 시간여유도 있었죠. 이 산을 교수단지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성북구에서 지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재관리 그때는 처음이 아니고 9기예요. 문화재관리부에서 불하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를 불하를 받았어요. 받는 값은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했나본데 싸게를 했는데 이걸 택지 조성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어요. 산을 갖다가 밀어가지고 택지를 조성하니깐.. 택지 조성 설계한 분은 건축과에 윤장섭씨라고 여기 살다가 어디 딸네 집엔가 간다고 이사 갔어요.

－ 서울대 건축과요?

(박) 윤장섭 교수, 그리고 토목 공학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 사람은 안철호씨라고 토목과 교수예요. 나는 행정직으로서 제일 시간여유가 많았죠. 서울대 공대 경주 유물학대인데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깐 나보고 맡아서 해달라고 그래

서 내가 여기 할 때 가끔 나오는데 토목공학에 대해서는 토목과 교수가 조언을 해주고 건축과에서는 윤장섭도 여기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윤장섭 씨가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택지를 조성했죠. 내가 가끔 돌아보는데 삼십년이 되었어도 축대가 하나도 금이 가거나 깨진 곳이 없어요. 그거는 철저히 건축과하고 토목과하고 협조를 해서 했는데 교수 단지라는 이름도 아마 성북구청에서 지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짓지를 않았어요.

— 혹시 교수단지가 계획된 이유가 있었나요?

(박) 계획되었다는 게 서울대학교 주택조합이라고 있었거든요. 주택조합의 이사장은 문리대학장이 하고 그 다음에 이사들은 각 대학에서 건축과 토목과 교수, 문리대 학장이 아마 이사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불하 받을 때 싸게 받았죠. 문화재관리국 예산이 적어서 필요가 없어서 안한다, 그런데 그때 제일 우리가 고민을 한 것은 신흥사에서 이층 이상 짓는 걸 반대를 해요. 철이 맥상 죽는대요. 풍수지리상. 절간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도로를 내야 되잖아요. 신흥사 도로를 내야하는데 그것도 정말 결국 실무를 내가 보니까 가서 주지를 만나서 시주를 하고 그러고 양해를 구해서 ‘좀 하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시주를 받았으니까 길은 내 주겠다 그랬죠. 지금 오다가 본 거기 길이 있을 거예요. 그 주지는 돌아가고 안계시고 다른 분이 왔는데 사람들 다니는 거는 통하지만은 차 다니는 것은 금하는 거고. 또 개 데리고 다니 말라고 하고요. 처음 할 때 고통은 받았지만은 그래도 순조롭게 거기 길을 내서 나고 한기 한개 스카이웨이 가 여기로 지나가니까 거진 편해졌죠.

— 정확히 몇 년도에 교수단지가 지어졌어요?

(박) 그래서 이게... 서울시청에서도 담당 직원이나 계장은 안 된대요. 허가

를 못해 준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윗선에 얘기를 해야겠어요. 계원, 계장 과장이 안 된다는데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우리 ROTC 단장하던 이가 손관도가 있었는데, 손관도씨가 제일부시장인가 김대만씨가를 안데요. 그래서 전화로 얘기를 하고 나한테 편지를 써주고 해서 가서 김대만씨를 만나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아래서는 안 되는데요. 부시장이 계장 과장을 불러서 서울대학교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불하한 땅을 사서 택지를 지으려고 샀는데 해줘야지 안 해주면 되냐 그래서 부시장이 불러서 허가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때는 구청은 이런데 관여를 할 때가 아니에요.

-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박) 68년도에 김신조가 왔잖아요. 그전에.

(이) 여기에 이사 온 거?

- 시작한 때요.

(박) 수경사에서 스카이웨이가 있어서 2층 이상 짓지를 못하데요. 그래 이 법이라는 게 군사 만능시대인데 또 어떻게 제재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안암동에 집을 팔고 이사를 왔어요. 와서 이층까지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층을 지었습니다. 여기 와서도 이층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법을 바뀌지 않고요.

(이) 산동네 마냥 높아서 다니기가 나쁘잖아요.

(박) 그 때는 이층 이상 허가를 안 해주기로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수경사 사령관도 만나서 사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층 이상 지어도 빌라, 아파트 지어도 말을 안 하는 거죠.

- 부시장했던 김대만...

(박) 그때는 내가 젊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지금처럼 80-90십대가 되면 하겠어요. 삼십대인가요. 그래가지고선 안 되겠다 빨리 집을 짓자 나도 짓고 윤장섭씨라고 공대 건축가 교수 그분도 집을 짓고 몇 사람 집을 짓고 스카이웨이가 나고 하니까 편해지고 절간에서도 양해해서 진입로가 생기고.

- 진입로는 어디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까? 교수단지 들어오는 길이 어느 쪽으로 있었어요?

(박) 교수단지는 우선 우리집은 안암동에 있었는데 공대 윤장섭 교수도 요 앞에 집에 지었다가 팔래 집인가 간다고 가고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온 사람은 4-5명밖에 안돼요. 36길 피길 해가지고 다들 팔어.

- 할아버지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요. 미니마트 있는데 그 길을 낸 거예요?

(박) 신흥사해서 올라왔죠. 스카이웨이가 없었을 때는 절간에서 안 해줘서 시주를 하고 주지한테 주지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조씨 일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내가 30-40대니까 했지 나이 먹었으면 못 하죠.

- 그거 맨 처음에 학교에서 시작하던 몇 년도인가요?

(박) 문화재 관리청에서 불하를 하는데 그 때는 값이 싼어요. 예산이 모자른대... 불하를 한다고 해서 샀는데 집을 못 짓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저기 내가 실무를 맡았으니까, 또다들 학교 다녔죠. 학교 다녀봐서 알겠지만 내가 자리를 비워도 충분히 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정사는 윤필용 씨가 사령관으로 오니까 빨리 하라고, 손관도라고, 아까 얘기했던, 수정사도 내가 가서 수정사령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안돼요. 만나서 얘기하니까 이층까지만 허가

를 하겠대요. 이층 이상을 허가하면 스카이웨이라는 게 군사도로거든요. 이층 이상 지으면 시야가 막혀서 안 된다. 지금은 몇 층인지 빌라 올려 짓지만 그때는 군사 만능 시대이거든요.

— 몇 년도에 처음 시작하셨어요?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서울대학교에서 말이 나온 게요.

(이) 68년도에 김신조가 왔잖아요. 김신조가 오고 나서 길 만들었잖아요.

(박) 김신조가 오고 나서 스카이웨이가 생겼죠.

(이) 스카이웨이는 생겼지만 이 단지 그 전에...

(박) 그전에는 절간에서 올라 왔잖아요, 스님들도 시주를 하니까 동의를 해 줘요. 근데 공사를 안 해도 우리가 시주를 받았으니까 길을 내주겠다 해서.. 신 홍사로 올라와 봤을지 모르겠네요.

— 네, 올라왔습니다.

(박) 그 길을 절간에서 시주 받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굴다리, 스카이웨이가 생기니까 굴다리가 생기고 스카이웨이가 생기니까 이리로 진입로가 생기고요.

(이) 근데 이 교수단지 제일 처음에 축대 쌓고 한 게 언제쯤이냐고요.

(박) 글썄, 그게 내가 학교에 있을 때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국가 예산이 부족하대요. 팔아서 예산 쓴다고 우리가 하니까 덩달아서 장사 한 거죠. 저기 아래는 교수단지가 저기까지가 다가 아니거든요.

— 559번지.

(박) 그 아래 도는 라인이 있어요. 그 중간엔 토지업자지.

(이) 한영권씨.

(박) 한영권은 저기 아래 살고, 한영권씨가 거기 땅이 조금 있었다나 봐요.

여기는 개발해주고 거기를 허가를 안 할 수 없잖아. 임선재... 가운데 임선재라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는 여기 3600평을 36피 길을 만들었어요. 여기 우리가 두필지가 되는 겁니다. 마당, 시야가 넓어야겠다, 와서 살면서 그래서 이 앞집에 살다가, 이 앞집도 두피지 배정도 받았는데 가드라인을 놓으니까 앞이 막혀요. 내 성격에 앞이 틱어야겠다 해서 그거를 팔고 그 돈으로 의대 차철원교수인데



인터뷰 중인 박여병씨

집을 안 지어요. 집을 지으려면 허가를 맡았을 때 빨리 짓지 왜 안 짓냐 그랬더니 하니까 팔래집에 가서 살아야 된대.. 그러면 나한테 팔아라해서 시가대로 내가 사서 이집에 온 거죠.

— 어르신요, 고향이 이북이세요, 원산이세요, 굉장히 정직 하신 거죠.

(박) 주택조합에서 내가 상무이사를 했거든요. 조합장은 문리대 학장이 하고 또 근데 건축가 교수가 김영걸씨, 윤장섭씨도 살다가고, 재국장 네가 김영걸씨예요 집 안 짓고 그냥 가고...

— 당시 문리대 학장이 누구였나요?

(박) 문리대학장, 이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근데 이사장이지 실무는 이사회에서 해서 내 상무이사가 되고 토목과하고 건축과 교수.

(이)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은 일체 몰라요. 맨 땅을 가지고 축대를 쌓고 대

자를 만들고 예비군 훈련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집짓기 전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리로 이사를 왔죠.

- 그러면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습니까?

(이) 네, 축대. 축대만 있었죠. 수도가 없잖아요. 그때 수도 놓기가 힘들었거든요. 개인은 안 놔줬어요. 수도. 수도 놓는 거.

(박) 수도도 없었죠. 수도도 없었는데, 전기는 개인업자니까 이내 해요. 수도 사업소에 가서 사정을 했어요. 집을 짓고 전부 우물을 파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대로 우물 팠던 자리가 아직 남아있어요. 거기에 나무를 심었지만요. 얘기를 했더니 물 안 먹고 살수는 없으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그 대신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니예요. 가구당 얼마씩 내고 했죠.

- 주로 입주하신 분들이 교수님들이었습니까?

(박) 집 들어오기 전에 수도를 먼저 냈어요. 집 지을 때도 우물도 만일 수도가 안 되면 한다고 해서 펌프 묻으려고 박아보니까 10m, 15m를 박아도 물이 안 나와요. 위에 적조사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물이 나오거던. 여기는 물줄기가 없나 봐요. 만일 수도가 끊길 때가 많고 하니까 수도를 파다가 말았던 자리가 아직 남아 있어요.

- 대체로 여기 이사 오셔서 사는 분들이 그 때 당시 교수님들이셨네요?

(박) 그렇지. 근데 윤장섭 교수, 전 34 사람 밖에, 안 들어오고 다 팔았어요.

- 땅만 사놓고 계시다가.

(박) 여기 앞에 재국장네 부터 김영걸 건축과 교수인데 안 짓고 팔래 집에

간다고 나보고 팔아달라고 했었죠.

- 그러면 다른 대학교 교수들도 여기에 있었나요?

(박) 그때는 몇 사람 와 살았는데 서울대학교에 적을 둔 사람은 6-7명밖에 안 될 거예요.

-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사셨나요, 어떤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이 사셨나요?

(박) 건축과 토목과 교수....

-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직접 하셨으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이다 여기다 할 거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도 그런데, 추천을 하셨데요. 서른 몇 가구가요. 처음 추천을 하신 곳, 처음 받았던 곳을 지어서 사셨는데, 마음에 안 드셔서 나중에 판다 하니까 여기를 사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정직하신 거 같아요.

(이) 그때 우리 애들이 중학교 다니고 아들이 그때 대일 고등학교 다녔고, 대학은 큰 딸이 서울 여자 대학 다니고 근데 개는 졸업을 하고 결혼하고 미국을 갔다가 10년 있다가 왔고 지금 배재대학 교수예요. 가정과 나왔는데 아는 게 영어를 다 잘하니까, 시험을 치니까 영어, 생활영어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아들인데 농대를 나왔어요. 그때 시험 1차 떨어져서요.

(박) 근데 그때는 어느 학교 시험을 본거 아니거든? 200점 이상이 되어야 서울이나 서울시 주변에 대학을 가게 되어 있고, 195-194점 밑은 지방대학으로 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강원대학로 보낸 거예요. 경기도에는 마땅한 대학이 없어요. 거기서 교수가 김광현 씨라고 우리 고향사람이야, 나를 보



이정희 여사, 당시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고 우리 형님하고 수원고는 동창이니까 안심하고 나한테 아들 맡기라고 해서 서울은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강원도 김광현 교수, 강원대학으로 아들을 보낸 거예요. 딸들은 다 서울서 다니고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모든 제도가 달라서 지금은 연합고사를 봐서 몇 점 이상해야 서울주변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시험 다시 볼 여지도 없어요.

(이) 아들하나 딸 둘인데 이상하게 아들은 농대 나와서 우리가 배 밭에서 농사를 짓고 딸 둘은 대학교수예요. 막내딸은 이 언니

랑 같아요. 60년생인데 저 남편 미시간 대학에 가서 공부하러 같이 갔는데 애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겠대요. 애기 맡기는 돈, 집세 내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지내들이 있는 돈을 보내주지만 너무 많잖아요. 딸은 장학금 나왔지만 그래서 본교에 와서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땀어요. 막내가 공부는 제일 잘 했나봐.

- 그 당시에 서울대가 혜화동에 있었죠?

(박) 대학원이죠.

- 대학원만 있었어요?

(박) 그때 박선흥씨가 아마 대학원 원장 했을 거예요. 박선흥씨도 여기 어딘가 아들인가 손자가 누가 여기와 살았어요.

- 서울대는 언제 관악구로 이사 갔어요?

(박) 이사 가기 전이죠. 여기에 있을 때죠. 이사 간 다음에는 나도 떨어져 서울대학 그만 두고... 이사 가기 전 준비로 고향이 원산인데 원산서 과수원을 했거든요. 그래 시골 땅이 쌀 때니까 양주에다 과수원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것을 만들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하고 나무 심어서 수확이 괜찮아요. 서울서 다니면서...

(이) 이 집 저기서 살면서 애들 공부를 셋 다 잘하니까, 과외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다 대학교수고 애만 과수원 하니까 남들이 볼 때 이상하잖아. 아들이 왜...

(박)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애들 데리고 여기도 데려와 보고... 집을 었다 짓느냐 해서. 여기도 데리고 와보고, 우리 집은 안암동에 있었는데, 강남에 제3한강교 바로 근처인데 안 팔았으면 괜찮았을 거야.

(이) 압구정이잖아요.

- 거기 사시는 분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기가 더 좋았대요.

(이) 거기는 쓸쓸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압구정로.

- 압구정은 호박밭이라잖아요.

(박) 애들이 팔재, 지금 400평을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좀 모자랐어, 제3한강교가 난다는 걸 알고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하는데 거기 400평 가지고 있는 걸 왜 파느냔 말이야.

- 지금 거기 배 밭이 만 평이에요.

(박) 이 땅을 복토라서 집을 지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한 거야.

- 어르신 그러면 당시에 사진들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사진이나 자료들, 여기 처음 이
사 오실 때나 만들어질 때 사진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세요?

(이) 여기 올 때 사진이 뭐가 있지?

- 여기 오실 때 사진이나, 동네 사진 어르신 사진도 괜찮고요.

(박) 사진 같은 거 이사 다니다 보니까 없을 걸 같은데 어디 찾아보면 있을
지 모르지만.

- 그러면 이 집은 그 때 지으신 그대로 있는 겁니까?

(박) 이 앞에 살다가 나는 앞이 막히는 게 싫거든요. 배정을 받은 게 추천을
해서 받으니까 옆으로 되어있어요. 두 필지를 받긴 받았는데 마당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마당을 옆에 만들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양반도 딸래 집
에 가고 집을 안 지어요. 다 지었는데. 아니 마당은 둘 수가 있잖아요. 왜 윤 교
수 집을 안 짓는가 물으니까 딸래 집에 거기 가서 살기로 해서 팔아 달래요. 그
럼 팔면 얼마에 받겠냐 하니까 거기 시가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얼마
라는 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거 팔아서 충분히 샀죠. 내가 사마 이래가지고서
내가 샀어요.

(이) 그 때는 썼어요. 그때 평당 5만원, 저 앞에 집이 이해명씨라고 그 이도
시가대로 들었는데 내가 5만원씩 받았으니까. 이해명 씨네 땅을 5만원씩 받았
잖아 평당 그때 우리도 5만원씩 줬죠.

(박) 그 때 이거 할 때는 그 양반 성이 윤씨데.. 문리대 학장이 면장이 하고
이사가 6명, 내가 상무이사를 보고 이렇게 해서 택지 조성을 할 때도 감독은 따
로 두었지만 서울공대 출신하고 토목과 출신 하나, 토목공학을 한 사람이래야
택지 축대 쌓고 하는 걸 하겠지. 두 사람은 한 달에 얼마씩 두고, 아마 우리 교

수단지에 축대 무너졌다는 집은 없을 거예요.

- 그러면 당시에 출근하실 때 어느 길로 출근 하셨습니까?

(이) 신흥사로 내려가서 돈암동.

- 돈암동에서 버스 타시고.

(이) 마을버스도 없었어요. 이 동네가 몇 집 되니까 이게 저 위에 같이 하
고 했죠.

(박) 신흥사 입구까지 길이 없었어요. 불교 믿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길
을 안내줘요. 그래서 사정하고 시주하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해준대요. 차가 경
내로 안 들어와도 장차 어떻게 되던지 사람이 충분히 가고 오고 할 수 있게 내
달라 자기네가 스카이웨이 오는 데까지 길은 절간에서 했죠.

- 아... 그러면 신흥사로 나 있는 길이 신흥사 땅이에요?

(박) 네.

- 아. 동네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구나. 옛날부터 있었으니까요.

(박) 네, 그러니까 시주를 충분히 했죠.

- 시주는 그 당시에 시주는 얼마 했어요?

(박) 그 때 돈으로 적은 돈 몇 만원 했으니까요.

- 몇 만원 했는데 길까지 뺀 내줘요.

(박) 그니까... 그 대신 자기들이 길을 내주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스카이

웨이가 나고 했으니까 철책으로 막았잖아요. 거기서 차가 다녔어요.

(이) 우리 막내가 한 나이인데 학교 다닐 때 무서워서 신흥사, 집 하나도 없죠. 내려가야 하거든? 내가 돈암동 가서 기다렸다 데려 왔어.

— 막내딸이 학교를 어디로 다녔는데요? 어디 고등학교 다녔어요?

(이) 우리 딸? 우리 딸은 한성여자중학교 다니다가 홍소자씨가 교장 했던 데 있죠. 망우리에 있는... 경선이가 어느 고등학교 다녔죠? 저기 상장도 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내가 기억력이 참 좋은데 다 잊어버렸어요. 가시면 아... 우리 딸 그 고등학교 다녔어요, 기억날 거야.

(박) 아들하나 딸 둘인데, 아들은 내가 과수원하고 그랬으니까 취직을 안 하고 영국 유학을 가겠대요. 내가 영국 유학 보낼 돈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취직을 해라. 무슨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고 요트... 강원대학을 다녔는데 요트를 배우기 위해서 영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하니까. 과수원 하니까 와서 나를 도와요. 나를 몇 년 돕고 나니까 내 나이도 한 50대가 지나고 60대가 중반 인가 되었을 거예요. 내가 은퇴를 하고.

(이) 이 양반이 대단해요. 회초리만한 이런 배나무를 그 만 삼천 평에 다 심었어요.

(박) 그거 꽃을 때에도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갔다고, 막대기 꽃아 놓고 배 밭을 하겠다고 하니까 난 고향에서 과수원을 해봤으니까 그건 농사짓는 것보다 이게 낫다 해서... 아들 그냥 주고.

(이) 배나무, 땅을 누가 사서 하나로 만들어서 만 삼천평, 거기서 삼 천평은 팔아서 우리 여기 쓰고 만평을 가지고 과수원을 해라. 우리는 아들한테 생활비 하나도 안 받아요.

- 저쪽도 배밭골이라고 하잖아요.

(박) 거기는 묵동.

- 거기 말고 덕정.

(박) 지금은 양주시가 됐죠. 묵동이 아마 배 밭골이라고, 나무를 심을 때는 고향에서 배 밭을 해봤지만 묘목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어요.

(이) 경선이 다니던 고등학교, 개네는 고등학교가 교복...홍,

(박) 홍소자씨요?

(이) 돌아간 육여사 사촌동생이에요.

- 육영수여사 사촌동생이요?

(이) 네, 그이가 교장을 하는데 경선이 보고 고등학교 가서 내내 일등을 안 놓치고 하니까 나를 상을 줘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어요. 저를 지지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막내가 올해 목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어요) 내가 개돈종암동까지 갔다가 오는 걸 기다렸다가 데리고 올라오고, 여기 우리도 필요하니까 마을버스를 샀죠. 얼마씩 내서...

- 아... 그렇게 시작 됐구나 마을버스가...

(이) 네. 그랬는데 점점 넓어지고 처음에는 우리 집 들어오기 전 하나만 있었는데 그 주위에서 보면 저 아래 약수터 들어가는 데가 다 보여요 집이 없으니까.

(박) 그때는 허가권이 시청에 있었기 때문에 구청은 그냥 경유 하는 거였죠. 시에서 김대만씨가 아니면 허락을 못 받아요. 그래도 그분은 우리 ROTC 단장 서울대학교 송관도씨가 소개를 해서 가서 수경사 사령관님 만나서 사정을 하고, 이층 이상은 못 짓는데요. 일은 두고 봐야하지만 우선은 짓겠다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거죠.

(이) 우리 딸 고등학교 해원다녔어요.

- 선생님 원산에 계시다가 서울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박) 양주, 지금은 양주시가 되었죠.

- 언제 고향에서 떠나셨나요?

(박) 고향에서 과수원을 했어요.

- 언제 서울에 오셔서 살게 되셨어요?

(박) 서울은 45년 해방됐지, 47년에 거기서 북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나는 일제 때는 반일 운동을 하고 나이가 20대라도, 해방 후에는 반공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기덕씨라고 3.1운동 33인 중 하나 강기덕씨 아들이 저녁에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우리가 과수원이 한 이천평 이내인데 외정시대에 경찰관 주재소로 든 자리예요. 근데 구역이 넓으니까 큰길로 옮겨가고 무료로 돌려주고 해서 그냥 이사 가는 날로 번나무가 이렇게 큰 거 싹 비어버리고 택지 조성했어요. 집은 두 식구 살면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박) 우리 아버지는 왜정 때 반일 운동하다가 체포 직전에 우라디보스크(블라디보스톡)로 가셨죠. 나는 아버지 본 기억도 안나요. 큰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여기 올 때도 왜정시대는 반일 운동하고 해방 후에는 반공 청년회를 하고 했으니까…거기서도 또 못살게 되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반일 운동하다가 나 6살 때 우라디보스크로 가셔서 아버지 본 기억도 안나요. 사진으로 밖에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불쌍하다고, 키우고 해줬는데 내가 체포 된다는 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강기덕씨 자제 분이 나보다 6-7년 위인데 찾아와서 자네 빨리 피하게 그

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불쌍해요. 잡히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공산당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빨리 가라고 해서 안내자까지 구해주고 해서 안내자가 연천까지 데려다 줘요.

－ 기차로요?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차로요?

(박) 그때는 연천이 북답이 됐거든요. 연천에서 기차를 내려가지고 여관에 들어가서 있다가 오실오실 해서 한탄강을 건널려고 나와 보니까 수십 명이야. 건너가는 사람이, 전부 그 시간을 기다린거야. 우리 사촌 동생이 여길 또 먼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은 개가 와서 어느 정도 잡아서 처음에 거기에 있다가 내가 서울대학 가기 전에 대한 식량공사에 들어갔다가 서울대학교에서 자리가 있다고 오라고해서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에 있었죠.

(이) 저 양반 사촌 형님인데 애국자예요.

－ 독립유공자시네요.

(이) 그래서 신학도 가고, 왜정 때... 경성대학 교수인데...

(박) 누구?

(이) 진주 형님. 이는 이 세상 나기를 혼자 나왔고, 사촌은 12명을 낳았대요. 같이 살다가 거기서 3사람은 죽고, 이는 엄마하고 혼자 따로 분가해서 집을 지어서 따로 살았대요. 9남매에서 5명이 나왔어요. 목숨 때문에 아들 딸 다 해서, 아들은 다 나왔어요. 집은 다 쫓겨났으니까, 아마 부자니까 다 뺏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 세상에 혼자 남았어요. 9남매 중 5남매가 다 나와서 결혼 한 사람들이 다 죽고, 이이는 이 세상에 나기를 혼자 나왔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박) 내가 오래 살고 있는 거지. 그래도 몇 사람 있어 다시 모이자고 그래서 모아봐라 그러는 거야.

(이) 내가 창피해서 못 봐. 우리 딸 경선이 졸업 할 때 나, 장한 어머니 상 탔다고 했잖아요. 그거 잘 모셔서 뒀는데 3년 전에 여기 비가 오면서 2층 방 잘 모셔 뒀는데, 그게 젖어서 시커멓게 됐어요. 그래도 보여드리면, 이 방에 내려다 놓고 있는데 상장이 있다고 해서 보자고 하면 상장을 이렇게 관리 했나 해서 내가 못 보여드려, 미안해서요. 내가 관리를 잘 하려고 높은데 갔다가 뒀는데 비를 직접 맞았어. 장 위에 얹어 놓은 게. 2층 장.

- 두 분은 언제 만나셨어요?

(박) 우리 6.25 전에 만나긴 만났는데, 우리 연애 스토리 쓸라고 그래요. 옛날에 연애했다 그러면 거짓말인줄 알죠. 옛날에 알았는데 6.25가 났잖아요. 이이는 얼른 도망을 가고 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 1회 졸업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6.25 때 산산 조각조각 헤어졌잖아요. 이이가 부산으로 해서 제주도로 해서 걸어서 안성까지? 안양?까지 왔네요. 당신 온 데... 피난 갔다가...안양까지 왔는데 기차가 서울역에 못 들어온다고 거기서 왔는데 난 서울대학 현관에 서 있는데 10월 13일 날 만났거든요.

- 51년이에요?

(이) 51년 아니 53년, 다 1.4 후퇴 때 부산 갔다가 올라왔잖아요. 난 서울대학에서 병원 따라서 왔으니까요. 거기 근무하고 했는데 이 양반도 그때는 서울대학 문교부직원이라도 서울대학에 배치가 되어있었어요. 그 전에 입원을 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거든요. 이름은 모르지, 근데 그날 만났어요. 10월13일에 만났는데 어떻게 반가운지, 그래서 우리가 10월 13일이 다시 만난 날은 인연이죠.

(박) 안양에서부터 걸어 올라왔어 기차가 서울역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6.25 때 내려갔다가 안양서 3시간을 기다리겠느냐, 3시간을 기다려도 서울역

까지 들어갈지 모른다 그래요. 나하고 누구 대학원에 있는 여자 한분이 있는데
그럼 같이 걸어오겠대요. 그래서 거기서 3시에 내려가지고 집에까지 오니까 6
시가 지나더라고요.

(이) 그땐 여름이잖아요. 1.4 후퇴를 또 한 거예요. 나도 병원 따라서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가면 우리는 장교가 되는 거예요. 훈련 받는다 하고서. 이 이는 남자가 군인 안하고 군석으로 했는데 여자가 군석으로 나 이제 어떻게 가요. 그때도 피난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시집이나 가라고 할 때인데 스무 살, 스무 한 살 때, 그때가 우리 연애시절...부산에 가서 저녁에 나가면 멧게 팔고, 난 충청도라 멧게를 거기서 처음 보는 거예요. 멧게 팔고 떡국 팔고 같이 나가서 사먹고, 용두산 공원에 가서 맨날 앉아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얹전하고 열심히 인지, 몇 년이 가도 손을 안 잡아, 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낮에 만나자고는 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호감 있게 손을 안 잡아봐. 무슨 저기가 있던가, 병신 이던가...

— 할머니가 딱 잡지 그러셨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 아주 그 소리만하면 우스워 죽어.

— 할아버지 왜 손도 안 잡으셨어요?

(박) 그때는 지금은 손잡고 다니고 팔 끼고 다니고 보통 그러지만 그때는 별로 그렇게...

(이) 용수 역에 가도 다 부축하고 걸으려고 하거든요. 대문까지 내가 못 걸어가요. 혼자 이거를 끌고도 그래서 옛날에 손 안 잡고 다녀서 이렇게 지금 이걸 해야 되냐...

- 지금도 좋으세요?

(이) 지금은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안 좋지. 그 안에 젊은 사이 부부싸움 한 번도 안했다고 하면 안 믿을 거예요. 60년 넘도록….

(박) 싸울 필요가 없잖아.

(이) 이 이가 맘이 그렇게 좋아.

(박) 나는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서로 이해하고 또 나는 이리이러했다. 그러면 돼. 내가 다른 여자 사귀어 본적도 없고.

-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동네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박) 근데 어제 보니까 당신은 어디가 써 있더라며?

- 제 명함 드리겠습니다.

(이) 이거는 오늘 가지고 오신 거네 이분도 박씨네?

- 저도 박씨예요.

-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성함 좀.

(박) 할아버지 성함 박 여병, 고려 려, 잡을 병

- 할머니 성함은요?

(이) 이정희. 이거는 우리 손자네 박수진 씨? 이거는 우리 손자. 할아버지는 명함, 핸드폰 전혀 안 써요.

- 할머니는 성함 한자가 어떻게 되세요?

(이) 이. 곧을 정, 계집 희. 이거는 우리 아들...이거는 우리 손자.

- 가져가도 돼요?

(이) 응. 가져가도 돼.

(박) 갑자기 찾을래니까... 필요치대면 내가 찾아보지... 거기 잘못 된 게 있더라고. 내가 허가를 받을 적에 수령사 사령관하고 담판을 했다고 하는데 사정을 했지. 부탁을 하고... 군인만능시대에 어떻게 담판을 하겠어. 교수단지 어렵게 만든 거니까 허가를 해달라 그랬지. 허가를 받기는 윤필용 씨는 더 어렵대요. 손관도대령이.. 지금 있는 사람이 더 좋으니까 빨리 이야기하라고 해서 허가를 받은 거죠. 이층이상은 안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일층을 지었어요. 법이라는 게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앞집에 살았는데요. 여기 난 시야 좀 틱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기가 있는데 거긴 옆으로 가로로 되어있거든요. 나무도 심고 있고 그래서 난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수원을 한 거예요. 그것도 다 인연이 있어야 돼.

(박) 학교에 있을 때 조교가 회천읍에 사는 사람인데 나는 내 꿈은 과수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평택 안성만 찾아봤다고.. 그랬더니 권인구라고, 면장 아들인데 아니 왜 과장님은 평택, 안성만 찾으시는가 하고, 우리 회천에도 과수원이 더러 있다고 그래. 한 번 가보자고, 한 번 가보니까 값도 싸고 만여 평 되는 땅이 있어요. 그래 이거 얼마 받냐고 하니깐 그때 거기 사람들은 콩밭에 심을 줄 모르거든요? 나는 어렸을 과수원을 하고 잘 산다고 하고 살았으니까 콩 심는 것보다 열배는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만여 평 되는 땅이 있어. 사가지고 구덩이를 하나 파봤어요. 배나무를 심는 게 이렇게 좁게 파면 안돼요. 이만큼 넓게 파야 되는데 하나 파보니까 25분인가 걸려. 8시간으로 계산을 해

서 동리 사람보고 요거만 하게 파가지고 얼마 정도 줄 테니까 일하겠냐 아니
까, 그때 일 없을 때니까 해동 막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와가지고서 하는데 내
가 몇 개 해보니까 제대로 봤어.

(박) 나는 공직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수원 하는 게 내 꿈이니까 묘목
을 구리에 가서 사가지고 심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
냐고. 요만한 거를 연필만한 것을 심어가지고 언제 배를 따먹겠다고 심는가.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3년이면 배 하나씩 따먹고 5년만 되면 이 밭이 나를 먹
여 살릴 수 있다 생각하고 과수원 만평을 얼마씩 준다고 하니까 서로 판다고
해요. 묘목을 구리에 가서 사다가 심어가지고 아들이 대학을 나와 가지고 취직
을 안 해가지고 거기 와서 내 뒷바라지를 현대.. 안 되겠어. 널 주고 한 일 년 해
보니까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거 같아서. 만평을 아들 이름으로 넘겨
주었어요. 아들이 지금도 잘 하고 있어요. 그 옆에는 과수원 하는 거 보고 이북
에서 나온 친구 한분이 이 땅을 같이 사자, 우리 과수원 옆에 도랑, 개울 조그만
거 건너가서 있어요. 그거는 아직 살아있는데 지금은 농사를 그냥 지으라고 해
도 안 지어요, 시골서. 몇 해는 그래서 인삼 밭도 하고 약초도 심고 그랬는데 지
금은 그냥 놓고 있어서 세금 내는 게 억울하게 지금 현재 돼 있다구... 그렇다
고 내가 지금 가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내년 초가 되면 의정부 가
서 내놔보겠다 생각을 하는거야. 그거를 팔아야 우리도 살아 갈 텐데. 허허...

-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박)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다음에 연애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이) 그때 당시에 중매 안하고 연애 했다면 그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서울대학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있고 간호사로 있다가 부산 내려가서 서울대학 임시 병원 정사 바로 건너편에 민사초병원에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가까워졌어요.

- 다음에 오면 다시 듣겠습니다.

(박) 네. 다음에 오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부록

성북구의 문화재 (2015. 12. 현재)

• 일반 현황

총 계	국가지정문화재							서울시지정문화재					기타		
	소계	국보	보물	사적	중요 무형 문화재	중요 민속 문화재	명승	소계	서울시 유형 문화재	서울시 무형 문화재	서울시 민속 문화재	서울시 기념물	소계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
128	56	16	30	6	1	2	1	50	42	3	4	1	22	3	19

• 국보(16)

연 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국보 제65호	청자 기린형뚜껑 향로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62-12-20
2	국보 제66호	청자 상감연지원앙문 정병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62-12-20
3	국보 제68호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62-12-20
4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62-12-20
5	국보 제71호	동국정운 권1,6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62-12-20
6	국보 제72호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62-12-20
7	국보 제73호	금동삼존불감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62-12-20
8	국보 제74호	청자 오리모양 연적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62-12-20
9	국보 제135호	신윤복필 풍속도 화첩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70-12-30
10	국보 제149-1호	동래선생교정북사상설 권4, 5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73-07-10
11	국보 제177호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태항아리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박물관)	1974-07-09
12	국보 제230호	훈천의 및 훈천시계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박물관)	1985-08-09

13	국보 제249-1호	동결도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박물관)	1989-08-01
14	국보 제270호	청자 모자원숭이모양 연적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92-04-20
15	국보 제291호	용감수경 권3~4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1997-01-01
16	국보 제294호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97-01-01

• 보물(30)

연 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보물 제238호	백자 박산형뚜껑 향로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63-01-21
2	보물 제283호	금보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63-01-21
3	보물 제284호	금동여래입상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63-01-21
4	보물 제285호	금동보살입상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63-01-21
5	보물 제286호	청자 상감포도동자문 매병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63-01-21
6	보물 제287호	분청사기 박자철채화문 병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63-01-21
7	보물 제348호	분청사기 상감모란문 반합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63-01-21
8	보물 제349호	청자 상감국화모란당초문 모자합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63-01-21
9	보물 제417호	홍무정운역훈 권3~16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1965-04-01
10	보물 제419-4호	삼국유사 권3~5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2002-10-19
11	보물 제579호	과산 외사리 승탑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74-10-02
12	보물 제580호	문경 오층석탑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간송미술관 (성북동)	1974-10-02
13	보물 제592-2호	허목 전서 함취당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박물관)	2010-10-25
14	보물 제592-4호	허목 전서 한간문 등	서울 성북구	2010-10-25

15	보물 제706호	중용주자훈문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1981-03-18
16	보물 제710-1호	동인지문사육 권1~3, 4~6, 10~12, 13~15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1981-03-18
17	보물 제710-2호	동인지문사육 권1~6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1981-03-18
18	보물 제710-5호	동인지문사육 권7~9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1981-03-18
19	보물 제748호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서울 성북구 솔샘로 15가길 52-6 (정릉3동, 경국사)	1983-05-07
20	보물 제850-1호	대동여지도	서울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동선동3가,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1985-08-09
21	보물 제853호	수선전도 목판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박물관)	1986-03-14
22	보물 제1164-2호	묘법연화경 권3~4, 5~7	서울 성북구 보문사길 20 (보문동3가, 보문사)	2014-01-20
23	보물 제1463-4호	용비어천가 권1~2, 7~8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2009-10-20
24	보물 제1533호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2007-12-31
25	보물 제1534호	서경도안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박물관)	2007-12-31
26	보물 제1594-3호	청구도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2009-04-22
27	보물 제1649호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발원문	서울 성북구 개운사길 73 (안암동5가, 개운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55 불교중앙박물관 (건지동)	2010-04-23
28	보물 제1768호	백자 청화 흥녕부대부인 묘지 및 석함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박물관 (안암동5가)	2012-06-29
29	보물 제1818호	서울 보타사 금동보살좌상	서울 성북구 개운사길 73 (안암동5가, 개운사)	2014-03-11
30	보물 제1828호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서울 성북구 개운사길 73 (안암동5가, 개운사)	2014-07-02
31	보물 제1891호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서울 성북구 흥천사길 29 (돈암2동, 흥천사)	지정 예고

• 사적(6)

연 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서울 성북구 성북동 ~ 삼선동	1963-01-21

2	사적 제83호	서울 선잠단지	서울 성북구 성북로 17 (성북동)	1963-01-21
3	사적 제204호	서울 의릉	서울 성북구 화랑로32길 146-20 (석관동)	1970-05-26
4	사적 제208호	서울 정릉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19길 116 (정릉2동)	1970-05-26
5	사적 제285호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1981-09-25
6	사적 제286호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1981-09-25

• 중요무형문화재(1)

연 번	종목	명칭	소재지	예능보유자	지정일
1	중요민속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서울 성북구 돈암2동	이생강	1971-03-16

• 중요민속문화재(2)

연 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중요민속문화재 제6호	사영 김병기 일가 옷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박물관)	1968-02-19
2	중요민속문화재 제113호	고대박물관 소장 흥진종 의복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박물관)	1980-04-01

• 명승(1)

연 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명승 제35호	성락원	서울 성북구 선잠로2길 47 (성북동)	2008-01-08

• 서울시 유형문화재(42)

연 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8호	삼층석탑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74-05-12
2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9호	석조팔각승탑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74-05-12

3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0호	석불입상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74-05-12
4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1호	석 비로자나불좌상	서울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1974-05-12
5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7호	삼군부 총무당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4길 147 (삼선동1가, 삼선공원 내)	1978-12-18
6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66호	흥천사 극락보전	서울 성북구 흥천사길 29 (돈암2동, 흥천사)	1985-12-05
7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67호	흥천사 명부전	서울 성북구 흥천사길 29 (돈암2동, 흥천사)	1985-12-05
8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8호	보문사 석가불도	서울 성북구 보문사길 20 (보문동3가, 보문사)	1996-09-30
9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9호	보문사 신중도	서울 성북구 보문사길 20 (보문동3가, 보문사)	1996-09-30
10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0호	보문사 지장시왕도	서울 성북구 보문사길 20 (보문동3가, 보문사)	1996-09-30
11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84호	팔정사 목 보살좌상 (대세지보살)	서울 성북구 성북로31가길 82 (성북동, 팔정사)	2004-07-26
12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12호	개운사 감로도	서울 성북구 개운사길 73 (안암동5가, 개운사)	2006-07-06
13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13호	개운사 신중도	서울 성북구 개운사길 73 (안암동5가, 개운사)	2006-07-06
14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14호	개운사 팔상도	서울 성북구 개운사길 73 (안암동5가, 개운사)	2006-07-06
15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15호	개운사 지장시왕도	서울 성북구 개운사길 73 (안암동5가, 개운사)	2006-07-06
16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23호	정각사 목 아미타불좌상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8길 57-16 (삼선동1가, 정각사)	2007-05-10
17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8호	경국사 목관음보살좌상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13-10 (정릉3동, 경국사)	2007-12-27
18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0호	경국사 지장시왕도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13-10 (정릉3동, 경국사)	2008-05-01
19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1호	경국사 감로도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13-10 (정릉3동, 경국사)	2008-05-01
20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2호	경국사 팔상도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29길 62 (정릉3동, 도광사)	2008-05-01
21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3호	경국사 신중도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13-10 (정릉3동, 경국사)	2008-05-01
22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4호	경국사 괘불도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13-10 (정릉3동, 경국사)	2008-05-01
23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91호	개운사 목 아미타불좌상 복장일괄	서울 성북구 개운사길 73 (안암동5가, 개운사)	2009-11-03

24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07호	왕세자입학도첩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2010-06-17
25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08호	계미동경소진첩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2010-06-17
26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09호	과원성화록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2010-06-17
27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37호	심곡사 목조보살좌상	서울 성북구 정릉로 57-104 (정릉3동, 심곡사)	2012-05-03
28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51호	봉국사 아미타괘불도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27 (정릉2동, 봉국사)	2013-12-26
29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52호	봉국사 지장시왕도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27 (정릉2동, 봉국사)	2013-12-26
30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53호	봉국사 명부전 시왕도 및 사자도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27 (정릉2동, 봉국사)	2013-12-26
31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54호	봉국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27 (정릉2동, 봉국사)	2013-12-26
32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55호	봉국사 석조지장삼존상과 시왕상 및 권속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27 (정릉2동, 봉국사)	2013-12-26
33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58호	미타사 아미타후불도	서울 성북구 보문사길 6-16 (보문동3가, 미타사)	2014-07-03
34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59호	미타사 지장시왕도	서울 성북구 보문사길 6-16 (보문동3가, 미타사)	2014-07-03
35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0호	미타사 신중도	서울 성북구 보문사길 6-16 (보문동3가, 미타사)	2014-07-03
36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1호	미타사 칠성도	서울 성북구 보문사길 6-16 (보문동3가, 미타사)	2014-07-03
37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2호	미타사 백의관음도	서울 성북구 보문사길 6-16 (보문동3가, 미타사)	2014-07-03
38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7호	흥천사 아미타불도	서울 성북구 흥천사길 29 (돈암2동, 흥천사)	2015-01-15
39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8호	흥천사 지장시왕도	서울 성북구 흥천사길 29 (돈암2동, 흥천사)	2015-01-15
40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72호	흥천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및 괘불함	서울 성북구 흥천사길 29 (돈암2동, 흥천사)	2015-04-23
41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73호	양아록	서울 성북구	2015-04-23
42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74호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권상	서울 성북구	2015-04-23

• 서울시 무형문화재(3)

연 번	종목	명칭	소재지	예능보유자	지정일
1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3호	매듭장	서울 성북구 성북동	김은영	1996-12-31
2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8호	민화장	서울 성북구 석관동	김만희	1996-12-31
3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5호	한량무	서울 성북구	조흥동	2014-05-15

• 서울시 민속문화재(4)

연 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7호	장교동 한규설 가옥	서울 성북구 정릉로9길 64 (정릉3동, 국민대학교 내)	1977-03-17
2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10호	성북동 이종석 별장	서울 성북구 성북로 지하 131 (성북동, 덕수교회 내)	1977-03-17
3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11호	상허 이태준 가옥	서울 성북구 성북로26길 8 (성북동, 수연산방)	1977-03-17
4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25호	장위동 김진홍 가옥	서울 성북구 들꽃이로34길 4-11 (장위2동, 진홍선원)	1977-09-05

• 서울시 기념물(1)

연 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서울시 기념물 제7호	민해 한용운 심우장	서울 성북구 성북로29길 24 (성북동)	1984-07-05

• 문화재자료(3)

연 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서울시 문화재자료 제35호	정각사 석가불도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8길 57-16 (삼선동1가, 정각사)	2007-05-10
2	서울시 문화재자료 제37호	마포 최사영 고택	서울 성북구 전잠로 68-20 (성북동)	2007-05-30
3	서울시 문화재자료 제40호	영취사 오층석탑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261-222 (정릉3동, 영취사)	2007-12-27

• 등록문화재(19)

연 번	종목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등록문화재 제91호	서울 돈암장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3길 84 (동소문동4가)	2004-09-04
2	등록문화재 제92호	서울 의릉 구 중앙정보부 강당	서울 성북구 화랑로32길 산146-20 (석관동, 의릉 내)	2004-09-04
3	등록문화재 제134호	서울 동선동 권진규 아틀리에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마길 2-15 (동선동3가)	2004-12-31
4	등록문화재 제268호	서울 성북동 최순우 가옥	서울 성북구 성북로15길 9, 128-18 (성북동, 혜곡최순우기념관)	2006-09-19
5	등록문화재 제384호	동덕여자의숙 태극기	서울 성북구 화랑로13길 60 (월곡2동, 동덕여자대학교박물관)	2008-08-12
6	등록문화재 제429호	벽걸이형 자석식 전화기	서울 성북구 화랑로 35 (월곡1동, KT월곡지사)	2009-04-22
7	등록문화재 제430호	벽걸이형 공전식 전화기	서울 성북구 화랑로 35 (월곡1동, KT월곡지사)	2009-04-22
8	등록문화재 제431호	벽걸이형 자동식 전화기	서울 성북구 화랑로 35 (월곡1동, KT월곡지사)	2009-04-22
9	등록문화재 제432호	이중 정보송신기	서울 성북구 화랑로 35 (월곡1동, KT월곡지사)	2009-04-22
10	등록문화재 제433호	음향인자전신기	서울 성북구 화랑로 35 (월곡1동, KT월곡지사)	2009-04-22
11	등록문화재 제435호	무장하 케이블 접속장치	서울 성북구 화랑로 35 (월곡1동, KT월곡지사)	2009-04-22
12	등록문화재 제470-4호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서울 성북구 성북로 49 (성북동, 화봉문고)	2011-02-25
13	등록문화재 제527호	국문연구안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2012-12-24
14	등록문화재 제531호	신록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박물관)	2013-02-21
15	등록문화재 제544호	김선희 혼례복	서울 성북구 성북동	2013-08-27
16	등록문화재 제566-2호	과학조선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과학도서관)	2013-08-27
17	등록문화재 제583호	서울 흥천사 대방	서울 성북구 흥천사길 29 (돈암2동, 흥천사)	2013-12-20
18	등록문화재 제606호	유길준 단령(團嶺)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고려대학교박물관)	2014-10-29
19	등록문화재 제655호	서울 성북동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서울 성북구 성북로24길 3 (성북동, 복자사랑피정의집)	2015-12-16

